

예술세계

Vol.255 2017 봄호

기획특집 | 정책논단

그래도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달의 작가 | 서예·전각 작가 고산 최은철

작품 속에 자연이연自然而然을 담다!

인물포커스 |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문요치 시인

세계와 우리네 삶을 이어주는 월하노인

Art + Life | 문화평론가 진종훈

복고, 융합으로 새로움을 더하자!

명인탐방 | 향토조각 명인 월당 목영봉

민중의 문화가 깃든 한국 향토조각

현장취재 | 스윙패밀리

스윙댄스,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無有恐怖 | 작가 | 고산 최은철

Jade Buddha

방한 친견대법회

일시 불기2561(2017)년 4월 1일 ~ 10월 31일

장소 인천송도 센트럴파크역 일원 및 전국 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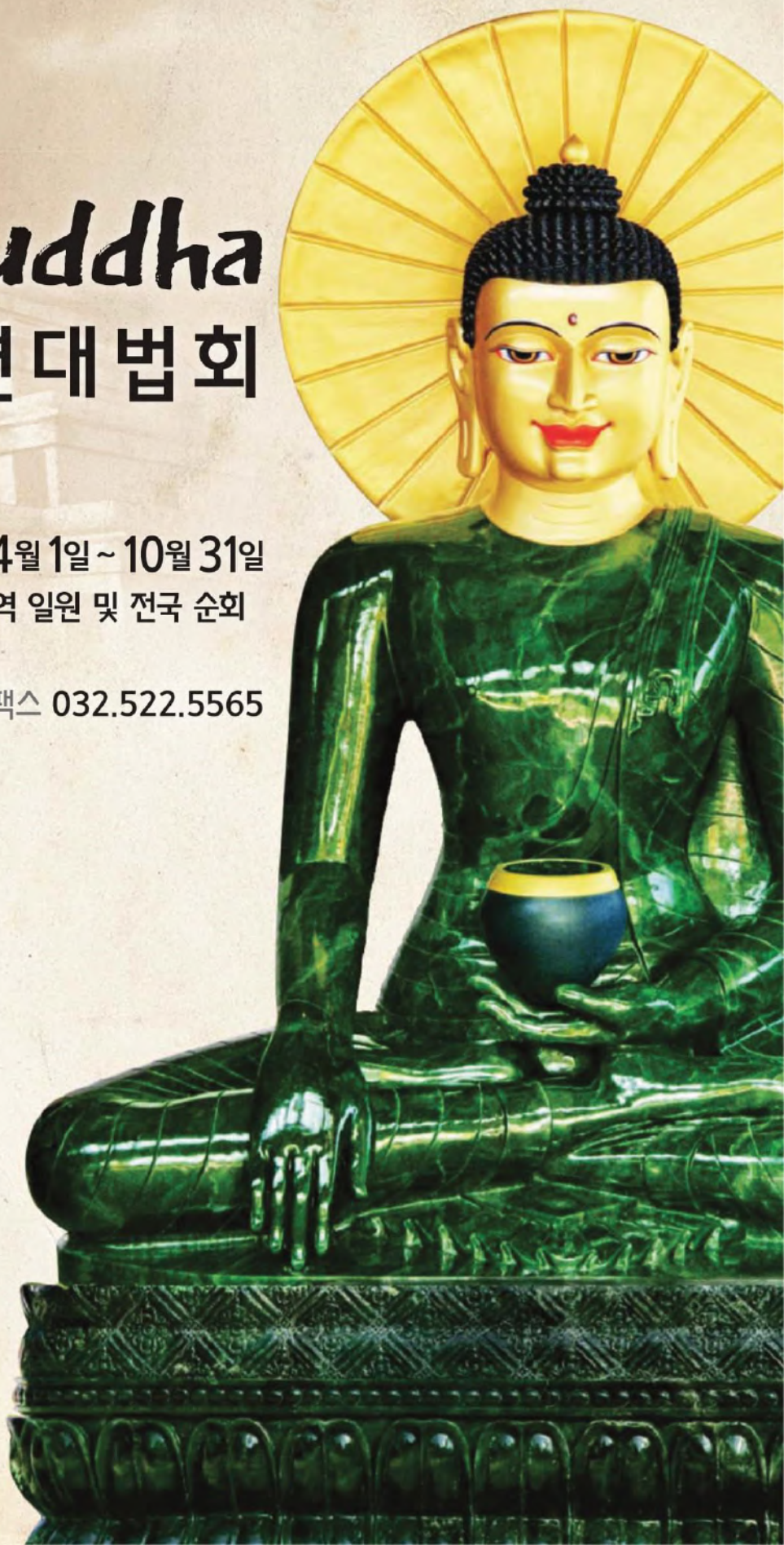
장소 변경 시 추후 공지

문의 032.522.5553 팩스 032.522.5565



Jade Buddha
for Universal
PEACE

주관 제드붓다코리아위원회
후원 인천광역시 BBS불교TV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의왕철도축제

2017. 5. 4(목) ~ 5. 6(토)

자연학습공원, 철도박물관, 의왕역, 조류생태과학관

기차타고 추억여행 / 기차타고 세계여행 / 미8군 팝스밴드 / 증이기차접기 / 철도문화체험중국서커스
해설사와 함께하는 기차이야기 / 중국 선남시 예술단 / 어린이인형극 / 버룩시장



계간 「예술세계」

Vol. 255 2017 봄호

등록 | 1984년 4월 21일 라-5084

발행처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전화. 02-2655-3000
팩스. 02-2655-3020

발행일 | 2017년 03월 10일

발행인 | 하철경

편집인 | 황익철

편집주간 | 허형만

편집위원 | 김문호 · 정인관 · 전경애
한상림 · 유선자

전문위원 | 민경범

편집장 | 김채안

기자 | 한효영

디자인 | 문나래

인쇄 | 금석

※ 계간 「예술세계」는 한국 간행물윤리
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회의 동의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정가 | 10,000원

Intro | 발행인 인사말

004 봄, 그 새로움의 계절에 부치는 희망가

기획특집 | 정책논단

006 그래도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달의 작가

010 서예·전각 작가 고산 최은철 작품 속에 자연이연自然而然을 담다!

인물포커스

016 시인 문효치 |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세계와 우리네 삶을 이어주는 월하노인 문효치 시인

문학마당 | 신인상

020 시 | 숨터 / 박정숙

021 시 | 달구경 / 박종익

022 시 | 귀로歸路 / 이솔로몬

024 수필 | 회초리 / 김오진

026 수필 | 스마트폰에 빠진 남녀노소 / 조원표

029 소설 | 푸른 옷소매 / 류미연

문학마당 | 예술시대작가회

035 수필 | 십오야十五夜의 달빛 속에서 / 이현실

036 2017년도 예술시대작가회 신임집행부를 소개 및 예술세계 신인상 공모

Art + Life

038 생활 속 한지공예 : 한지에 스며든 봄빛, DIY 아트램프

예술산책

040 남녘 고향의 쪽빛 바다를 항상 그리워했던 수화 김환기



표지이야기 _ 無有恐怖 (고산 최은철)

문화포커스

- 044 ①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으로 365일 날마다 축제
- 048 ② 풍수명인 김상휘 박사의 우리 땅 풍수이야기
조선 왕조 본향지 전주 승암산 풍수 - 上
- 052 ③ 잊혀져가는 우리 것들
안방마님과 사랑방머슴의 눈빛 속에

Art + Life

- 056 복고, 융합으로 새로움을 더하자
반복되는 문화콘텐츠의 노스텔지아
- 060 저술산 시대와 예술인 복지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인탐방

- 062 향토조각 명인 월당 목영봉
민중의 문화가 깃든 한국 향토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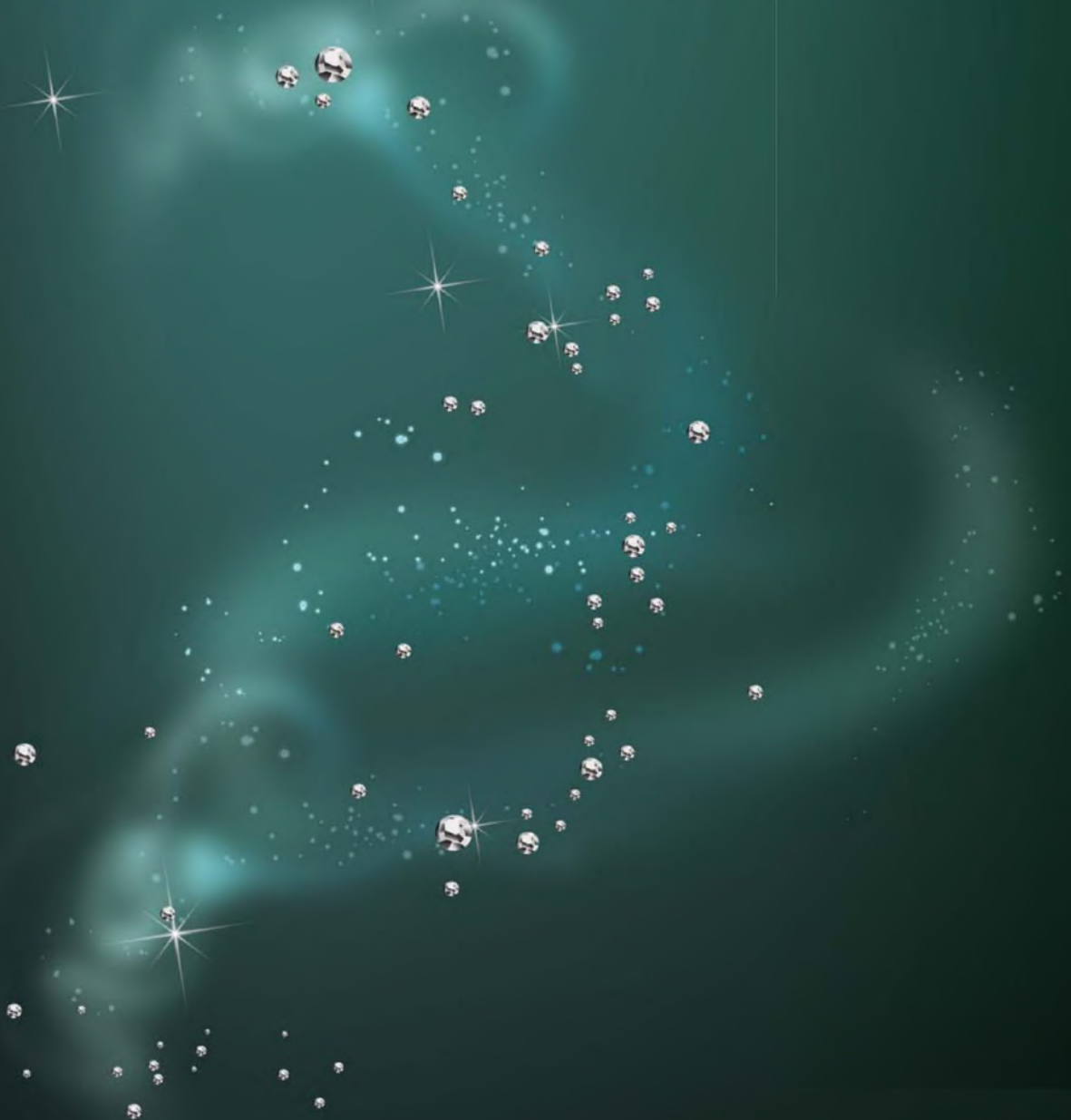
현장취재 | 본부현장이슈 · 외부현장이슈

- 066 우리 예술문화의 상징,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요력갱신 과정에서 만난 명인들
- 070 스윙댄스,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올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나의 인생
- 074 사회적경제와 마을의 융합을 넘어 예술가와의 상생을 꿈꾼다
마을 속 예술가의 역할 찾기

NEWS

- 078 한국예총 본부 소식
- 080 한국예총 회원협회 소식 / 한국예총 연합회 / 지회 소식
- 089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대관 안내
- 090 명인아카데미 개설 및 명인인증 신청공고

봄, 그 새로움의 계절에 부치는 희망가



동장군도, 꽃샘추위가 와도 결별해야 하는 시점, 벌써 남녘에서는 이른 꽃 소식들이 들려온다.

우선 봄이 오는 이 길목을 지켜서서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어수선한 사회가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예술인들을 편 가르고 힘들게 하면서 역주행을 거듭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진솔하게 반성하고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일에 모두 참여하고 매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음 좋겠다.

예술인들은 마치 구도자처럼 자기가 추구하는 예인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열을 받아 길거리 촛불 대열에 합류하고 예술인들을 핍박한 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있다. 작품을 구상하거나 창작에 몰입하고 제자들을 길러내야 할 예술인들이 거리로 나와 아우성이고, 예술부문 졸업생들은 매년 6,000여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기 분야에 종사할 변변한 일자리도 별로 없고 활동할 시장도 예나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지난 20~30년 동안 문화부의 많은 예산을 시설 투자와 공공기관 운영 등에 치우쳐 배부하거나 블랙리스트 등 차별을 두고 배부하면서 공익적 활동에도 자부담을 부담하라는 악법을 강압 받았다.

이처럼 민간예술단체들과 전문예술인들은 벼랑 끝으로 몰려있고 극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더욱 소통하여 결속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지 않으면 해결은 요원해 질 것 같다.

한국예총은 이러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 과업으로 설정하여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더욱 용감하게 추진하려 한다.

봄은 왔으되 봄 같지 않은 시절이지만 그래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예총의 혼이 담긴 「매거진 예술세계」 봄호에 인사를 올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아울러 「예술세계」에 우리 모두의 희망가를 많이 실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7년 3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예술세계 발행인 하 철 경



고백告白 II

그래도 우리가 주인이니까

지난 호에서는 '최순실의 일장춘몽이 준 교훈'을 안주삼아
참담한 예술인들의 허탈한 뒷모습을 고백(告白)하였다.
〈예술세계〉는 오랫동안 예술인들의 선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고, 동지가 되어 함께 울고 웃으며 지겹게도 힘들고
가파른 길을 걸어오고 있다.

예술인들이 피담 흘려 씨 뿌리고 가꾸어온 터전이 위정자들의 편견과 사욕으로 짓밟힌 발자국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관계자들의 빚나간 충성과 역주행 행위들은 문화예술 정책의 대전환과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술인들의 간절한 절규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거센 바람을 잠시 피하기 바쁘고 정치적 계산하여 표 얻는 쪽으로만 바뀔 게 아닌가. 지금 최창살로 포위된 독방에 갇혀있는 그들이 우리들의 간절한 절규와 민원을 살피고 존중했다면, 잘못된 것을 NO라고 하며 용기를 발휘 했더라면, 그래도 곤란하면 국민을 팔아 배짱이라도 좀 부렸더라면 이 모양 이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아마 이토록 상처받은 국민들과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은 안중에도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그 따위로 충성 하였겠지. 비좁은 대학에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온 예비예술인들, 예술을 전공한 그들이 10년·20년을 몸부림쳐도 보통의 예술인들은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버겁고, 여유부리고 누리고 사는 것은 더욱 어렵다. 어느 직종이 대학을 나와 자기 전공분야에서 10년·20년 종사를 해도 변변히



황 의 철
경영학박사
한국예총 사무총장
예술세계 편집인



사진_세계일보 뉴스 기사 중에서



사진_KBS NEWS 기사 사진 중에서

먹고 살기가 이토록 힘들까?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 볼 일들이다.

관료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것 인양 재단하고 선심을 쓰듯 배부한다.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엄두도 못 내고, 제도권 멀리 떨어져서 건너다 보고 있는가 하면, 일단의 부류들은 보조금 얼마라도 받아서 활동해 보려고 혈안이 되어 좌충우돌 한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업을 5%도 안 되는 척박한 현상은 요지부동이다. 그동안 예술계의 지도자들과 관료들은 어디에다 정신을 팔고 있었을까? 시장경제 하는 나라에서 고용과 시장 키우는 일이 지고 지순한 가치인데도 통치자와 주요 리더들은 그 중요성과 진정성을 내쳐 버리고 사육과 사유화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 아픔과 상실감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행여 미안해하더라도,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까? 기대해 보는 것도 순진한 우리들의 생각일 따름이다. 그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거짓말로 견고한 벽을 쌓고 뽀뽀함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리더들에 대한 기대

못 리더들에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첫째가 정직일 것이다. 왜 정직일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주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혜이다. 지식이 충분치 못 하더라도 전문성이 다소 떨어 지더라도 지혜의 샘물로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것은 헌신이다. 지도자니까, 앞에 나섰으니까, 숭선수범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직, 지혜, 헌신의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신뢰라는 보너스는 자동으로 얻게 된다. 정직, 지혜, 헌신, 신뢰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도자의 자산이 아닐까?

아마도 국민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소망은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보통사람들에게 보편화 되어 있는 이런 소박한 것들이 아닐까? 잘못된 리더들이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꼬라지들 하고는 모두 남의 탓이다, 내 탓은 씨도 종자도 없는 모양이다.

이미 볼 것 못 볼 것 다 보았는데도 진정으로 송구스럽다는, 내 탓이라는 양심은 아예 종적을 감추고 그림자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더 허탈하고 더 화가 나다 못해 망연자실, 그대로다.

그래도 우리가 주인이니까 해법을 찾아야 할 때

어찌든 저찌든 우리들은 오늘이 끝이 아니고
숨 가쁘게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팔자라서 꾸역꾸역 현실과 타협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희망적인 그 무엇을 갈구한다.

필자는 예술문화정책이 공공중심으로 자원과 예산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고, 반면에 민간단체와 민간예술인들은 고사 직전에 혁혁하고 있음은 앞서 많은 지면에서 누누이 살펴보고 주장해온 바 있다. '공공과 민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고의 복원', '공공이 직접 나서서 현장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가치'가 개선의 시발점이 된다면 실타래가 풀리듯 많은 해법들이 보일 것이다.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집중하면 그곳에 많은 일자리가 보일 것이다.

철옹성 같은 전업을 5%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기회들이 그곳에 있음을 볼 것이고, 그것이 예술인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다. 수많은 조직과 함께하는 조직문화 속에 예술의 씨를 뿌리는 촉진정책과 전략은 문화의 풍요와 삶의 가치를 달리해 줄 것이다.

타 부처와 관련성 있는 부문을 적극적으로 다가가보면 그곳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기회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술인들을 그 중심에 서게 하는 활동 촉진정책은 시장을 키우고 고용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유학기제, 평생교육원, 기업문화 활동과의 체계적인 연계 정책 등을 다듬어내면 아직은 미성숙 상태지만 지금까지 볼 수 없던 큰 시장이 보일 것이다. 하찮은 이야기라 소홀히 하지 말고 당국과 담당자들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곳에 수만의 일자리가 있고 기회가 있음이 나는 보인다. 문제는 그러한 시장과 기회를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지혜의 눈이 없고, 촘촘한 정책이 없을 따름이다.

그리고 묻고 접근하려는 열정이 없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과 상처들은 결국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고, 이 악업들을 선업으로 바꾸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하찮은 제안이라도 함께 관심을 갖는데서부터 희망은 시작된다. 망연자실 서 있지만 말고 누구의 탓만 하지 말고 움직이자. 그것도 창작이 될 테니까.





대한민국 표면처리 1호 명장 배명직

www.goldmeister.co.kr



NAVER

골드마이스터

검색

대한민국명장



Gold Meister Bae MyeongJik

배명직



이젠 선물 문화를 바꿔보세요 주는이의 기쁨 받는이의 감동...

대한민국 명장이 만든
최고의 명품 선물 브랜드

골드마이스터는 위생과 안전을 우선시하여 특화된 설계기술과
제작 노하우로 고객만족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공도금기법을 이용한 친환경 도금으로 여러분에게
만족을 선사 하였습니다



불멸의 황금칼 아바타네프 방송모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48-6번지 1층 배명직의 명인명장 컬렉션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4-1 이마트 5층 (주)기양금속
www.goldmeister.co.kr T. 031) 491-5989



작품 속에 자연이연自然而然을 담다!
서예가 고산 최은철

개인의 지나친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과 일체가 되어 살아가라.
인간의 참된 본성과 부합하는 장자의 사상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고산 최은철 작가!
갤러리 산에서 만난 작가는 장자의 '도'를 말하며 눈빛을 반짝였다.
그가 마주한 예술세계는 어떤 곳인지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취재·글-김채안(예술세계 편집장)





갤러리 산

작품에 장자의 도를 담아내다

우리나라는 이조 500년의 뿌리 깊은 유교사상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를 이끌었던 유교 정신은 지금도 이 땅을 지배하고 있으며, 예술 또한 그 사상을 바탕으로 창조되어 왔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깨닫게 되면서 도가계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작품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예의 본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장자의 도를 계속 연구하였고, 어느 순간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지요. 중국 동진(東晉)의 서예가 왕희지는 서예를 '소도小道'라고 하였습니다. 소도(작은 도)라고 하면 보잘 것 없는 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서예는 단순히 붓으로 펼쳐는 예술이 아니라 우주론 차원에서 자연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리 또는 서예가 추구해야 할 길을 도라고 합니다. 도하면 다른 말로 자연스러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개발하고 예술가들은 음악, 미술, 건축 등을 통해 예술의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서예 또한 도를 바탕으로 본연의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無有恐怖 무유공포 · 310x380mm



無有恐怖 무유공포 · 310x380mm



靈氣 영기 · 350x970mm



道 도 · 350x880mm



眞覺國師語 眞覺國師語 · 1370x350mm

“마음 내키는 대로,
큰 새가 큰 날개를 펴고
하늘 위를 유유히 돌듯
흘러 다닐 뿐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네”

우리가 흔히 보는 태극 문양의 경우 빨강과 파랑이 음양을 표현하고, 율동적으로 변화를 주는 S자 라인이 두 상반된 기운을 조화롭게 합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성질로 이루어져 있지요. 음양오행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밤과 낮, 길고 짧음, 넓고 좁음, 거칠고 부드러운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고 있지요. 이러한 섭리를 글씨로 표현한 것이 바로 소도, 서예입니다. 서예 작품 속에는 어둠과 완함, 좁음과 넓은, 직선과 곡선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음양의 원리를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서·화·각의 융합

개인전에 필요한 도장을 돈 주고 만들긴 아깝다는 생각에 시작된 전각이 이제는 연구를 하게끔 하였지요. 어디에선가 '조그마한 방촌(方寸)의 예술, 사각 한촌(約 3.3cm) 밖에 안되는 공간에 우주의 원리를 넣는 것이 전각이다.'라는 글귀를 보고 놀랐지요. 그렇다면 서예의 원리를 전각의 원리와 같이 조합해 보니 **곧 서예가 전각이고, 전각이 서예이고 또 그림이 곧 전각이고, 전각이 그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 작품세계는 서·화·각이 융합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 여기저기 많이 배우러 다녔지만 시원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 중국에 가서 책도 많이 사들였습니다. 한국전각학회의 학술분과위원장을 맡으며 학술적인 연구와 더불어 작품활동을 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중국풍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왜 중국풍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작품이 주로 반듯하고 뾰뚱하다면 저의 작품은 여백이 있고 삐뚤빼뚤한 것이 다르다는 점에 '중국풍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반듯하고 뾰뚱한 것이 진나라·한나라 때 인장의 방식이라고 고수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외로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세계는 달리 보여지나 봅니다.

서예나 전각 그림에 대한 이해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고, 전각 또한 도를 기본철학으로 작품세계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를 그린다고 하지 않고 대나무를 친다고 하잖아요. 붓글씨가 생동감이 있으려면 먹으로 곱게 이쁘게 발라서는 생동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마치 칼로 쓴 듯한 어떤 붓놀림이 있을 때 획의 강한 생명감이 들어갑니다. 글씨를 쓸 때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득아늑다라삼막삼보리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는 칼로 쓰듯이 하고 반대로 딱딱한 칼로 새겼는데 딱딱하고 뾰뚱한 글만 나오면 재미가 없죠. 반대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변증적 사유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것으로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것이 예술가가 가져야 하는, 특히 서예·전각가가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그 방법을 터득한 사람한테 기초부터 배우다 보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당초 그런 말조차 가까이 하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도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도를 떠나서는 한시도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갤러리 산을 다녀 간 분들에게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의 시작

이러한 학문적 근거를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도를 깨우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교과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아 그 질문사항에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학생들과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처음 듣는 강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회에서 모든 경제 사회 문화가 돌아가려고 했었고 틀 속에서 예술가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을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예술가들의 창작실태, 창작 당시의 마음가짐들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장자의 철학을 설명하여 주니 좋다고 할 수 밖에 없지요.



玄同 현동



인장 道 道

재료 선택의 다양성

서예·전각·도자기 등을 어디다 쓰고 새긴들, 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이관지—以貫之(하나로 꿰뚫고 있다) 하나로 통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개를 장황하게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도라는 한 글자에서 천착을 하고 깨달고 찾다보면 저절로 나머지가 보인다는 것이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필요없게 되고 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좋은 사람만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나쁜놈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어떤 기회를 빼앗겼을 때, 패배를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양이라면 그 사람은 음으로서 나에게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기본좋은 사람 만나면 기본 좋게 대하고 기본나쁜 사람 만나면 속으로 내가 조금 조심해야겠다 하면 되고, 조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실수나 다칠수 있는 길로 가지 않게 되는 의미에서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언제 어디를 가든 도리에 맞는 상황을 펼쳐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여 '무엇인가 새기는' 작업을 하면서 예술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다채로운 표현 방법과 새로움 속에서도 '도'는 모든 작품의 뿌리이자 창작활동의 기본 철학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론을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작품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어느 순간에 학회에 나가서 난 "앞으로 학회하고 인연을 끊을거예요. 앞으로는 논문발표 안하고 논평도 안할 테니까 나를 찾지마세요"하고 선포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장의 임기가 올해로 끝나고 공격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의 작품세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운동도 하고, 한가하게 명 때리고 있는 시간도 갖고, 가끔 내가 좋아하고 관심있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에 폭 빠질 수 있는 것들만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전시 준비 시간은 길어야 3개월 정도였는데, 소소하게 일상을 즐기다가 전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전시계획은 없습니다.

캘리와 서예의 차이

당연히 캘리도 서예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캘리라고 하는 장르 아닌 장르가 생겨나면서 캘리가 서예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캘리를 발전시키고 본원을 알려면 반드시 서예에서 찾아야 합니다. 전통의 서예를 연구하지 않고 그냥 캘리만 공부한다면 그것은 공중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작품도 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가 서예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쁜 손글씨가 캘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서예의 한 일부분입니다. 굳이 서예를 번역하다보니 캘리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것으로 한문이나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고 캘리라고 마치 새로운 글씨처럼 과장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캘리는 새로운 장르처럼 보이지만 캘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서예를 본원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캘리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근본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그 분야 대가들에게 찾아 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지요. 인생이 뭔가 모르고 죽는 사람이 70%라면 그 30%가 남았는데 그 30%의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본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예 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예술세계에서는 대가 즉 거장은 600년 만에 한명 나온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만큼 본원에 대한 이해가 적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손으로 그것을 표현에 낸다는 것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서예를 입으로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만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손으로 풀어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대가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생활도예와 접목시킨 캘리그래피



세계와 우리네 삶을 이어주는 일하노인 문효치 시인

“풀 한 줄기에 삶의 애환을 노래하고
매몰된 백제 역사를 부활시킨 한국 대표 서정시인”

취재 · 정리_허욱(한국예총)

페르시아 최고의 서정시인 하피즈는
이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시인이다.
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시를 외우고 다닐
정도라고 하니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된다. 요즘 지하철 풍경은 책 읽는
사람보다 스마트폰 속 화려한 이미지에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더 높은 차원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어느 시의 구절처럼
'시'란 곱씹을수록 그 매력이 배가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이자 한국문인협회를
이끌고 있는 문효치 이사장을 만나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시심을 꺼내보자.

광대나물

- 문효치

여기에도 줄은 있다
줄을 잘 타야 광대나

두렵지만 올라타야 하고
위험하지만 건너야 한다

한 생애 줄 타는 일

줄이 없으면
매어서라도 가야 한다

이 기둥과 저 기둥
반히 보이지만
흔들흔들 줄렁줄렁
몸으로 건너는 줄은 멀기만 하다

작년 5월 시집 『모데미풀』을 출간하는 등 시인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떠한 시심(詩心)으로 작품 활동을 하나요?

등단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1966년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니까 작년이 등단한 지 만 50년이 되는 해였지요. 지금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작품 활동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나 그 결과물에 대한 자괴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작품세계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본다면, 전기는 주로 죽음의 문제, 죽음과 삶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 청년시절에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항상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 없이 위축되고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시집에서 죽음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그 공포를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던 초창기의 시들은 대

체로 어두운 편입니다.

중기에는 백제의 공간이 주된 테마였습니다. 1970년대 초, 공주에서 발견된 백제 무령왕릉의 유물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민들에게 선을 보였지요. 그 전시물 중에는 왕의 시신을 안치했던 목관이 있었습니다. 옷질이 된 1,500년 전 목관이 눈앞에 펼쳐지자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고 저승에 갔다가 다시 빈 배로 돌아와서 다음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배라는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로 발표했는데 선배 시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요. 이후 용기를 얻어 백제 무령왕과 관련된 시를 계속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 공주에서 부여로 익산을 거쳐 전남 화순과 일본까지 백제의 유물과 유적을 찾아다녔습니다.

백제 관련 시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어내고자 하였습니다. 1,500년 전 백제인을 현대로 끌어오거나 내가 1,500년 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두 세계에서 교차되는 지점을 찾고, 오롯이 백제인의 마음으로 그들의 의식이나 정서, 삶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둘째, 우리 전통을 계승하는 방법론으로서 백제를 탐구해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백제는 전쟁의 패배로 멸망한 국가이기 때문에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현실세계에서 억울하게 짓밟히고 억압받는 약자의 모습을 바로 백제에서 발견해 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백제는 삼국 중 가장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곳이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백제의 역사를 철저히 약화시키고 왜소화 시켰습니다. 매몰된 역사가 미처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백제라는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근래에는 주변의 작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물이라 치부하는 벌레나 풀, 잡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작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 생명의 존엄성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곤충이나 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진실된 가치가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집 『벌박이자나방』, 『모데미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저의 시 세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고민, 의지, 번뇌의 흐름을 초기 시에서 주로 보여주었고, 중기 작품은 백제에서 찾아낸 삶과 상상적 공간, 후기에는 작은 생명체에서 발견된 존엄성과 우주적 영혼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 서정 시인으로써 지난해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 표절 논란, 성추문 등 문학계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은 우리문학사에 매우 영광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문학이 높이 평가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지요. 이렇게 수상한 작품들 외에도 우리문학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은 무척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번역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점이 무척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문학 분야의 우수한 번역자를 양성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모두 관심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표절 논란은 끊임없이 우리 문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표절은 고도의 정신작업인 문학을 도둑질하는 또는 훔치는 매우 나쁜 행위입니다. 맑은 영혼, 양심적 영혼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의 몸부림을 표현해야 되는 문학이 그 절차를 생략하고 남의 작품을 끌어다 자기 것 인양 쓰는 일은 매우 용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문인협회에서는 표절문제연구소를 설치하고 표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표절문제를 심판하고 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아직까지 표절문제연구소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표절문제연구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문학계 뿐 아니라 예술계 전체를 발칵 뒤집었던 성추문 문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나 소위 문학

권력을 이용해서 갑과 을로 나누고, 강압적인 피해를 주는 일은 우리 문단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부분입니다.

SNS 시인 하상욱, 글배우 등이 인기를 얻고 있어,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소설 열풍처럼 문단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문학은 누구나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문학은 상위의 문학과 중위의 문학, 하위의 문학이 피라미드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SNS에서 쉽고 짧은 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현상이라 봅니다. 이는 한국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NS 상의 시 열풍 덕분에 시집 판매량이 증가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져 시인의 한 사람으로써 한국문학의 희망을 그려 봅니다. 그러나 SNS 시의 열풍이 본적 문학을 위축시키는 일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문제 그것의 표현의 문제 등에 깊이 고뇌하고 치열하게 수련하면서 최상의 미학적 결과물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총체적 가치를 제고하고 하위 예술을 이끌어 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난 해 문학계를 뜨겁게 달군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016년 노벨문학상 최초로 대중 가수인 밥 딜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노래에 문학상을 주었다는 것은 실로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노래를 문학의 영역에 포함시킬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시가 노래와 한 몸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속에는 노래의 DNA가 흘러 내려오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오래 전에 노래와 시를 분리시켜 발전시켜왔습니다. 시 또한 예전에는 청각을 통해 수용되는 예술이었으나 지금은 문자를 기반으로 한 예술로 정착한지 오래입니다. 노래가 주로 감흥으로 우리의 정서를 어루만져준다면, 시는 감흥과 더불어 사유의 확장을 통하여 우리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문학의 경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노벨 음악상을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6년 제정된 「문학진흥법」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 대표 문학단체로서 한국문인협회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법이 마련된 차체에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학관의 위치선정에 대해서 많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 지역 모두 각자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유치 경쟁 과열 양상까지 보입니다.

한국문학을 대변하는 우리 한국문인협회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우리 문학의 발자취나 소중한 가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상징성입니다.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품이 탄생한 곳이나 배경이 된 곳, 훌륭한 작가의 삶의 현장이었던 곳 등 우리문학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장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확장성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앞으로 우리문학은 더 많은 작품과 작가들이 탄생될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자료가 쌓일 미래를 염두 해두고, 시설을 확장·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건물만 지어놓고 내용이 부실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학관을 채울 내용을 수집, 선별, 전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최대의 문학단체인 우리 한국문인협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적 관주도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렇다면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한국문인협회의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국문인협회는 한국의 문학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문학단체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립목적은 회원 간 친목을 우선하고 서로 문학적 정보를 교류하고 격려와 자극제가 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회원 개개인의 문학적 창작역량을 신장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생산 즉 문학창작을 위해서 유용한 경험들을 교류하고 사교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학의 독자로서 문학을 소비해주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학은 창작 과잉상태에 있습니다. 공급에 비해 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문인협회 회원들은 다른 일반인보다 서점에 한 번 더 가고 책 한권이라고 더 읽는 문학소비자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문인협회는 문학창작을 조장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독서를 권장해서 창작된 작품들이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세미나, 지도자대회, 문학탐방, 문학상 시상식 등의 정기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에 독서진흥회를 설치하여 독서를 권장하고 작품에 대한 연구·평가 활동을 하는 등 활동영역을 확장시키고 문학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문인협회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평을 들곤 하는데, 시대에 맞는 혁신과 화합으로 협회 회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곤고한 삶이어, 이제 위로를 받으라.

시의 사제로서 오십 년 가까운 세월이다. 시를 위해 제사 지내며 내 영혼이 녹슬지 않기를 소망했다.

시 앞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경직이 나의 문안이요 나이가 구원이다.

살점을 뚝뚝 떼어 시에 붙이고 피를 쏟아 시를 적셨다. 내놓기 부끄러운 말붙이들, 그러나 이 부끄러움 또한 오늘은 나의 자랑도 될지니, 시에 대한 사랑이여 영원히 깨어 있으라.

- 「대왕암 일출」 시인의 말

시인의 시선집 「대왕암 일출」을 읽다보면, 시에 대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흰머리 성성한 나이에든 시의 정신을 잃지 않는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겹겹이 쌓인 역사의 곁을 놓치지 않고 시로 승화시킨 시인의 마음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시인 문호치

서울신문, 한국일보 신춘문예 등단(1966년)

주성대학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역임

제32대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장 역임

제26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계간 「미네르바」 대표

(수상) PEN문학상, 김삿갓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수상, 대한민국 육관문화훈장 수훈

(저서) 시집 「연기 속에 서서」, 「무령왕의 나무새」, 「남내리 염서」, 「왕인의 수염」, 「별박이자나방」 등

시선집 「백제시집」, 「각시뿔꽃」 등

산문집 「시가 있는 길」, 「시인의 기행시첩」 등

숨 터

물안개 걷히고
아침햇살 초록 그림자로

문화의 바람과 한 얼로 함께하는 곳
아름드리 역사 꽃피는 곳

북한산 자락 산등성 너머
어우러진 숲속 길

가슴 열린다
파란 하늘 사이로
한 폭의 수묵화와

큰 숲 큰 얼굴 북한산 아래
한옥마을이 꽃피고

아름답게 울리는 풍경소리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솔잎 향기가 숨 쉬는 보금자리

해맑은 미소가
행복의 둥지로 살아나는 곳

당선 소감

겨울의 길목에 서 있으며
눈부신 햇살이 창가에
가득할 때
웃으며 시작하는 하루

햇살 한 아름 품에 안고
갈꽃 같은 가슴 속 추억
파란하늘 꽃잎처럼

당선의 기쁨을
훅 날리면서 날고 싶어진다.

더 많이 웃고
그리움이 무엇인지
빈 마음이 무엇인지
구름 넘어 부는 바람 따라
걸고 또 걸어보면서

고마움의 미소가
입가를 번질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예총의 문을
두드려봅니다.



박정숙

1954년 서울 출생
예술시대작가의 사무차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갈채등인시사무국장
시집 『아름다운 계절』, 『그리움은 새털처럼』 공저

달구경

아내의 몸에 달이 떴다
종횡무진 나이트를 그리며 가지를 내더니
감꽃을 피웠다
이따금 아내의 몸에서 저녁별이 뜨고
구름이 서성이다 갔다
그런 날 밤에는
끓은 가지를 부둥켜안고 돌아가던 물레울음

마침내 아내는 구름 항아리가 되었다
늘 아내가 서 있던 자리에
달도 아니고 항아리도 아닌 둥근 운무,
손을 휘저어 봐도 잡히지 않고
구름 송이로 떠다니곤 했다
백 년 묵은 달항아리가 동실 피어오른 저녁,
앞산이 검은 속살을 벗어 보일 참이다
그런 날에는 아내의 몸에 보름달이 차오를 것이다
달은 떠오르고 기우는 게 아니라
꽃으로 피었다 돌아가는 것,
나도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안겨본다

당선 소감

저에게 시는 너무 큰 봉우리입니다. 십사리 나를 받아주지 않고, 손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안개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안개가 흐르는 골짜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는 주식(主食)도 후식(後食)도 아니고, 그저 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름 참 많은 습작시를 골짜기에 버리고 올려보내면서 걸어왔습니다.

저에게 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항아리입니다. 어느 날 문득 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시는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안개가 피어오르는 아침, 당장 빈털터리가 되어 실의에 빠져 있는데 문득 당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봉우리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데, 항아리의 밑은 아직도 아득해 보이는데 그저 가슴만 먹먹하게 두근거려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신 심사위원님과 예술계 계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진하라는 따뜻한 회초리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영광을 시문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두 딸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익

1965년 경북 군위 출생
창작사진가, 고양시민 사진교실 강사
한국사진작가협회정회원
예지화원대표

귀로 歸路

넘칠 듯 말 듯 물 잔에 담긴 파아란 아쉬움
크게 한 모금 삼켜버리고
양다문 입술, 비장한 걸음 옮기운다

저 멀리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인사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려
주워 담을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온 내 발자국에 고였다

돌아오는 기차에 올라 스치우는 당신을
한 폭의 풍경에 옮겨놓고
빈 여백사이로 흘러가는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기어진 거리 사이로 당신의 온기가 스미는구나

멀어질수록 그리워지고 흐를수록 아련해지는
당신의 초상이 마음 두드린 기적소리 되고
짙게 쌓인 한숨, 지난 철길에 덩그러니 남기운다

소슬바람 쉬어간 기억 한 칸에 놓인 한 장의 수채화
메마른 종이를 덮은 수분이 여백을 적시고
촉촉한 한 덩이 물감 비어버린 당신을 메운다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당신이 흘러내린다

당선 소감

손에 들린 2장의 신문 스크랩에는 짧은 시가 적혀있다.
'여름밤', '나이 든 고막'
2년 전 즈음 내가 군대에서 모셨던 연대장님께서 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운전병이 보직이었던 나의 오랜 기다림이 미안하셨던지 멋쩍게
"기다림이란 주제로 글을 한번 적어보아도 명작이 나오지 않을까?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면 좋겠구나!"라고 하시며 하릴없는 미안함을 토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
'연젠가 꼭 글을 쓰고 싶다'라 나는 항상 생각했는데, 그때가 처음 내게 주
어진 계기가 아니었을까 돌아보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다.
다음날 '축복'이라는 제목에 '정숙한 기다림은 축복이다'라는 마무리의 시를
보여드렸고, 당신은 내게 "대단한 시인이 될 수 있겠다 큰 재능이 있어 보이
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 "신문을 봤더니 좋은 글귀가 있더라." 하시며 내게 건네주신
2편의 시.
그날로 시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당선 소감을 작성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다가 연습장 사이로 떨어진 2편의
시를 보며 어린 내게 또 다른 세계를 알려주었고, 마음만 먹으면 그 곳에 당
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글 또 연대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잠시 작성
을 멈추고 짙은 밤하늘을 보았다.
아직도 너무나 많다. 글을 잘 쓴다는 의미와 잘 써진 글이 어떤 글인지 내가
모르는 것이 밤하늘에 수놓인 별처럼 가득하다.

신문문예나 수상자들의 작품을 보며, 그들이 적어내고자 했던 마음을 온전
히 이해하지 못하는 밤이면 나는 맥주 한 캔을 마시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
아직은 나이처럼 '생각도 세상을 보는 눈도 많이 어려서 가려진 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조여진 머리를 붙잡고 생각의 나사를 풀면서 글을 썼다.
어쩌면 치기어린 아이의 열정이 기특해 나의 글을 선정해 주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가져보지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정해져있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의 결론으로 나는 생각을 마무리 하고 싶다.
끝으로 부족한 작품을 신인상으로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분들과 글을 처음
접하게 해준 연대장님과 항상 나를 사랑해주시는 가족과 지인들, 내 낯은
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모든 영광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솔로몬

1993년 출생
대구 거주

예술세계 신인상 당선작 심사평

2016년도 하반기 예술세계 신인상 응모자는 시 부문에서 총 174편의 작품이 접수 되었다. 습작기를 거치면서 나름 다듬어진 시들도 많았다. 그러나 아직도 시와 산문을 구분하지 못하고, 외형상 산문시 형식으로 행갈이만으로 구분하여 놓은 작품과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미숙한 응모작도 다수 있었다. 산문시도 엄연히 운율과 함축성이 있어야 시적 긴장감이 살아 있는 것이다.

심사 과정은 응모자의 인적사항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성별, 나이, 성명, 주소와 모든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엄격하게 이뤄졌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시 창작 정신과 발전성에 기대할 만한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작품은 '달구경' 외 4편의 작품을 낸 박종익의 작품이다. 박종익의 '달구경'은 '달'을 '아내의 몸'과 투사하여, 물레울음, 운무와 달 항아리로 확장해 가는 상상력과 예사롭지 않은 관찰력이 돋보였다. 이른바 시적 대상을 자유롭게 밀고 끌어당기는 시적 태도를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수작으로 선정했다.

이솔로몬의 '귀로(歸路)'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선명하지 않고 이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지만 진지한 아포리즘으로 독자의 감정을 은근히 끌어들이는 매력 있다. 첫 문장에서 '넘칠 듯 말 듯 물잔에 담긴 파아란 아쉬움'이라는 문장만 보더라도, '파아란 아쉬움'이 어떤 아쉬움인지, 독자의 입장에서 이미지화 되거나, 의미화 되지 않고 관념으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맞춤법이 글쓰기의 덕목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박정숙의 '숨터'는 시적 태도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으나, 입체적 관찰력이 미흡했다. 특히 본문에서 '문화의 바람'과 같은 표현들은 신인 응모작품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시적 대상을 다른 각도로 해석해보려는 의지도 나약했다. 아울러 보다 선명한 메타포로 독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실험정신이 부족하다는 것도 큰 흠이 되고 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이미지화 하고, 또 삶의 아포리즘을 담아내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밖에 많은 작품들이 신인으로서의 패기와 실험정신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에 이들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시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자기 내면세계에 시적장치를 갖춰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진솔하게 자기를 열어놓고 세상을 바라보면 관념을 벗고 대상을 해석해내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세상이 보이는 그대로 보지 말고, 그 세상이 감추고 있는 내면의 꿈틀거리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훈련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당선자들에게 그 기대감이 크다.

당선작으로 선정되지 못한 응모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당선자 모두에게 축하와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문단에서 가장 으뜸인 '한국예총의 예술세계'를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시인이 되도록 정진하기 바란다.

심사위원 정인관, 한상림

회초리

어제는 뜬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했다.

태풍 18호 '차바'가 제주를 강타한 것이다. 우리 집은 바닷가에 있는 데다 높은 언덕 위 아파트 고층에 있어 바람을 쉽게 탄다. 지은지 20여 년 지난 우리 아파트는 강풍과 폭우가 몰아칠 때면 온 몸 찢기며 울어댄다. 창문을 조금 더 단단한 사시문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를 겨누는 화살처럼 게으르고 안일한 습관이 가족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10월 태풍은 별로 세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를 안심시켜 잠을 재웠다. 꺼병한 남편의 말인데도 곧이곧대로 믿고 금방 꿀아떨어지는 아내다. 나도 잠을 청하다 점점 심해지는 노대바람에 혹시나 해서 자정이 지난 시간임에도 바닷가 쪽 유리창에 포장용 테이프를 X자 모양으로 촘촘히 붙였다.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해서 눈을 붙였다.

잠결에 하늘이 우레처럼 울고 창문이 오들오들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벌떡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센 비바람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기를 쓰고 있었고, 유리창은 휘어지는 굴욕도 감수하며 온 힘을 다해 막고 있었다. 집안을 둘러보니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는 없었지만 연푸른색으로 된 방충망 망사는 바람에 찢기고, 창문 틈 사이로 빗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다. 수건으로 물이 세지 않도록 틈들을 막고, 방바닥과 베란다의 빗물을 닦고 있는데 아내와 작은아들이 깨어났다.

가족이 함께 젖은 물건들을 함께 정리하고 있던 중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주위를 둘러보니 불 켜진 집이 하나도 없는 암흑천지였다. 불야성을 뿜내던 도시 문명도 강력한 태풍에 두 손 든 모양이다. 촛불을 켜고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 날이 밝았다.

태풍이 제주를 빠져 나간 것 같았다. 비바람이 약해지는 기미가 보여 한 숨 돌리고 있을 때, 서울에 사는 큰아들 안부전화가 왔다. 새벽 아침에 태풍 소식 때문에 부모가 걱정이 된 모양이다. 이젠 컸다고 집을 걱정하고 부모를 챙겨 주니 대견스러웠다. 문득 십여 년 전 어버이날 생각이 난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들과 4학년인 작은아들이 어버이날이

라고 등글고 길쭉한 꾸러미를 선물했다. 선물용 포장지로 정성껏 싸여 있어서 무엇인지 짐작이 안 갔다. 딱딱한 것으로 보아 긴 피리 같기도 하고, 통소 같기도 했다. 나와 아내는 조심스레 풀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가늘었지만 길고 단단한 막대기였다. 어리둥절하여 "이게 뭐니?"하고 두 아들에게 물었다.

큰아들은 대답 대신에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고 자신도 꿇어앉았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들 잘못할 땐 그 회초리로 따끔하게 혼내 주세요."

작은 아들도 이어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잘못할 때 혼내 주세요."

황당했다. 두 아들은 평소에도 '아빠, 엄마'라고 하지 않고 꼭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오늘따라 '아버님, 어머님'이다. 그것도 코흘리개 철부지 녀석들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말이다. 두 아들은 어릴 적부터 속을 썩여 본 적이 별로 없다. 맞벌이하기 때문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두 아들을 어머니가 돌봐주셨다. 어머니는 손자 사랑이 대단했다.

제주 속담에 '애기어멍 쿨은 닳돼, 애기엄게 쿨은 한말.(아기 어머니 품삤은 다섯 되, 아기 돌보는 사람 품삤은 한 말)'이라는 말이 있다. 아기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속담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느네 아들 같으면 애기 열이라도 봐지키여.(너희 아들 같으면 아기 열 명이라도 돌볼 수 있겠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어릴 때부터 그런 아들이지만 어버이날에 부모에게 회초리를 선물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모르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기회삼아 용서를 빌려는 마음보라고 내심 짐작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물었다. "너희들 왜 이러니? 혹시 우리 모르게 잘못된 거 있는 거 아니니? 모든 거 용서해 줄게. 솔직하게 말해볼래?"

두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색을 하며 "아뇨, 저희들 나쁜 버릇이 생길까 봐서요. 너무 귀엽다고 봐주기만 하다보면 못된

사람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다. 마주친 그 눈빛은 어느 때와 달랐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두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붉게 물든 두 아들의 볼은 부드러웠고, 콩콩 뛰는 가슴은 따뜻했다. 옆에 있는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나와 아내는 그 회초리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두 아들은 때때로 서로 고른베기(선의를 경쟁) 할 때도 있지만,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보진 못했다. 서로 욕하거나 상스럽게 말을 하는 것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형제끼리 걱정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스무 살이 넘어서도 둘이 전화로 통화하다 끝낼 때면 “형, 사랑해.”, “나도 사랑해.”라고 자주 한다. 그런 두 아들이 고맙기만 하다.

회초리 선물을 받은 지 어느덧 십여 년이 지났다. 두 아들은 장성하여 큰아들은 대학원에, 작은아들은 대학교 졸업반에 다니고 있다. 그 회초리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물려주신 께 속에 잘 보관되어 있다.

우리 집 가보 1호로…….

태풍도 회초리인 것 같다. 시월이면 어떤 때인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하는 계절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시월엔 태풍이 거의 없고, 통과하더라도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태풍은 제법 피해가 큰 모양이다. 인간의 탐욕과 안락 때문에 지구는 열 받고 있고, 그 부메랑으로 태풍도 점점 독해져 ‘슈퍼 태풍’이 빈번하게 내습하고 있다.

자연의 율림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당선 소감

오름들이 아늑하게 펼쳐져 있는 한라산 자락, 퇴근길 버스 안에서 신인상 당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름 능선 끝에 석양이 머물고, 가을놀이 갈바람에 아른거리는 풍광을 차창 너머로 감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기지 않았습니다. 수필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내가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다니……. 두 손을 맞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공자는 지천명의 나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하던데, 나는 오십 중반이 지나서도 하늘과 땅의 이치는 물론이고 실타래처럼 엉킨 내 자신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용기를 내어 내가 살아온 삶의 실타래를 담담하게 풀어보고자 수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힘들었습니다. 흐트러진 기억의 편린들을 엮어 내기도 힘들었고, 때가 된 듯한 맨살을 드러내기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수필 문학에 눈을 뜨게 해주신 안성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지켜보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나의 율타리를 뛰어넘어 더 넓은 문학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한국예총의 『예술세계』 관계자님과 부족한 저의 글을 받아주신 심사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되고 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저용처럼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진솔한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당선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오진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출생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 졸업(이학박사)
제주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대한지리학회 이사
저서 『제주지리론』 등 다수 공저

스마트폰에 빠진 남녀노소

“얘들아, 이거 어떻게 보내니?”

“선생님,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수업 장면을 촬영했는데 어떻게 내 메일로 보낼지 주저하던 차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금방 해결 해주면서 했던 말이다.

원래 기계치인데다가 슬로비족(천천히 그러나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처럼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것이 싫어서 구닥다리 2G폰을 고집하다가 아들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최근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사실 그동안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은 건 나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때문에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했다. 종일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침대에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는 두 아들 녀석을 여러 번 나무라면서 부모로서 나만큼은 절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한몫했다.

언제부터인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마다 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낀다. 몇 해 전에 비해 이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이폰을 쏜 채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옆 사람은 관심도 없고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혼자 키득거리며 웃기도 하고, 설 새 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검색을 하고, 동영상을 보기도 한다. 이제는 소통의 대상이 사람보다는 스마트폰이 돼버렸다. 하기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쇼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앱을 이용해 수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교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유난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신경 쓰인다.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어야 할 시간에 즉흥적인 즐거움을 주는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종종 수업 시간에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가 있다. 신기하게도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데는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는 관심도 부족하고 많이 서툰 아이들을 보면 몹시 안타깝다.

며칠 전, 스마트폰의 장단점을 묻는 말에 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인간 소외 현상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라는 초등학생답지 않은 대답을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래, 참 훌륭한 대답이구나.” 아이를 칭찬하고 나서 교사의 본능이 발동해 “여러분도 이 친구의 대답을 명심해서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좀 자제해주세요.”라고 잔뜩 훈계와 지시로 수업을 마쳤다.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에서 내 모습을 돌이켜봤다.

‘나는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인간미를 나누며 살고 있을까? 매일 만나고 헤어지는 아이들과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소통하고 있을까?’ 이런 지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행동을 반성했다.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수업 시간이 끝나면 쉬는 시간의 여유로움을 찾으려하지 않았던가!

스마트폰이 초래하는 인간소외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인지 최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관여가 필요한 때이다.

몇 해 전부터 아들 녀석과 다투는 가장 큰 원인은 컴퓨터 게임이다.

“어서 컴퓨터 꺼라. 빨리 안 끄니?”

아내의 잔소리가 또 이어진다. 그러나 아들 녀석은 그 때뿐 우리 부부가 없을 때면 ‘이때다!’하고 또 게임에 몰입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막내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엄마는 왜 컴퓨터 게임을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세요?”

아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장전해왔던 포탄을 발사라도 하듯 컴퓨터 게임의 폐해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랬더니 “엄마, 게임



을 하면 공부하느라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데요.”라며 몹시 흥분을 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률이 세계 1위라고 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IT강국이 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어쩌다 PC방에 가보면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게임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과 이제는 아주 밀접한 존재가 되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은 용기가 없거나 소심한 사람들도 쉽게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그러나 익명성 때문에 악플을 달아서 상대방에서 심한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은 유용한 정보도 있지만 가끔은 자살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같이 불필요하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쓰레기 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님들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남자들이 노년이 되면 이사할 때 아내가 좋아하던 애완견이라도 끌어안고 있어야 쫓겨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같은 남자로서 농담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부터 남자들의 신세가 이렇게 하락했을까? 하는 마음에서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스마트폰 사용과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인간 소외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한다. 21세기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로서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잘 수립하여 지도함으로써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야겠다.

당선 소감

글쓰기를 시작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렸을 적 들침승처럼 들로 산으로 마음껏 뛰어 놀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문학의 좋은 소재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 갑니다. 아이들을 보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정리도 할 겸 틈틈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쓰기는 유일한 안식처요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쓰다보면 복잡한 마음도 정리가 되고 낮에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였던 피로도 사르르 풀렸습니다. 때로는 밝은 태양을 때로는 비와 구름을 주는 아이들이 제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는데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마치 맑은 거울을 바라보듯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오염된 저보다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영혼은 제게 귀한 스승이요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스마트 폰에 푹 빠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세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심지어 남녀가 단둘이 만나서도 살아가는 이야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손을 떼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

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상을 글로 표현했을 뿐인데 신인상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글쓰기에 박차를 가하여 좋은 작품을 남기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작품을 <예술세계> 수필 부문 신인상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더 글쓰기에 정진하겠습니다.



조원표

1965년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부 장관상 등 다수 수상

예술세계 신인상 당선작 심사평

지난 호에 신인을 추천하지 못 한 점이 못내 서운했다. 그것이 마치 불민한 심사의 소치였던 양 미안하기도 했다. 그러던 차, 이번 호의 늘어난 응모 편수에 반가웠다. 그러나 막상 만추 들판의 작황이 생각만큼 풍요롭지는 않았다.

당초 기대가 과했던 탓이려니 여기면서 재독에 삼독의 고심과 협의 끝에 김오진의 '회초리'와 조원표의 '스마트폰에 빠진 남녀노소'를 당선작으로 뽑는다.

'회초리'는 튼튼한 사시 창문으로 태풍에 대비하지 못한 뉘우침을 10여 년 전의 어버이날에 아들 형제가 선물한 회초리에 대비시킨 착상이 신선하고, '스마트폰에 빠진 남녀'는 역기능의 범람이 순기능을 압도하는 IT 홍수의 시의에 적절하다. 그러면서도 전자의 두 사안을 연결하는 고리가 서먹하고, 후자의 평면적인, 흡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교안 같은 구상이 눈에 걸린다.

그러나 이만한 흥결이야 용인되어 마땅하리라. 우선은 흔해빠진 문창교습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순박하다. 더구나 향후의 가능성에 방점을 두면서 우리 문원의 새 가족을 간택(簡擇)하는 일임에. 그러나 진정, 수필이란 있는 그대로 진솔한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문예 장르의 리듬이며 은유, 암시 내지 함의(Connotation)까지도 곁들여야 한다. 수필의 본질이 창작이기 때문이다. 두 분의 당선을 축하하며 가일층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 김문호, 유선자



푸른 옷소매

창을 민다. 지난밤의 지독한 바람과 비를 막아낸 유리문이 무심한 듯 창틀에 고인 물을 밀어낸다. 바람을 맞는다. 거짓말 같은 맑은 바람이다. 여자는 난간에 기대어 바깥으로 몸을 내밀었다. 태풍은 밤새 막바지 더위를 몰아내고 여름과 가을의 경계에 계절을 올려놓았다. 경계, 여자는 자신이 서있는 경계를 생각한다. 베란다와 공간의 경계에 그녀는 굳건히 서 있다. 눈을 감고 있지만 급속성 난간이 그녀의 허리를 붙들어 공간으로부터 단단히 분리시킴을 믿는다. 시간과 시간, 어제와 오늘, 기쁨과 슬픔, 건강함과 병약함. 만남과 헤어짐, 찰나로 결정되는 삶과 죽음. 아스팔트 위 노란 중앙선 위에 누워있는 강아지를 본 적 있다. 흰색 털이 바람 따라 달려가듯 일어서며 흔들렸지만 강아지는 잠이라도 든 듯 노란 중앙선위에 누워 있었다. 결코 깨지 못할 깊은 잠에 빠진 강아지. 경계를 넘지 못한 영혼이 차안도 피안도 아닌 신 위에서 흔들렸다. 벗어날 수 없는 차안의 삶 또한 슬한 선택의 경계를 넘어 서는 일이라 여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잡은 신의 손을 운명이라 믿는다. 여자는 자신이 잡은 신의 손이 몸을 기대고 있는 난간처럼 단단하리라 주문 같은 기도를 하였다. 소복이 부어 오른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안까지 햇살은 비쳐든다. 고여 있던 눈물이 여자의 눈썹을 적시고 마른 빨래 같은 가을 햇살을 받아 투명한 얼굴을 타고 흘러간다.

아파트 윗타리 너머에 있는 감나무들이 지난밤의 고단함을 떨어내고 일어서다. 반짝이는 이파리들. 남아있는 열매를 위해 몸을 뒤척이는 나무들. 풀 마르는 냄새. 젖은 날개를 말리는 새들의 지저귐. 살아있는 것이 주는 힘은 신선하다.

여자는 느린 화면처럼 서랍 깊숙이 숨겨 두었던 항공 봉투를 열어보다 다시 닫았다.

해거름즙 맥주를 사 놓으라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여자는 특별히 큰 선글라스를 골라 썼다. 온종일 웅크렸던 몸을 펴고 화장대 앞에 서서 선글라스를 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몸은 부쩍 야위어 보인다. 길어 보이는 목을 뒤로 힘껏 젖히며 마른침을 삼킨다. 하, 한숨 같은 숨을 몰아쉬며 거울을 바라본다. 얼굴을 좌우로 돌려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그런대로 볼만하다고 생각하며 선글라스를 다시 매만졌다. 광대뼈 위에 걸친 선글라스가 잠자리 눈 같다고 생각했다. 상하좌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겹눈을 가진 곤충. 머리의 전부를 차지할 만큼의 큰 눈이 필요한지 날개 때문 일거야. 날개는 가벼운 몸을 높이 날 수 있게 하는 비장의 무기라는 생각을 한다. 투명하고 미끈하게 빠진 무기를 보호하기 위해선 큰 눈이 필요하겠지. 여자는 몸을 펴고, 손을 뻗어 보았다. 뼈들이 와르르 무너지더니 손가락 끝이 간지럽다. 투두투 허물이 벗겨진다. 접혀있던 젖은 날개가 펴진다. 실핏줄들이 날개의 섬세한 무늬로 변한다. 날개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아픔이 아릿하다.

“셋! 잠깐, 가만있어봐.”

그는 블라우스에 붙어있던 고추잠자리를 잡아 보여주었다.

“이건 잠자리가 아냐. 네 소매에 새겨져 있던 무늬였어.”

그가 웃는다.

“품! 답살, 간지럽다, 그만해.”

여자는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듯 가볍게 감정을 잘라 먹곤 했다.

눈을 봐? 아름답지. 겹눈의 색깔이 날개의 색과 닮았어. 하지만 만만하진 않지. 그가 하늘을 보며 말한다. 어린 날개로 가장 높이 날을 수 있는 곤충이야. 그의 웃음이 흩어진다. 언덕과 하늘과 구름이 잠깐 여자의 눈에 머물다 함께 흩어진다.

소음에 할인 매장이 생기면서 여자는 주로 그 곳을 이용했다. 아파트 앞 작은 슈퍼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갈 수는 없었다. ‘해가 다 졌는데 선글라스라니. 더구나 이런 시골에서.’ 주위의 눈치가 보였지만 남편의 말을 거절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탄 여자들이 힐끔거렸다. 쿵,쿵,쿵 아이들이 발을 굴렀다. 습! 조용해야지. 여자들이 그녀를 의식해서인지 주의를 시킨다. 선글라스 속 그녀의 눈이 아이들을 바라본다. 귀여운 아이들.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붙은 거울속의 그녀는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과 쫄쫄한 자세로 서 있을 뿐이었다.

카터를 밀면서 여자는 아이 생각을 했다. 그 아인 귀엽고 반질반질한 눈망울을 가졌을까. 장난기 가득한 눈망울에 때론 웃음을, 때론 눈물을 담으면서 때를 쓰는 아이. 마음먹고 혼내려다 어이없이 웃고 말아버리는 자신을 생각했다. 여자는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고집스럽고 부산스러운 개구쟁이를 생각하곤 했다. 큰 소리가 아침저녁으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아이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퐁퐁 퐁퐁 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닌다. 아랫집에서 몇 번씩 조용히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듣는 생각을 할 때쯤 카터가 좀 더 빠르게 굴러갔다. 남편의 퇴근 시간을 생각해야 했다. 캔 맥주 두 묶음을 카터에 담고, 대형냉장고에서 소주 두병을 꺼냈다. 한 두 잔 마셔보던 술이 늘어 그녀도 소주잔을 기울이는 일이 늘고 있었다. 마른안주가 진열된 대대로 돌아설 때 아이를 업은 여자가 카터를 급하게 끌며 왔다. 그녀와 부딪힘을 피하려고 잠시 옆으로 비켜섰다. 사이로 이마를 쓸어 올리며 매장을 들어서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하마터면 여자는 아, 하고 소리를 낼 뻔했다. 돌아서서 캔에 담긴 땅콩과 말린 오징어를 카터에 담았다. 남자가 여자를 스치듯 지나갔다. 비릿한 바람 냄새가 등 뒤로 흘러가고, 그가 돌아보는가? 여자는 스멀거리는 등 뒤의 느낌을 애써 외면했다. 왼쪽어깨에 땀 무거워 보이는 카메라가방. 머리를 쓸어 올리고 안경테를 만지는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인화되었다. 하긴, 그 시간에 어울리지 않은 차림의 여자를 힐끔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시간에 어울리지 않은 차림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아이를 갖고 싶었다. 베란다 유리문에 어지럽게 찍어 놓은 단풍 잎 같은 손도장들을 바라만 봐도 행복할 것 같았다. 아이를 안고 보드라운 불에 불을 비비면서 달콤한 젖네로 몸속 가득 채워 넣고 싶었다. 어린 봄바람 같은 숨결이 귀를 간질이고, 아이의 활짝 웃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차라리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단 한 번의 발길질로 어이 없게 가다니. 어쩌면 아이는 여자의 자궁을 거부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직 생명을 다 얻지 못한 영혼이, 그래서 신의 경지에 있던 여러

고 순결한 영혼이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떠났을 지도 모른다. 신과 생명의 경계에서 신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내 아이. 남편은 바깥일을 말하지 않았다. 있었던 일들은 모두 흘려버리고 집으로 돌아 올 때는 그것에 대한 감정들만 끌고 왔다. 여자는 퇴근하는 남편의 얼굴에서, 표정에서, 행동에서, 남편의 하루를 짐작하곤 했다. 그날따라 맥주를 함께하자고 조르던 그 시간에 여자는 졸음이 쏟아졌다. 임신 초기에는 참기 힘든 졸음이 쏟아진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했다. 임신을 무엇보다 기뻐했던 남편을 만났던 그 순간에 여자는 힘들게 얻은 풍선을 놓쳐버린 것처럼 아쉬웠다. 거실에 누워 있는 여자의 배로 발길이 날아든 건 여자가 막 단감으로 빠져들 때였다. 여자는 잠이 들면서도 아기가 든 배를 한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날아든 발길질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짹짹거리며 포르르 날아오르는 어린 참새 때만 봐도 여자는 에이듯 저러오는 가슴을 주먹으로 쳐서 내리곤 했다. 하지만 수시로 기분이 나빠지는 남편을 여자는 누구에게도 말 하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여자는 가끔, 남편이 샤워할 때 물 소리에 섞여 나오는 신음을 들었다. 그리고 욕실 벽에 전득하게 붙어 있는 수증의 흔적들을 수시로 지워야 했다.

"저기요."

여자는 신문 배달부를 불렀다.

"여기, 신문사절 이란 글 안보이세요? 신문 안보입니다."

한동안 구독했던 중앙지를 남편은 기어코 끊게 했다. 끊고 나니 지방신문 K일보가 배달되었다. 남편은 배달된 신문을 밖에 모았다가 돌려주라고 했다.

무표정한 모습으로 조용히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신문을 나르느라 상기된 청년의 얼굴이 더 빨개졌다. 이마를 덮은 머리카락 아래로 땀방울이 흘러 내렸다.

"서비스 기간은 아입니다. 저는 보급소에서 배달하라는 말만 해가꼬에."

여자는 신문 보급소에 전화를 했다. 소읍에 있는 보급소는 한 군데였다. 상호명은 지방신문 K신문 보급소였으나 그 곳에서 각 신문사의 신문들을 모두 취급하고 있었다.

"아입니다. 여서(여기사) 신문 몇이나 본다고 억지로 넣겠습니까. 거긴 신청한 사람이 있었어예. 눈지(누군지)는 몰라도 전화로 신청하고 대금도 다 받았습네."

소장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여자는 문 앞에 쌓아 놓았던 신문을 모두 들고 들어왔다. 쪼그려 앉은 채 제일 아래에 깔린 신문을 꺼냈다. 머리기사로 소읍의 소식이 실려 있었다. 여자의 아파트 율타리 너머 보이는 넓은 감나무 농장을 배경으로 한 이른 가을 소식이었다. 이 곳 감은 전국에서 유명했다. 당도가 높고, 연한 과육과 과즙이 풍부해 가을이되면 한 번씩 풍성한 가을의 상징처럼 이 곳 소식이 신문에 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늦은 가을 축제 소식과 함께였는데 올해는 좀 빠르다 싶었다. 여자가 사는 아파트 율타리 너머부터 산동성까지 이어지는 넓은 과수원이 배경이었다. 클로즈업 된 감들은 막 지기 시작한 노을빛으로 기름을 바른 듯 반질거렸다. 감나무가 겹쳐지고 겹쳐지면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사진을 훑어 가다 한곳에 시선이 머물렀다. 개량종 감나무와는 달리 키 큰 해묵은 감나무 한 그루. 마른 손이 사진 속 감나무를 쓰다듬는다. 전지를 하지 않아 거친 목피의 촉감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다. 마당에 우람하게 서있던 감나무. 나무 앞쪽으로 사랑채와 마구간이 있었고 나무의 뒤쪽으로 안채가 있어 감나무 집으로 불리었던 옛집. 손톱 같은 어린 새잎이 터질 때면

이유도 없이 설레곤 했다. 연두 빛 새순과 함께 입학식과 진급을 했고, 단풍이 들 때쯤에는 운동회와 소풍과 축제들이 있었다. 마당에 무수히 떨어졌던 찌라들을 담은 감꽃들. 튼실한 감잎들이 만들어 주었던 짙은 녹음과 그 아래 있었던 평상위의 단감. 그 곳에 누워 바라보았던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과 빈 가지에 총총히 박히었던 다홍색감이 만들어내는 선명했던 보색의 조화. 기억은 수족관을 부유하는 비늘처럼 일어서고 있었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다. 첫 추위에 감나무에 달린 까치밥 몇 개가 위태롭게 보였던 때였다. 말 수 적었던 아버지는 이부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 했다고 한다. 자리를 보존하고 누운 건 여자의 어머니가 먼저였다. 어머니가 자리에 눕자 마당 장독대를 중심으로 철철이 피었던 화초들이 건사 받지 못해 황량한 빈들이 되었다. 부지런한 어머니의 손길로 반질 거렸던 감나무 집은 속이 텅 빈 박제가 된 듯 을씨년스러웠다. 여자는 집이 화초 같다고 생각했다. 흙과 나무와 돌로 된 집. 생명이 없는 것들이 모이고, 이어지고, 교차되면서 만들어진 공간. 그곳에 사람이 살고 보살피면서 집도 호흡을 하는가보다. 하지만 손길을 거두자 집은 건사 받지 못한 화초처럼 피폐해져 갔다. 집을 팔 것은 여자의 오빠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오빠는 몇몇 직장을 전전하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의욕 하나로 시작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 하였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의기투합했던 처남들과의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여자의 율케가 적극적으로 오빠편이 되어 주어 독립하였지만 혼자 하는 사업은 녹록지 않았다. 소읍에서 재원이라는 소릴 들던 오빠를 아버지는 끝까지 믿었다. 집을 팔 때는 이미 눈을 팔았고 율타리 너머에 있던 밭패기까지 고스란히 오빠의 사업 밑천으로 들어간 후였다.

남자는 앞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익숙한 실루엣에 잠시 눈길이 머물렀다. 때에 맞지 않은 큰 선글라스를 껴지만 분명 그녀였다. 살짝 어깨가 떨리는 듯 돌아서는 그녀를 보며 남자는 아는 척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갈 때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 남자는 여자의 냄새를 기억했다. 향수라고는 할 수 없는, 그것 보다는 좀 더 친숙한. 그녀의 자잘한 일상들이 만들어낸 입자들의 조합 같은, 달콤함이 어우러지는 그녀의 독특한 냄새를 남자는 기억했다. 스미듯 느껴지는 한 자락의 체취가 그때의 기억으로 남자를 몰아갔다.

그것이 남자는 그녀의 고집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그녀는 파혼을 통보해 왔다.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날마다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 문, 문 좀 열라고. 집요한 남자의 목소리에도 빗장위에 돌을 눌러 놓은 듯 그녀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남자의 아버지가 새로 산 땅을 밟고 감나무를 심겠다고 의논해 왔을 때 그 땅이 여자의 집과 집에 딸린 밭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남자의 아버지는 여자의 부모를 사돈으로 맞이하기를 마뜩찮아 하였다. 거기다 부동산에 급히 내 놓았다는 매물을 아버지가 선뜻 사들인 것이다. 아버지를 원망하기에도 늦었고, 여자를 설득하기에도 놓쳐버린 시간이었다. 문을 굳게 잠근 여자의 마음이 한 동안 남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는 그리움보다 문을 닫아걸어 빈 집 같은 여자의 마음이 그를 오랫동안 놓지 않았다. 빈 마음에 몇 천억의 바람이 찾아와 머물다 갈까를 생각하며 밤새 뒤척이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담장 높은 거인의 뜰에 문이 열리듯 그녀의 문도 수줍은 듯 열리겠지. 가끔 자잘한 고집이 그를 힘들게 했을 때에도 조용히 기다리면 어느 듯 다가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를 툭툭 치곤했던 그녀였다. 으

이구, 고집쟁이 하는 소리에 수줍게 웃던 그녀. 하지만 기다림이 끝나기 전에 먼저 찾아 온 건 여자의 결혼소식이었다. 여자와 결혼을 위해 소음의 중학교 국어 교사가 되었던 남자는 기자가 되어 소음을 떠났다. 그리고 K신문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고향을 다시 찾았다.

남자는 스치는 듯 지나치다 다시 돌아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계산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선글라스 옆으로 살짝 보였던 눈가의 보랏빛 반질. 남자는 급히 여자를 뒤따라 나갔다. 그리고 여자의 아파트 창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꺼질 때 까지 망연히 바라보았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남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사진 오른 쪽 끝에 그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분수처럼 눈물이 차올랐다.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은 손에서 와사삭 신문이 미끄러져 내렸다.

누군가 기타를 치는 지 '푸른 옷소매'가 연주 되고 있다. 중간 중간 끊어지기도 하고, 반복되면서 때로는 금속 줄이 뿜겨 나가듯한 첫소리에 여자는 눈을 떴다. 밤새 식탁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녀가 남편이 출근하자 기절하듯 빠져든 잠이었다.

여름마다 오는 태풍이 올해는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이 없었다. 바다가 적조현상으로 색이 변하고 있고 비브리오 패혈증이 유행하면서 어패류를 먹지 못한다는 소식이 올가을의 주된 뉴스였다.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마을 저수지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더욱 짙어져 녹색안개로 채워진 웅덩이처럼 음울했다. 하지만 감나무들은 열매가 버거운 듯 가지를 늘어뜨려 어느 해보다 풍성한 가을을 알리고 있었다. 추석이 지나서야 태풍은 '푸른 옷소매'라는 이름으로 찾아왔다.

'푸른 옷소매'라는 낭만적인 영국민요가 떠올랐지만, 태풍의 이름은 동남아의 어떤 나라에서 지어졌다고 했다. 그 나라의 어느 골짜기 이름이라 했다. 어느 해 보다 빨리 찾아온 맹렬한 더위는 가을 턱밑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곧 계절이 바뀌리란 기대 때문일까. 사람들은 기타나 오카리나 연주의 유행을 먼저 만들었다. '속성 기타연주 푸른 옷소매'나 '푸른 옷소매 오카리나 연주법'이 인터넷에 심심찮게 올라왔다.

티브이에선 태풍의 위력을 알리며 방조제나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농촌과 과수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상 방송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람이 오면 문을 열어 손님 맞이라도 할 듯 느긋했고, 푸른 옷소매를 연주하는 아이들의 리코드 소리가 간간히 들리곤 했다.

남편이 기타를 들고 왔을 때 여자는 저녁식사준비로 분주했다. 부엌에서 저녁을 하다 젖은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여자에게 짜증 섞인 타박을 퍼부었다.

"뭐 했냐? 빨리 안 열고." 남편은 급하게 신발을 벗었다. 땀을 막 배우기 시작해 한달 난 소년처럼, 종일 구두 속에 있었을 양말도 벗지 않고 기타를 꺼냈다.

"기타 샀어요?"

웬 기타예요? 라는 질문을 한 번 삼키고 난 후의 말이었다.

"옛날 생각이 나가고, 예전엔 제법.....엄마 집에 처박혀 있는 거....."

말꼬리를 잘라먹은 남편은 저녁밥도 먹지 않고 기타 줄을 고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소음의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했다. 업무 창구에서 사람 좋은 얼굴로 고객을 응대하던 사람이었다. 일 처리에 능하지 못한 노인들에게도 선뜻 다가갈 친절을 베풀던 사람. 그래서 눈에 띄었다. 가끔 가던 협동조합에서 남편이 여자의 걸로 다가 왔을 때 여자는 쉽게 었을 내어 주

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이 보여준 모습들은 더욱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까다로운 고객이 있던 날은 남편은 더욱 힘들어 했다. 아니, 힘든 그녀가 그럴 것이라 짐작했다.

남편은 기타를 튕기며 줄을 늘었다가 줄이고, 줄었다가 늘리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다 입 꼬리를 실룩이곤 했다. 그런 남편을 여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유도 없이 기분이 좋아지다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사람. 위로 형이 있지만 배가 달랐다. 남에게는 형이 있다고 자랑하듯이 얘기하고는 돌아서서 씩씩한 표정을 짓곤 했다. 남편은 형이 든든한 백그라운드라도 되어 주길 바랐던 걸까? 하지만 남편은 형과 어울리지 못했다. 남편의 형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도시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였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기일에는 본인만 찾아왔다. 남편의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예를 올리고는 곧장 돌아서는 형에게 남편은 자고가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다. 웃으며 배웅하고, 형이 탄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까지 지켜 본 후에야 벽을 후려치면서 욕을 해 대는 것이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여자는 연민을 느꼈다. 감정의 기복으로 반복되는 거친 행동은 외로움의 반증이라 생각했다. 여자의 아파트 옆 단지에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지만 남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말 한 적은 없었다. 시어머니 또한 몇은 여자의 팔뚝이나 눈언저리를 볼 때도 있었지만 안쓰러운 듯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기타 줄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악보가 찢겨져 날렸다. 여자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쇠아 몸속의 피가 아래로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뺨 쪽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미친 듯이 기타를 벽에 내리치는 남자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줄이 터져지고 깨진 기타를 들고 남편은 여자에게로 달려들었다. '아,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깨야지. 정신을 차려야 돼.' 수없이 마음으로 외쳤지만 외침은 입 안에서만 맴돌았다.

첫소리가 섞여 나오는 기타소리에 잠에서 빠져나온 여자는 지난밤의 치욕을 생각하며 오소소 소름 돋은 팔뚝을 어루만졌다. 아팠다. 팔뚝으로 내려치는 기타를 막아내던 순간을 떠올렸다. 팔뚝에는 붉고 푸른 뱀이 휘감은 듯 뚜렷한 상흔이 남았다.

텔레비전 채널마다 태풍 '푸른 옷소매'의 진행을 알려주고 있었다. 정구방송 틈틈이 속보로 전해지는 태풍의 진로는 소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은 고요했다. 가끔 곁이 두텁고 물기 머금은 묵직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태풍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할 뿐이었다.

여자는 조간신문을 들여와 펼쳤다. 남자는 며칠 전부터 남미로 출장취재를 하고 있었다. 쿠바와 볼리비아를 돌며 '체 게바라의 흔적을 찾아'라는 주제로 특보를 내고 있었다. 이제는 상품으로만 남아있는 세기의 전사.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간 용감한 한 남자의 흔적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고 있었다.

"이 남잔 정말 잘생겼어. 턱수염이 예술이잖아. 턱수염 없는 체는 상상이 안 되거든."

여자는 체를 얘기 할 때마다 그의 외모로 마무리 했다.

"오호, 삶보다 얼굴이다 이거지? 알겠어, 알겠어, 흠,야? 아님, 체?" 사투 진지하게 묻는 그의 모습이 익살스런 중학생 같아 여자는 큰 소리로 웃곤 했다.

"난, 로자 누나가 더 좋더라. 로자 룩셈부르크를 찾아서, 뭐 이런 테마로

독일이나 폴란드로 여행을 가는 거야.”

남자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여자는 대꾸했다.

“여행은 쿠바부터 가야지. 가서 생생한 체의 삶을 만나고 싶어. 영원한 혁명의 전사, 잘 생긴 한 남자의 지난했던 삶을 느끼고 싶거든. 뭐, 다 훌륭했던 건 아니지만, 평생을 자기 신념대로 산다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 쿠바야 쿠바. 난 거기부터 가고 싶어. 재즈에 몸을 맡겼 말리고 맥주도 싶겠 마시자고.”

“흐흠, 내가 더 멋지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지.”

남자의 말에 여자는 유치해 죽겠다며 남자의 등에 가벼운 주먹을 날렸다.

머릿속에서 빛 한줄기가 뱅뱅회 스쳤다.

사막 어디쯤 묻혀있을 기억들이 모래를 털고 일어섰다. 설익은 감을 낚듯 목과 가슴이 답답했다. 쿨럭쿨럭 기침을 뱉어내며 여자는 거실 한가운데 누고 말았다. 팔과 다리를 쭉 뻗었다. 계속된 기침은 가슴에 경련을 일으킨다. 비집고 나온 눈물이 귀 뒤로 흐르고 몸에 깔린 신문지가 여자가 숨을 들이쉬거나 내 쉴 때마다 바스락거렸다.

‘체 게바라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테마는 남자의 자원취재였다. ‘라파스’에서부터 ‘코차 밤바’, 커다란 계곡 ‘바에 그란데’의 굽이치는 산자락과 쏟아지는 별들과 별처럼 피어난 고산의 풀꽃들을 보며 남자는 씬 없이 서터를 놓았다. 혁명에 실패하고 사살된 ‘체’의 시체를 공개했던 ‘이게라’의 ‘말타’ 병원 세막실과 풍향 환주로웠던 쓸쓸한 ‘체’의 무덤을 취재하며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이상을 추구했던 치열한 혁명가의 생애를 생생히 담으려 하였다. 볼리비아 마지막 날 남자는 사막을 취재했다. ‘블루, 블루... 살라르데 우유니’

여자는 남자의 실루엣을 본다. 사진가득 투명한 푸른 배경에 수없는 별들이 깔려있고 남자는 별 속에 있다. 소금사막의 물에 비친 별들이 영롱하다. 그것이 현장 사진임이 여자는 믿어지지 않는다. 남자는 돌아 올 수 없는 먼 어느 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소금사막의 생성 과정과 우유니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채취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의 썸 임금에 관한 기사문이 여자의 의식을 비로소 흔들었다. 태풍 ‘푸른 옷소매’는 저녁이 되자 굉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놀이처럼 불던 리코너 소리도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어두워지자 바람은 사정없이 베란다 통유리를 때린다. 유리가 깨어질듯 휘어지는 것이 보인다. 여자는 박스용 테이블을 찾아 창틀의 대각선으로 붙인다. 이미 물기가 돌아 잘 붙여지지 않자 여자의 이마에 땀이 맺힌다. 부서져 내릴 듯 휘어지는 유리를 두 손으로 밀어 본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 낸 유리에 테이블을 뱅뱅하게 당기며 붙인다. 멎은 팔뚝이 육신기렸다. 남편의 전화를 받은 것은 테이블을 붙이고 안도의 한숨을 돌릴 때였다.

“죽어 버리겠어. 알어? 기다려.”

“어보세요? 어보세요?”

다시 말해주길 기다리며 몇 번인가를 다시 물었지만 더 이상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왜 죽어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 바람과 비를 뚫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목숨 다짐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하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며 거실을 무한 맴돌았다. 하지만 남편이 지금이라도 문을 밀고 들어온다면이라는 생각에 머물자 두려웠다. 당장 여기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밤 남편은 잠자리에서 끊임없이 여자를 불렀다. 하지만 여자는 아침이 될 때까지 식탁아래서 나오지 않았다. 반복되는 치욕의 순간을 그렇게라도 피하고 싶었다. 그것이 남편에게 여자를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였을까? 반복해서 손톱을 물어뜯던 여자는 시들리 문을 나섰다.

아파트 현관 문 앞까지 떨어진 나뭇잎이 밀려와 있다. 이미 우산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접어들었다. 떨어진 나뭇잎들이 여자의 젖은 몸에 달라붙는다. 아파트 상가에도 이미 불이 꺼져 어둡다. 흔들거리던 입간판이 떨어져 구겨진 종잇장처럼 구르는 것을 보며 여자는 멈추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여자는 각오한 듯 시어머니의 아파트로 달렸다. 바람은 여자의 몸을 관통할 것처럼 밀려온다. 미친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니 바람과 함께 공기처럼 녹아 떠돌았으면 싶다.

시어머니는 여자의 젖은 몸을 수건으로 먼저 감싸 안았다.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여자의 얼굴을 몸을 닦아 젖은 수건으로 훔쳐 주며 우찌노, 우찌겔노를 한숨처럼 내 뿜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아이처럼 딸꾹질을 시작한 여자에게 시어머니는 따뜻한 물 한잔을 건넸다.

“누꼬?”

시어머니는 초인종 소리에 조심스럽게 묻는다.

“넌니더.”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에 묻히듯 들린다.

“와 왔노. 이리 바람 부는데 아이?”

문을 열어 달라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미동도 않는다.

“집에 가라. 가서 자고 내일 온나.”

남자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시어머니는 여자를 조용히 베란다로 내보냈다. 그리고 문 앞에 섰다. 아들을 볼 때마다 딱한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다. 모두 자신의 잘못 같아서 안쓰럽고 미안했다. 겹겹하면 손을 올리던 남편이 두려워 어린 아들하나 달랑 안고 나와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지만 녹록지 않은 세월이었다. 어린 아들을 들춰 업고 감 농장으로 다니며 막일을 하던 세월은 생각만 해도 질레질레 고개가 흔들리고 몸서리가 쳐졌다. 가을이면 감을 따고, 냉동 창고를 돌며 감 포장을 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감들이 팍팍한 노동으로 굴이 들어가면 겨울나기를 걱정하며 마음도 함께 줄어갔던 시간들. 비탈진 산등성에 많았던 감 밭은 유난히 많이 많았다. 천방지축으로 놀다 머리를 췌는 아들을 안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 갔을 때 가슴은 얼마나 뛰었는지. 국도에 앉아 겨울바람 속에서 다섯 개들이 감 한 줄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달리는 자동차를 따라 이리저리 뛰어 다녔던 일들이 섬광처럼 스쳐갔다. 재혼 하면서 아들은 엄마를 멀리했다. 세 살 터울 형에게 엄마가 살갑게 대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다 돌아서곤 했다. 엄마가 손을 내밀 때마다 더 움츠리고 냉정했던 아이. 가끔은 아들 손 꼭 잡고 잠들었던 밤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전처의 큰 아들을 아들보다 더 끼고 돌려 살야도 맘 한구석에 한결같은 믿음과 든든함으로 있던 내 새끼. 아픈 손가락 내 새끼. 그놈이 지금 문 하나를 두고 바깥에 서 있다. 함께 살아 온 그 주먹으로 아플 만큼 문을 두드리며 서 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걸연한 눈물이 맺혔다. 잠금장치로 손을 뻗었다.

“할머니가 안 개신 것 같구만, 무슨 일이요? 앗파, 좀 조용히 삼시다.”

잠금장치에 손이 막 닿을 때 앞집에서 문이 열렸다. 앞집 남자의 고함 소리가 바람을 헤집고 현관까지 들린다. 후다닥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망연자실 해진다.

여지도 주지않는다. 바람은 짐승처럼 유리를 핏줄다 비만 훌쩍인 채 돌아간다. 짐승의 포효 같은 바람소리는 여자의 귀를 들어막아 버렸다. 고요

하고 먹먹했다. 바람 한 가운데 여자만 쪼그려 앉아 있다. 바람은 그녀를 가운데 두고 회오리처럼 돌아간다. 회오리 속에 남자가 찍었다는 물리비아 고산의 풀꽃들이 함께 돌아간다. 형형색색의 풀꽃들은 돌아가는 팽이처럼 색 피를 만든다. 색 피는 여자를 휘감아 다시 바람 속으로 끌고 가려 한다. 여자가 망설이는 사이 색 피를 놓친다. 꽃들이 용오름이 되어 솟아 오른다. 베란다 문이 열리며 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여자는 놀라 일어섰다.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달라붙은 얼굴이 번들거렸다. 남편이 었다. 남편은 바깥에 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충혈 된 눈으로 여자를 노려보는 남편이 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오층까지 올라와 우뚝 서 있는 남자가 독하다는 생각을 한다. 불쌍한 사람. 세상의 귀퉁이에서 맴돌다 거친 몸짓으로 결국 돌아오는 사람. 여자의 몸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것처럼 거칠게 헤집고 파고들던 순간이 떠올라 여자는 소스라쳤다. 머릿속까지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 이진 꿈이라고 잠깐 생각한다. 얼음조각처럼 굳은 여자를 향해 남편이 손을 뻗는다. 들이친 빗물에 젖은 옷소매를 잡는다. 아, 안 돼. 물에 흠뻑 젖은 남편의 손이 미끄

리진다. 한쪽 손으로 난간을 잡고 버티던 손이 힘없이 미끄러진다. 여자는 손을 뻗어 남자를 잡았다. 잡아야 했다. 하지만 허공을 휘젓고 었었다.

여자는 '에어 캐나다' 이륙 안내를 받고 일어선다. 차가운 계절풍을 담은 하늘이 빙하가 녹아 만들었다는 깊고 푸른 호수 같다. 이륙하면서 흔들리던 동체가 자리를 잡자 물속을 자맥질하는 새처럼 창공을 가르기 시작한다. 여자는 동그란 창으로 보이는 작은 풍경들을 본다. 조각보를 펼쳐놓은 것 같은 들과 산들이 눈 아래에 흩어졌다 사라진다. 겹눈으로 바라보는 풍경도 이렇까? 등에 투명한 날개가 돌아 나르는 자신을 생각한다. 남자는 물리비아를 떠나면서 여자에게 캐나다를 경유, 아바나로 향하는 항공 티켓을 발송했다. 여자는 날개의 주인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여자가 떠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조용히 도와줬던 그녀는 아들을 위해 준비했다던 통장을 여자에게 내밀었다. 떠나는 여자를 품을 다해 안아주던 노인의 깊은 주름이 푸르고 맑은 호수 속으로 잠긴다. 이륙하는 모든 것에는 흔들림이 었다는 생각을 한다.

당선 소감

이렇게 행복한데 글이 써질까?

경주에서 처음 문학수업을 하고 오며 친구와 통화했던 말입니다.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 말을 첫 문장으로 쓰라고. 나는 유쾌하게 웃었는데 정말 그것이 첫 문장이 되는 글을 쓰게 되는군요.

사년 전, 봄이 멀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이 화사했던 그 날 처음 문학을 만났지요. 오랜 시간을 간직해왔던 쓰고 싶다는 소망이, 쓰겠다는 희망으로 바뀐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쓸 수 있을까란 의심이 샘물같이 고여 왔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어쩌면 그 의심의 샘이 이제는 두려움의 우물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선 전화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나는 늘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었었지요. 전회기 액정에 한국예총(그렇게 등록해 놓았습니다.)이란 글자가 뜨고 마음속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몇 번 예, 예, 란 말이 끝난 후 메모지엔 시상식 날짜와 장소 등이 기록되어 었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서 얼떨떨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더 열심히 하라는, 좀 더 치열해야한다는 채찍으로 다가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

다.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당선 전화를 받고 마음에 자리한 우물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꿈자리까지 뒤숭숭했거든요. 부산역에서 초량동 이바구길을 걸어 산복도로까지 올랐지요. 내가 아주 어릴 때 이 길을 닦았는데 그때는 신작로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될 때까지 나는 산복도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지요. 세월이 서너 번 바뀔 만큼 시간이 지났음에도 내 몸은 여전히 그 언덕을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가파른 길을 오르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 었었습니다. 집, 골목, 내가 다녔던 학교까지. 다만, 비탈진 골목을 오르는 내 등을 비추던 겨울햇볕은 여전했지요. 유년을 생각하면, 늘 함께 떠올랐던 따뜻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웅성거려 자리한 그 두려움의 우물에 안도의 두레박이 내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찾나 봅니다. 또 다른 고향을 생각합니다. 이제 내게는 문학이라는 고향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다. 고향은 아픈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리움이듯 내게 있어 문학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 옷소매는 여성의 연대를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폭력이라는 힘든 상황에 놓인 많은 여성과 아이들의 아픔은 내게 있어 분노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나를 무기력하게 했고 그것은 절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연대를 생각하고, 그들이 나누는 여성이라는 동지애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소설속의 그녀들은 강했고, 자신을, 또는 서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그녀들의 조용한 믿음과 신뢰가 쓰는 내내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떠나보낸 그 여인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손짓하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 것 같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에 조금씩 귀 기울이며 사람의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는 그녀가 보내는 부드러운 미소를 느끼겠지요. 산인상 당선은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로소 마음의 우물, 그 수면 위로 찰박, 두레박 닿은 소리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연

1964년 부산 출생

예술세계 신인상 당선작 심사평

〈예술세계〉 신인상에는 단편소설뿐만 아니라 중편소설과 장편소설도 응모할 수 있다. 이는 아마 신인상 제도가 있는 국내 문학잡지 가운데 유일하지 않나 싶다. 보통 신인상에는 단편소설 또는 중편소설 정도를 응모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작가로 입문하는 '신인상'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요구하는 장편소설을 쓰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다. 아무튼 〈예술세계〉가 이렇듯 응모의 폭을 넓힌 것은 중, 장편을 주로 쓰는 응모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이번 하반기 〈예술세계〉 신인상에는 중편소설과 장편소설이 의외로 많았다. 이렇게 중, 장편소설을 쓰는 응모자가 많다는 사실에 우선 놀랍기도 하면서 반가웠다. 당락(當落)을 떠나서 작품을 완성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응모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총평을 하기 전에 먼저 응모한 분들에게 '소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 그 이유는 소설을 '이야기'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쓴 작품들이 많았다. 소설은 단순히 이야기 하나를 완성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문학작품이 되게 다듬고 꾸며야(창작 과정) 비로소 주제가 살아있는 예술로서의 소설이 된다. 특히 응모작품일 경우에는 여기에 빼어난 독창성이 하나 더 요구된다. 낙선한 분들은 모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고치고 다듬으면 좋은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하여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류미연의 단편소설 〈푸른 옷소매〉, 임병조의 장편소설 〈내것이 아니라면〉과 이진준의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다〉 세 편이다. 이 세 편의 작품을 다시 정독한 결과 류미연의 〈푸른 옷소매〉를 이번 신인상 당선자로 결정했다.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소설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비교적 충실하게 잘 갖추고 있다. 집안의 불행한 일 때문에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을 꾸려가는,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이야기다.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소설 창작의 힘이다. 영국의 낭만적인 민요 '푸른 옷소매'와 우연히 그 해 붙어 온 같은 이름의 태풍 '푸른 옷소매'를 이 평범한 이야기에 대입함으로써 갈등 구조를 극명하게 이끌어간 점이 매우 훌륭했다.

이진준의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다〉는 우선 문장이 경쾌하고 비교적 완벽하여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었으나, 장편에서 필요한 흡인력이 부족했다. 임병조의 〈내것이 아니라면〉은 소재도 좋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구성도 다 좋았으나 문장에 흠결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당선자에게 먼저 축하하고, 아울러 응모한 모든 분들에게도 격려와 함께 박수를 보낸다.

심사위원 이광복, 김호운



십오야+五夜의 달빛 속에서



위영정 대보를 달빛이 통유리 창을 뚫고 실내로 밀려든다. 세상은 물결처럼 조용하다. 남편은 지금 불과한 얼굴로 한 조각의 화석을 베고 혼곤한 잠에 빠져있다. 먼 백악기라도 해매는지 숨결이 고르지 못하다. 나는 화석을 들여다보면서 천지창조의 카오스 속으로 빠진다.

천지를 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시뻘건 용암의 불기둥이 치솟아 오른다. 세상은 아비규환으로 회오리친다. 암흑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순간 사라진다. 어둠의 터널 깊은 곳에서 쿵쿵 지축을 흔들며 다가오는 소리. 흙모래 뒤집어쓴 무수한 빗살무늬의 일백들과 은빛 지느러미가 박혀있는 화석이 한꺼번에 진저리를 친다. 수억 년 시간의 풍화 작용을 거치면서도 선명한 무늬로 굳어진 파편들. 가만히 귀를 기울여 그들의 노래를 듣고 있다.

갑자기 끄응! 소리를 내며 남편이 돌아 눕는다. 그러면서 두 다리를 쪼그리고 둥글게 몸을 말은 모습이 자궁 속 태아의 형상으로 축소된다. 청수리엿, 흘러내린 은빛 곱슬머리 몇 가닥이 불 용담의 잔설처럼 부서지는 이순耳順의 남자. 그는 지금 땅땅 우주의 어디쯤을 유영하고 있는 것일까. 근원을 알 수 없는 바람 한 점도 내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온다.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숨결조차 가누기 어렵다는 열사의 땅, 아라비아의 사막 어디를 헤매면서 화석이라도 캐고 있는 것일까?

아파트 베란다 너머 교회당의 십자가에 광배처럼 걸려 있는 보름달을 조용히 바라본다.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언젠가 그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중동지사 근무 시절, 캠프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 낮은 야산이 보였어. 항아리만 한 보름달이 둥실 솟아올랐지. 사방에는 굽주린 들개들이 긴 목을 빼고 달을 향해 경청 짖어대는 소리뿐이었어. 그런 밤이면 웬스레 잠을 설치면서 윗도리 안주머니에 갈래 넣어둔 가족사진을 꺼내어 손바닥으로 쓸어보곤 했어. 오늘처럼 이렇게 달 밝은 밤이면 그때 그곳이 무척이나 그림구면. 언제 한 번 그곳을 다시 가 보고 싶어"

휴먼지만 툭썩거리는 열사의 땅에는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광막한 모래 폭풍(Sand storm)이 분다고 했다. 거대한 모래바람이 산자락을 쓸고 지나가면 또 하나의 낮선 언덕(sand dune)이 만들어진단 그곳. 석회질이 많아 한 모금의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을 것 같던 척박한 땅에도 짧은 우기가 스치듯 지나고 나면 키 작은 풀꽃들이 화사하니 꽃망울 맺으며 자란다고 했다. 여덟 개의 밤이 달린 전갈의 꼬리에는 뱀독의 독침이 숨겨져 있어서 참대나 신발, 옷 속에 숨어 있던 놈들에게 느닷없이 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이에 대비한 해독제는 상비약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했다. 섭씨 50℃에 육박하는 태양열의 한낮과는 달리 저녁이면 기온이 푹 떨어지면서 한국의 가을밤처럼 서늘했다. 그런 밤이면 낮은 모래언덕 위로 정물처럼 걸려 있는 달이 신비스럽도록 맑고 아름다웠다.

어느 날 밤, 자신도 모르게 달빛에 끌려 차를 몰고 나갔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바위산, 사방은 온통 하얀 모래와 자갈로 뒤덮인 사구의 능선뿐이었다. 속도 제한의 표지판도, 차선도 없는 도로를 질주하던 중, 갑자기 핑크르르 도는 현기증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내 의식을 회복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인적 없이 낯선 도로의 한복판에서 핸들 위로 엎어져 있었다. 귀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라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승용차의 엔진이라도 꺼져버렸다면 달빛만이 밝은 사막의 미로에 갇힌 채 영영 화석으로 굳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 속에 서걱대는 모래 알갱이의 움직임이 느껴질 뿐, 사방은 절대적막으로 괴괴했다. 그는 광막한 사막 위로 떨어진 한 알의 모래에 불과했다. 극도의 외로움이 두려움과 함께 물려왔다.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조직의 일원이 아닌 완벽한 개체로서의 고독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슬기 없이 해맑은 사막의 달빛이 서럽도록 곱게, 눈에 부셔왔다.

'죽음의 섬 저쪽에는 내 청춘의 무덤도 있다'는 니체의 말처럼, 그의 서른 살 푸른 추억이 신화처럼 살아 있는 그곳에의 그리움이 이 밤의 달빛을 타고 그의 꿈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나이가 들면서 가끔 흔들리는 그의 눈빛을 본다. 살아온 여정에의 회한이 문득문득 사무치면서 누구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오로지 혼자만의 자신이 되고 싶은 그의 외로움일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파를 향해 고개를 들고 대적하지만, 실패와 좌절로 거듭되는 삶의 피로감이 그의 외로움의 원류일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로서는 그의 외로움의 근저에 동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혼자만의 부당일 이치는 아니기 때문이었다. 오랜 날을 그와 나는 서로의 섬에 갈혀 살아왔다. 시퍼런 바닷물 한가운데 떠있던 섬. 그와 함께 수많은 세월을 건너왔지만 오랜 세월을 그와 나는 서로 다른 섬이 되어 그렇게 떠 있었다.

한 갑자를 돌아가는 시간의 언덕에 기대어 그에게 말하고 싶다. 부부란 수직의 관계가 아닌 수평의 관계에서 마주 보며 가는 것이라고. 이제 서로의 고단한 어깨의 짐을 내려놓자고. 그를 향해 완강했던 마음의 철문을 조용히 열어두고 싶다.

지상의 달빛은 어느 곳이나 골고루 쏘아진다. 남편의 마음속에서 완강히 혼자가 되어 젖어 드는 달. 그의 달빛 한 조각을 나눠서 갖고 싶다. 그가 베개처럼 괴고 있는 화석조각을 살그머니 빼내어 혼곤히 잠든 머리를 내 무릎으로 괴면서 그의 은빛 머리칼을 쓰다듬는다.

그의 은발 위로 달빛이 부셔져 내린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깊은 잠결에 잠겨 있다.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의 푸른 달빛을 꿈꾸고 있으리라. 마치 헤밍웨이의 노인이 밤마다 소싯적의 사자 떼를 꿈꾸듯.

청년들은 앞날의 꿈으로 살고 노인들은 지난날의 회상으로 비탄한다고 하던가. 젊은 날의 태양이 아닌 달빛에 젖은 그의 꿈결이 애처롭다. 그러면서도 그의 외로움에 한 치도 다가서지 못하는 내가 무색하고 미안하다. 단지 그의 꿈결 옆에서 달빛이나마 그와 함께 쏘일 뻔했...

그는 이제 몇 시간 후면 꿈을 털고 새벽 달빛을 밟으면서 자신의 일터로 나갈 것이다. 낮 동안 내내 태양 빛에 퇴색한 달의 음영을 찾으려 땀방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꿈결이 이래로 밤새 깊었으면 좋겠다.



이현실

예술시대작가회 회장, 동작문인협회 운영이사
지용문학회 회원,
「지성의 섬」 주간, 「미래시학」 편집위원
수필집 「꿈꾸는 몽당연필」, 시집 「꽃지에 물들다」

2017년도 예술시대작가회 신임집행부를 소개합니다.

예술시대작가회는 한국예총에서 발행하는 전문예술지 『예술세계』를 통하여 등단한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190여명의 회원들이 대한민국 문학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장	이현실('03년 수필)	사무국장	양은진('12 시)	수필분과장	최희명('06 수필)
감사	조현순('09 시), 이원주('09 시)	사무차장	박정숙('17 시)	편집위원	최영옥('08 수필)
부회장	김용수('06 시), 최수지('01 시) 박종오('09 시)	시분과장	이성익('07 시)		허혜원('11 수필)
		소설분과장	서영철('10 희곡)		조원표('17 수필)



제31대 예술시대작가회 회장 이현실

현) 예술시대작가회 회장
동작문협 운영이사
지용문학회 회원
『지성의 샘』 주간, 『미래시학』 편집위원
수필집 『꿈꾸는 몽당연필』, 시집 『꽃지에 물들다』



『예술세계』 신인상 공모

참신한 신인을 찾습니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예술세계』에서는 한국예술문화의 창조적 발전과 예술문화 비평 및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평론 부문'과 '창작 부문'의 참신한 글을 찾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예술혼을 불태울 역량있는 신인들의 참여를 기대하오니 그동안 쌓아온 지적 자양분을 분출, 우리나라 예술문화 발전에 동참하여 마음껏 능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 응모부문

평론부문 : 건축,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10개)

창작부문 : 문학평론, 시, 시조, 수필, 소설, 희곡 등

■ 응모편수 (200자 원고지 기준)

평론부문 : 2편 이상 (작품 당 원고지 100매 내외)

창작부문

- 1) 시 : 5편 이상
- 2) 시조 : 5편 이상
- 3) 수필 : 2편 이상 (작품 당 원고지 15매 내외)
- 4) 소설 : 단편 - 2편 이상 (원고지 80매 내외)
중·장편 - 매수제한 없음
- 5) 희곡 : 2편 이상 (원고지 80매 내외)

■ 응모자격

신인 및 등단 10년차 미만의 기성작가

■ 마감 반기별 (4월 말, 10월 말)

■ 접수방법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A4용지 기준, 우편접수하되 이메일 동시 접수 필수)

■ 제출자료

1) 지원서 1부 (한국예총 홈페이지 www.yechong.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2) 응모자료 1부

주소 : (158-050)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예술세계』 편집부

이메일 : yecheonbon@naver.com

(제목 : [예술세계 신인상/○○부문/성명]으로 발송)

■ 발표 및 시상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공지

■ 당선자 대우

『예술세계』 지면을 통한 적극 육성

『예술세계』 작가회에 가입하여 문단활동 동기 부여

매년 12월 실시하는 예총예술문화상에서 신인상 시상

한국예총 특별회원 가입 및 각종 예술행사 참가자격 부여

■ 응모요령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발송 시 [예술세계 신인상/○○부문/성명] 봉투 겉면에 기재

■ 문의 02-2655-3015 / yecheonbon@naver.com

생활 속 한지공예

한지에 스며든 봄빛, DIY 아트램프

우리 선조들은 섬유질이 풍부한 닥나무로 한지를 제작하였고,
한지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한지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것! 올해도 여전히 셀프인테리어나 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DIY 열풍이 거센 가운데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사나 집에서 흔히 굴러다니는 메모꽂이를 이용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트램프를 만들어보았다. 김영미 한지공예가와 함께 내 취향에 꼭 맞는 아트램프를 만들어보자.

제작시연_김영미(한국예술문화명인, 한지공예가) / 글_한효영(예술세계 기자) / 사진_김준수(한국예총)



재료와 도구

한지(흰색, 검은색, 염색지 등), 메모올더, 풍선, 도배용 풀, 굵은 철사와 가는 철사, 소켓, 전구, 중간 스위치 전선, 탈색약(락스), 지점토 약간, 작은 돌멩이, 페인트 붓, 칼이나 가위 등



만드는 방법

step 1



풍선을 야구공만한 크기로 불어서 묶어 준 후, 흰색 한지에 도배용 풀을 발라 붙인다. 한지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로 찢어서 붙이고, 찢은 면의 결이 살도록 최대한 퍼주면서 풀을 바른단.

Tip. 한지는 구겨서 쓰면 부드럽고 질겨져 말린 후 그 형태가 더 자연스러워진다.

step 2



풍선 묶은 곳에서부터 한지를 5~6겹으로 붙여주는 데, 절반쯤 붙인 후 하루정도 말려서 나머지를 붙인다. 한 번에 붙일 경우 한지의 겉면에 보푸라기가 일어난다. 풍선의 끝부분은 꽃 모양처럼 잘라내므로 붙이지 않는다.

Tip. 주름을 자연스럽게 잡으려면, 한지를 가운데서부터 붙여나가며 안쪽으로 밀어 넘듯이 주름을 잡아준다. 주름 잡은 곳은 여러번 눌러 공기를 빼주는 게 좋다.

만드는 방법



한지 작업이 끝난 풍선이 충분히 말랐다면, 안에 있는 풍선을 터트려준다. 속에 거친 부분이 있다면 풀을 발라준다. 정밀가위나 문양칼로 둥그스레한 별 모양으로 오려내고 원하는 염색지로 바깥면만 한 겹으로 붙여준다.



꽃받침용으로 쓸 풍선을 하나 더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꽃받침용이기 때문에 절반정도만 작업하면 된다. 하루정도 충분히 말린 후, 풍선을 제거하고 꽃받침 모양으로 오려준다.



꽃받침에 검은색 한지를 크게 찢어서 한 겹 정도 붙여주는데, 군데군데 주름을 만들어주면서 붙이는 게 좋다. 작업이 끝나면 얼룩을 방지하기 위해 풀을 전체적으로 발라준다.



메모홀더를 준비해 아랫부분에 작은 돌을 배치하여 지점토로 고정시켜준다. 줄기용으로 쓸 굵은 철사를 적당히 잘라 3:1 지점에서 한번 구부려준다. 꽃과 꽃봉오리에 소켓과 전선을 연결한 후, 작은 철사를 돌돌 말아 전선과 굵은 철사를 하나로 묶어준다. 메모홀더 아랫부분(지점토)에서 전선을 정돈해준 후, 오공본드를 이용해 전선을 고정시켜 준다.



하드보드지를 잎사귀 모양으로 오려준 후, 잎사귀 가운데 부분(잎맥)을 절반정도 잘라준다. 굵은 철사에 본드로 잎사귀를 붙여준다.



잎사귀에 주름을 잡아가며 검은색 한지를 붙여준다. 마를 동안 고정될 수 있도록 클립으로 잎사귀 가운데 부분을 집어놓는다.



풀과 오공본드를 1:2로 비율로 섞은 후, 메모홀더 기둥(줄기 부분)과 바닥면까지 전체적으로 검은색 한지를 붙여준다.



중간 스위치와 전선코드 부분을 연결해준 후, 한지 작업 부분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하루이상 말려준다.



탈색액(락스)을 흰 천에 조금씩 묻혀가며 전체적으로 두들기듯이 발라준다. 한번 바른 후 5분 정도 말려주고, 다시 탈색액 바르는 과정을 5번 정도 반복 진행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갈색이 나오면 완성!

남녘 고향의 쪽빛 바다를 항상 그리워했던 수화 김환기

“오는 4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김환기 회고전 열려”

글_장영준(미술비평가, 한국예총 전문위원)

“예술은 미학적, 철학적, 혹은 문학적 학설이 아니다.
예술은 하늘과 산, 그리고 돌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1970년, 코트에 유채

요즘 우리 화단의 현대회화 장르에서 가장 뜨겁게 조명 받고 있는 이는 수화 김환기다. 한국 현대추상미술의 개척자로도 알려져 있는 그는 1913년 2월 27일 전라남도 신안군 기좌도(현 안좌도)에서 부농 김상현의 1남 4녀 중 넷째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유복한 가정의 외동아들로 태어난 까닭에 어릴 때부터 집안의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다.

그런 이유로 고향의 안좌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상급학교도 서울의 중동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으며 19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니시키시로 중학[錦城中學]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932년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그림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던 그는 집안 모르게 다시 일본으로 밀항하면서 미술공부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결국 이 문제는 1933년 4월 부친이 학비를 일본으로 송금하여 그가 동경의 일본대학 예술학원 미술학부에 입학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으며 이후 1936년까지 일본대학 예술학원 미술학부에서 수학한 수화는 1937년까지 연구과에 남아 계속 그림공부를 할 수 있었다.



김환기와 부인 김양만 © 환기재단, 환기미술관

사실 일본에서 미술대학을 다니던 시절의 김환기는 한국출신의 어느 화가들보다 일본의 진취적인 화가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구 미술의 흐름을 일찍 받아들였던 일본근대화단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서구 근대미술의 흐름을 직접 체험하고자 했던 그의 열망이 감춰져 있었던 점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4년 전 작고한 그의 집안 사촌동생 되는 소화 김암기 화백은 수화의 동경유학 시기에 관하여 “수화는 일본에서 공부했지만 유럽의 미술을 직접 받아들이고 공부하기를 원했으며 되도록 일본화단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일본 근대화단은 인상주의 미술화풍을 비롯하여 고호, 고갱, 세잔 등의 후기인상주의 화풍과 브라크의 입체파 화풍 등 서구 근대미술 화풍이 기무라 쇼오치와 나카시마 주니로 등의 작가들에 의해 수용되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빛에 의한 인상이 사물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서구 인상주의 이론과 단순화된 형태의 추구는 자연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입체주의 이론은 근대 서구사회를 강타했던 혁신적 미술경

향으로 당시 일본화단의 이러한 미술경향의 전래는 진보적 개혁과 신문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당시 일본사회의 열망과 맞닿아 있었다.

생전의 김환기와백은 우리 청자와 백자의 곡선의 아름다움, 깊은 색채미와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 관해 항상 찬탄을 금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대학 예술학부 50년사> 자료에 의하면 1934년 당시 미술과 관계되는 교수와 강사 중 일본미술사는 야나기 무네요시가 담당하였다고 알려져 있어 그가 조선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던 야나기 무네요시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게 한다. 1935년 일본대학 재학시절, 김환기는 당시 일본의 대표적 진보미술단체로 지칭되던 이과회(二科會)에서 주최한 ‘제22회 이과전’에 <종달새 노래할 때>를 출품하여 입선한 기록을 보여준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하여 “처음부터 모델 없이 제작했으나 누이동생 사진을 보며 머릿속으로 그렸던 작품이었다. 나는 남쪽 지방의 따뜻한 섬에서 나고 자랐다. 섬이란 태풍이 오기 전에는 평화롭기만 했다. 특히 종달새 노래하기 시작하는 봄이면 살았나 죽었나 그 한계를 모를 정도로, 무엇인지 모를 것들이

눈오는 날의 환기미술관





〈산〉 1957년, 캔버스에 유채 © 환기재단, 환기미술관

느껴지지만 하던 내 고향이었다. 나는 소년 시절 느꼈던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당시 서구의 실험적 형태와 상반되는 그의 내면에 자리한 토속적 서정성이 서로 공존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섬이라는 배경 설정과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가는 소녀의 향토적 주제, 그리고 작가가 떨어놓는 평화로운 섬의 낭만적 분위기가 서구의 근대적인 양식과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때부터 이미 자연에 대한 서정적 반응이 김환기 작품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

한때 김윤수, 안동석 등의 미술평론가 등에 의해 현실을 도외시 한 감성적 작가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으나 그는 “작가가 작품에서 현실을 생각하는 방법이 고국의 자연을 생각하며 고향의 빛깔과 자연을 담아내는 것 또한 한 방법이 아닌가.”하는 독백을 남겼을 정도로 천성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작가였다.

1937년 4월 일본에서 귀국한 김환기는 1940년까지 계속해서 일본 최초의 추상미술 공모전이었던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당시 그가 출품한 작품들은 대부분 없어졌으나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대부분 곡선과 직선 그리고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 당시 서울 화단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비대칭회화가 대담하게 시도되어 우리나라 추상회화의 선구자로서 그의 초기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론도〉는 그의 이런 작품경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론도는 작품의 소재가 되는 사물의 형상이 남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평면에서 곡선과 직선,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 노란색과 파란색들의 색면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추상작품들에서 연상되는 엄격하고 팽팽한 균형감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곡선과 직선 그리고 흰색, 검은색, 노란색, 푸른색들의 색면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 속에는 음악적인 주제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운율감이 잘 드러나 있다. 김환기의 이러한 표현양식은 ‘자유미술가협회전’의 주류를 이루었던 기하학적 추상이나 구성주의의 성향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론도〉 1938년, 캔버스에 유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환기재단, 환기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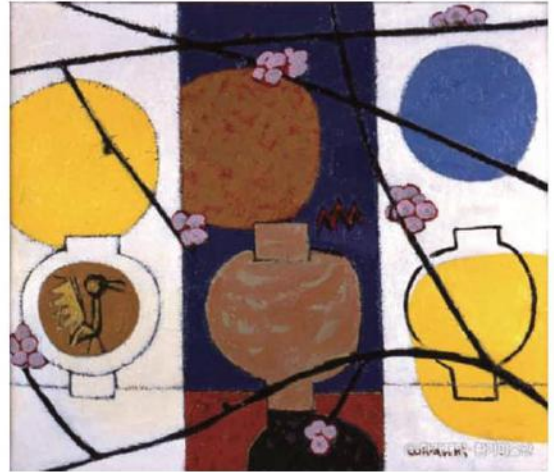
1963년 ‘제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한 수화는 이후 뉴욕으로 건너가 1964년 미국 뉴욕의 아시아 하우스 화랑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유럽 등지에서 수많은 전시활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한국일보사의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1970)’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출품하여 대상을 받았는데 어릴 적 고향의 친구들과 지인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그렸다는 이 작품은 수많은 점과 남쪽의 쪽빛 바다를 연상케 하는 푸른 색채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향후 그를 상징하는 작품이 되었다.

1974년 7월 25일 병상에서 투병하다가 타계 한 그의 사후, 수필집 〈파리〉, 〈우리끼리의 얘기〉를 남기는 등 수필가 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였던 부인 김향안 여사는 남편의 유작을 돌보다가 그의 이름을 딴 환기미술관을 설립하여 그의 유지를 받들어 후세에 전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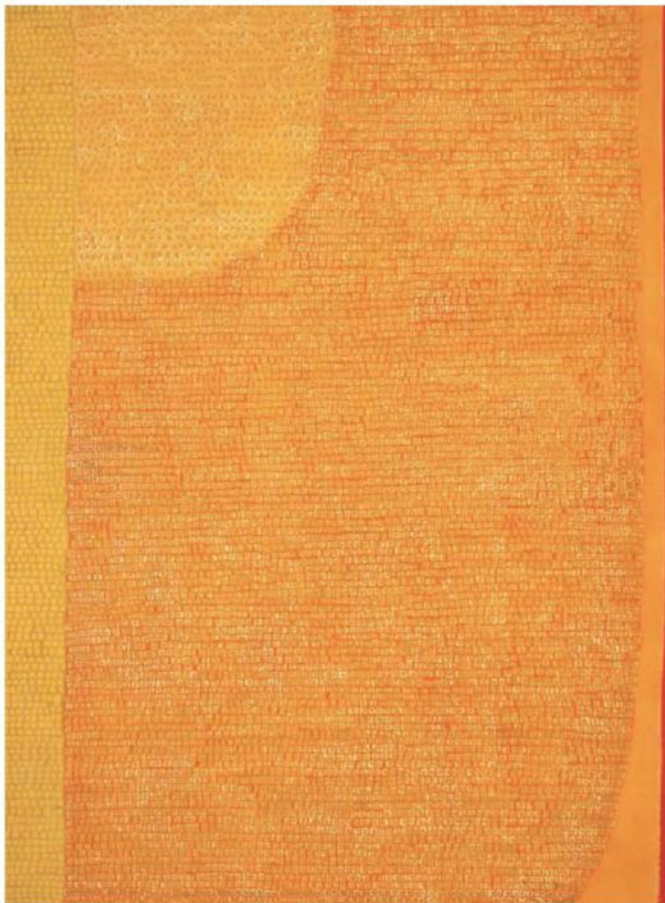
저녁에

- 김광섭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은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향아리와 매화〉 1954년, 캔버스에 유채 © 완기재단, 완기미술관



〈12-V-70 #172〉 1970년, 코튼에 유채 © 완기재단, 완기미술관

수화 김환기 연보

- 1913년 전남 신안군 기좌도
(현재 안좌도) 출생
- 1931년 동경 니시키시로 중학교 입학
- 1933년 동경 일본대학 예술학원 미술부 입학
- 1944년 김항안과 재혼하여 서울 성북동에
신혼살림을 차림
- 1948년 서울대학교 예술학부 미술과 교수 역임
- 1951년 부산으로 피난하여 해군중군화가가 됨
- 1952년 부산에서 홍익대학교 교수 역임
- 1954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에 임명
- 1956년 서울 동화화랑에서 개인전 〈도불전〉,
파리 베네지트 화랑에서 개인전 개최
- 196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초대학장으로 임명
- 1974년 향년 62세의 나이로 뉴욕에서 별세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으로 365일 날마다 축제



전 세계인의 축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올림픽이라는 비전으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축제 등을 통해 세계인들을 올림픽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지구촌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하여 대회 개막 전 1000일, 500일, 365일 등 주요 D-Day마다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하여 전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속적인 붐을 조성하고 있다. 대회기간 중에는 우리나라와 강원도의 대표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날마다 축제가 되는 올림픽을 실현한다. 우리의 문화와 기술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 올림픽 메뉴 내 관람객들을 위한 버스킹, 마술 쇼 등 소규모 거리공연, 경기 생중계 방송을 보며 응원하고 올림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라이브사이트'(길거리 응원장), 매일 밤 불꽃놀이와 문화공연을 선보일 메달플라자 등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매일 올림픽 축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와 정부, 개최도시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메뉴 내 문화행사를 맡고, 개최도시는 올림픽 메뉴 밖에서, 그리고 정부는 전국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면 2018 평창이 지향하는 문화올림픽은 충분히 실현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의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값진 기회이다. 2018 평창 문화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강원도 두메산골인 평창이 세계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문화공연의 성공여부뿐만 평가받는 것은 아닐 것이며, 관광 인프라와 문화의 결합,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가짐 등이 모두 함께 어우러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문화콘텐츠는 우리 고유의 것을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글로벌한 콘텐츠, 세계인들의 니즈를 잘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보여줘야 한다.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평창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무척 높다. 때문에 중국인을 비롯한 세계인을 대상으로 문화공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나 대관령 음악제 같이 기존에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강원도와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싶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 할 것이다.

88올림픽의 희망을 다시 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New Horizons'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선수 중심, 경기 중심의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개 분야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격을 분야별로 특징지은 '5대 올림픽'을 구현해 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한 대회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올림픽', '전 세계가 공감하는 고품격 문화올림픽', '지속가능한 환경올림픽', '올림픽정신 구현을 위한 평화올림픽' 그리고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최첨단 ICT올림픽'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은 물론 IOC의 올림픽 역사에도 길이 남을 수 있는 올림픽이 되도록 대회준비를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5개 분야 내용은 '선수·경기·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 '국내외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올림픽 붐 확산', '현장중심의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 '경기장 및 대회 관련 시설 적기 건설' 그리고 '또 하나의 올림픽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 준비'이다. 조직위원회는 올해 올림픽 대회준비를 현장중심, 실행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평창올림픽의 분위기를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의 꽃이라 말할 수 있는 개·폐막식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와 한류를 바탕으로 강원도의 고유문화를 접목시키고, 특히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첨단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독창적인 개폐회식을 준비 중에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2월 한국예총, 1월에는 예술의 전당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예술단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정부나 조직위원회, 개최도시 등 올림픽 직접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예술인 참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내의 기성 및 신진 예술인(단체)들이 우수한 예술작품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국제무대에 등단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인 만큼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날마다 축제가 되는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로 배움을 수 없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찾아온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을 당연한 미덕으로 여겨는 만큼, 강원도민문화운동협의회 등 지역 주민과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국내외 모든 방문객들이 평창에서 펼쳐질 동계 축제를 즐기고 따뜻한 지역 민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 엠블럼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평창에서 펼쳐지는 눈(설상)과 얼음(빙상), 동계스포츠 스타(선수)와 지구촌 사람들의 어울림, 모두에게 열려있는 축제의 한마당을 의미.

'P'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자인 한글의 '평창' 초성 'ㅍ'과 하늘·땅·사람들이 어울린(천·지·인 사상) 축제의 장을 표현하였고, 'C'은 '평창'의 한글 초성 'ㅊ'과 눈과 얼음, 동계스포츠 스타를 형상화하였다.

색상은 올림픽의 오륜기와 한국 전통의 오방색을 모티브로 하였다.

평창 동계패럴림픽 엠블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인종과 지역, 장애를 뛰어넘는 평화와 희망의 세상을 표현하였다.

'P'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세상을 표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파헤치기!

수호랑(Soohorang) 마스코트



백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호 동물로 올림픽의 든든한 마스코트로 '수호'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참가자, 관중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이고 '랑'은 호랑이와 강원도 정선아리랑을 상징

이 캐릭터의 성격은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참가자, 관중들을 지켜주는 씩씩한 친구로 앞으로 수호랑의 용감한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반다비(Bandabi) 마스코트



반달가슴곰은 의지와 용기의 동물! 패럴림픽의 소중한 친구 반다(Banda)는 반달의 의미를, 비(bi)는 대회를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이 캐릭터의 성격은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졌고, 평등과 화합에도 앞장섭니다.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들의 열정을 응원하는 따뜻한 친구입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오는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간의 대장정을 준비 중이며 용평·알펜시아·보광·정선의 경기장으로 구성된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에서는 설상경기를, 강릉올림픽 파크와 관동대 아이스하키장으로 구성된 강릉 코스타 클러스터에서는 빙상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든 경기장이 평창의 올림픽플라자를 기준으로 3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서는 총 7경기 15개 종목 102개 세부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며 100개국 내외 선수와 임원진, IOC매일리 및 보도진 등 약 5만 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올림픽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는 오는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 동안 총 6경기 6개 종목 80개 세부종목의 경기가 개최할 것이며 설상경기는 용평·알펜시아·정선의 경기장에서, 빙상경기는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슬로건은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이다. 모두가 하나된 열정으로 동계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동계스포츠의 지속적인 확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감을 의미한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세상,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약 1년 여 앞으로 다가와 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우리 조직위원회의 준비상황은 한마디로 'SOUND BYTE', 경기장 시설의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 분야는 '완공단계'이고 동 시설들의 운영은 '지속 보완'으로 말할 수 있다.

2016년 말 강릉 아이스아레나가 완공되는 등 신설 경기장 6곳의 공정률이 96%(1.16 기준)를 넘어섰고, 올림픽플라자 등 대회 관련 시설들도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인 대회 운영 면에서는 테스트이벤트를 거치면서 개선할 점을 찾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물론 자원봉사와 수송, 숙박 등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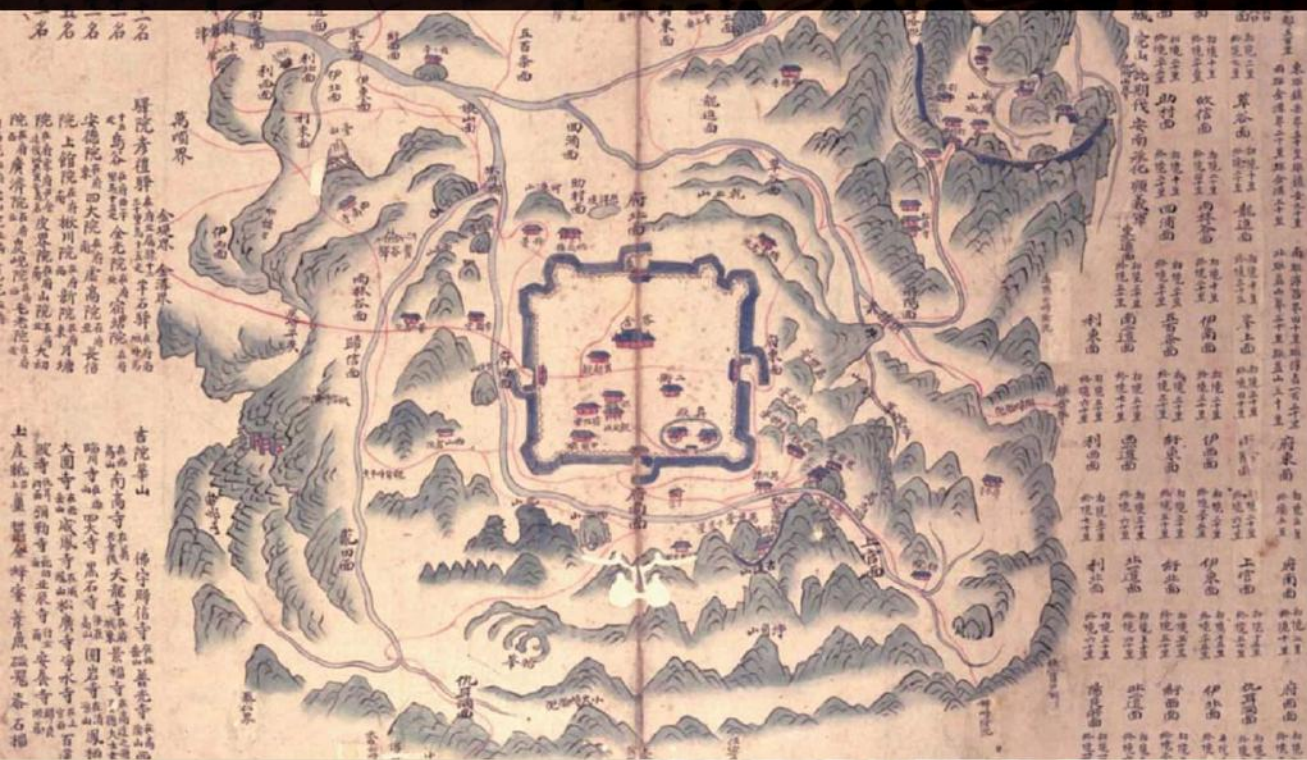
경기장 시설, 운영은 물론 올림픽 붐 조성 등 많은 분야에서 조직위원회가 준비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대회의 성공여부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평창 슬라이딩센터



풍수지리

조선 왕조 본향지
전주 송암산 풍수 - 上



(위) 애동지도 / (배경) 1872년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전주 주산 기린봉과 송암산



외정릉 모악산 전경(오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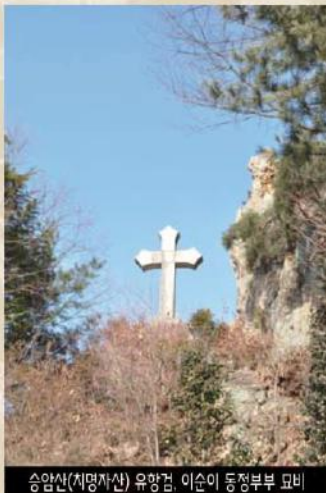
기린봉 정상

승암산 지명 유래는 형상이 마치 스님의 바랑처럼 생겼다 해서 바릿산·발대산·발산으로 불려왔다. 바랑은 중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은 자연스럽게 승(僧)암산 또는 중 바위라고 부르게 됐다. 승암산은 1801년 순교자 유항검과 이순이 합장묘가 생긴 뒤 많은 사람들이 치명자(致命者)가 누워있는 곳을 찾게 되자 산명도 치명자산으로 바뀌어 갔다.

산명은 시대와 시야점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천사를 가져온 셈이다. 산명이 치명자산으로 불리지면서 남 주작 고덕산 자락의 '호승예불' 형상도 '성모기도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형상과 형국이란, 각도와 시점에 따라 유심조(唯心造)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조선의 봉당(朋黨)정치는 풍수형상을 바늘 끝 위에 올려놓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왔었다.

권력자의 힘의 논리에 풍수형상은 얼마만파로 변형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며, 그로인해 권력자가 펼쳐낸 풍수담론은 민중정서와 이반되게 올라가기도 했다.



승암산(치명자산) 유항검, 이순이 동정부부 묘비



승암산 내 동고사

승암산 날엔 두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동쪽 품엔 승암사와 동고사가 그리고 남쪽 품엔 유항검·이순이 동정부부 묘와 천주교 치명자산 성당을 안고 있다.

유항검·이순이 동정부부 묘와 동고사는 풍수 열명으로 보면 공교롭게 같은 괘등열(掛燈穴)자리에 안좌해 있다.

호롱이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말함이다. 빛은 불가에서 중생을 깨우치는 화두로, 천주교에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을 상징하고 있다.

주산 기린봉과 승암산의 강한 기운은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무능한 왕권에 담대하게 저항했던 전라도 정신의 발심지이며 무정한 세월을 기다리게 했던 여적(餘滴)이기도 했다.



승암산 화기를 누르고 있는 거북바위

거북바위(龜巖) 비보풍수(裨補風水)

'KBS 역사스페셜 7권 156P, <17미터 거북바위의 증언, 견원의 왕도, 전주 프로젝트> 2006년 효형 출판'에서는 전주의 북 현무는 북동쪽 구전북대학병원 일대 터로 옛날에 인가도 없고 공허(空虛)에서 정조 20년(1796)에 판관 윤광수가 진북정 북쪽 100보의 주위 약 1,103미터 길이 1미터 못을 만들어 북방수호신인 현무로 이름을 지었다. 전주지도에서 거북바위(고인돌로 추정)는 정북쪽에 있다.

사신체계에서 현무를 의미한다. 청룡에 해당하는 지형과 지명을 완산칠봉에서 찾아보았다. 완산칠봉 용머리 고개는 지형상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행정구역상의 지명은 서완산동이지만 이 부근에서는 용머리라는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쓰인다. 그렇다면 백호는 어디일까? 지금의 전주 어느 곳에서도 백호와 관련된 지명과 지명은 찾아볼 수 없다.

기린봉은 전주의 동쪽에 우뚝 솟은 산으로, 주변의 모든 산들을 휘하에 둔 채 전주를 호위하고 있다. 기린봉은 성스러운 산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기린봉이 백호로 지목되었을까? 중국의 역사서 '예기'에 관련 기록이 있다. 기린, 봉황, 용을 가리켜 네 가지 신령스러운 동물이라고 한다. 이때 백호가 아닌 기린이 등장한다. 기린을 그린 고구려 고분 삼칠총 벽화를 살펴보면 기린은 노루의 몸에 뿔이 하나 달린 머리, 소의 꼬리가 있는 동물이다. 기린은 백호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주를 지키는 백호는 기린봉인 것이다.

서쪽 일대는 완산칠봉이, 동쪽 일대는 기린봉이 전주도심을 좌우에서 굽어보며 수호하고 있다.

남 주작은 어디일까? 지도에는 남쪽 일대에 봉황과 관련된 지명이나 지형이 없다. 다만 방향과 위치로 계산했을 때, 승암산을 남 주작으로 볼 수 있다. 금암동 거북바위까지 놓고 보면 사신 체계가 모두 완성되는 셈이다.

문화포커스: ②[연재] 풍수명인 김상휘 박사의 우리 땅 풍수이야기

거북바위가 북 현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전주에 사신체계가 있고 거북바위가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KBS역사스페셜 <17미터 거북바위의 증언, 권원의 왕도, 전주 프로젝트>에서 전주 사신체계 중 북 현무를 구)전주 KBS 방송국 내에 있는 17m 인공 거북바위로 지목했다.

이는 사신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방영된 것으로 아쉬운 대목이고, 북 현무는 인공으로 만든 거북바위가 아니라, 금암동 구암리 앞 바위를 말함이다.

전주는 건토·건산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불이 나곤 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막연히 승암산 화기 때문이라고 전언했다. 그래서 전주부윤이나 전라관

한 점인데 사신체계는 주산(主山)을 정점으로 사방(四方)에서 진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승암산을 방점으로 남 주작은 정남향(正南向) 고덕산자락 선인무수형(仙人舞袖形), 호승예불형, 성모기도형이 해당된다.

전주 사신체계를 산도(山圖)로 그려보면 청룡은 남고사, 완산칠봉, 유연대(태극산)로 이어지고, 백호는 승암산 오른쪽 기린봉, 반대산, 유일여고, 인후이파트, 금암동으로 이어진다. 외청룡의 경우는 모악산, 계룡산(해성고깃산), 천잠산, 황방산과 외백호는 기린봉, 우아동, 세터리(신기리), 건지산으로 이어진다.

승암산은 왕기(王氣)나, 화기(火氣)산이냐

그동안 승암산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 다양한 담론과 비보풍수가 등장한다. 천문지리에 능동했던 전라관찰사 이서구는 '승암산 화기 때문에 전주에서 인물이 나지 못하고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라고 역설했다. 전라관찰사 이서구가 발설한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시대로 올라가야 한다.

지역감정을 최초로 유발시킨 사건으로 지목되는 왕건의 훈요10조다. 최충헌가(家) 서재에서 발견된 훈요10조는 고려왕건이 왕위를 이어나갈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언인데, 훈요10조에서 8조가 '차령이남 출신은 역수형상을 닮아 반역의 염려가 있으니 벼슬을 주지 말 것'이라고 쓰여져 있다. 차령 이남은 지금의 전라도 지방을 말함이다.

당시 최충헌가가 무인시대를 열어 가는데 큰 걸림돌은 호남 세력으로 여수아비 임금일지라도 명분과 재가 필요했다. 최충헌은 고민 끝에 전라도 풍수지형론을 생각해 낸다. 우리나라 지형지세는 북고남저(北高南低) 동고서저(東高西低)이다. 물 흐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전주천 물길 만큼은 남·서향인 관촌 슬치(膝池)에서 발원해 북쪽 만경강으로 흘러 배역(背逆)의 형국을 그리고 있다. 그러한 배역형국을 최충헌가 책사들은 반궁형(反弓形)으로 그려냈고, 임금이 있는 개경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형국으로 만들어냈다. 최충헌은 훈요10조 8항을 임금에게 고

1380년 이성계 장군 승암산 왕기를 받으며 이곳 오목대에서 대풍가를 불렀던 곳



성모기도형

찰사는 화재에 관한 실용정책으로 용수(用水)를 개발해 소방과 농업용으로 쓸 수 있게 많은 소류지를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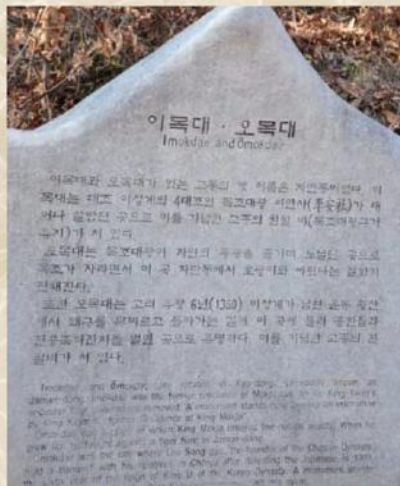
또한 비보풍수로 인공 거북이를 승암산 정면에 배치시켜 불기운을 누르기도 했다. 거북바위(고인돌 설)는 승암산화기를 막기 위한 비보일 수 있으나, 사신체계에서 북 현무는 아니라는 점이다.

김두규 박사는 2009년 제28기 박물관 아카데미 전주학 시민강좌에서 거북바위는 허한 곳을 보완해주는 비보 풍수성격과 강한 기운 화기(火氣)를 눌러주는 진압 풍수적 성격을 갖는데 구)전주 KBS 방송국 내 거북바위 역시 그와 같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화기는 물의 신(水神)을 상징하는 거북이가 제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주가 배출한 대표적 소설가 최명희도 자신의 대표작 <혼불>에서 전주의 노인들의 말을 빌려 '전주 승암산 기린봉 등이 화기가 강하다고 말하고 있음에서도 전주의 옛 진산인 승암산·기린봉이 화기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누를 수 있도록 마주보는 지점에 거북바위를 세운 것이다. 실제 거북바위는 승암산과 마주하는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고 했다.

또 하나의 오류는 사신체계 중 남 주작 설명에서 승암산 자체를 두고 지목



오목대 표지석



동학농민운동 전봉준 장군이 공부했던 전주향교 명륜당



전주양교 4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전주 역사를 가슴에 안고 있다.

(告)아기를 '태조께서 백제배후 세력의 저항이 얼마나 힘들면 훈요10조를 박술희 장군에게까지 남겼겠느냐'며 전라도 세력 제거와 등용 제외 명분을 걸었다. 그 후 차령 이남지방은 당시 권력자의 논리에 의해 배역의 땅으로 제단 되어갔고, 전라도는 역사와 함께 배역과 반항의 고장으로 폄훼되고 말았다.

반복된 역사는 조선시대로 내려왔다. 조선을 집권한 이씨 왕조 출발은 1380년 남원운봉 이지발토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전주 오목대에 올라 승암산 왕기를 등에 지고 대풍가를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운을 알고 호연지기를 다졌던 전·후반 혁명가 즉, 승암산에 반월성터를 근간으로 후백제 부활을 꿈꾸었던 견원 대왕이나, 뒤편 월촌마을 정여립 장군이나 훗날 올바른 나라를 세우고자 전주향교 명륜당에서 공부를 했던 전봉준 장군이 있었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미완으로 인한 희생양은 상상치 못할 정도로 엄청났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했던 만큼 승암산이 품고 있던 내면의 기운(氣運)을 조선왕권의 입맛에 제단하기 위해 화기(火氣)산으로 바꾸기 위한 그럴듯한 풍수론이 필요로 했다. 그리고 '승암산의 거친 화기 때문에 전주에서 인물이 나지 못하고 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전언으로 전라관찰사 이서구는 더이상 억울한 민초가 생기지 않도록 이중전략을 펼쳐내었던 것이다.



김상휘 박사 [한국예술문화명인 풍수지리부문(2016)]

소설가, 풍수학자, 한국문화예술교육원 교수,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한국예총 대외 협력위원장,
전북소설가협회 명예 회장

저서 : 풍수기행 모악산, 풍수담론, 정감록 십송지,
도시개발풍수론, 건지산풍수론, 정읍 풍수론,
승암산 풍수론, 운주사 풍수론 등 다수

수상 : 예총예술문화상 대상(2015),
예총예술문화상 국회의장상(2016) 등 다수

안방마님과 사랑방머슴의 눈빛 속에

- 섬·등잔 속 숨은 이야기 -



글_물레 정인관(예술세계 편집위원)

날줄 씨줄로 엮는 섬(가마니)

깊어가는 밤 그믐달이 애슬나무 가지에 걸터앉아 있을 때 지붕에는 하얀 눈이 술술 내리고 안방에서는 안방마님의 바느질에 호롱불이 간들거리고 옆방에서는 도련님의 논어 위정편(爲政篇) 공자의 말씀 읽는 낭랑한 소리가 귓가에 들리고 사랑방에서는 동네 머슴들의 새끼며 망태 엮는 소리에 손가락이 분주하고 사랑 뒷방에서는 부자간에 가마니 치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생동감 있게 엮어가고 있다. 저녁밥을 먹은 머슴은 짚을 대어섯 묶음쯤 추슬러 머리 쪽에 물을 축축이 적셔 놓았다가 밤이 오면 주인어른과 가마니를 짜기 시작하는데, 하룻저녁에 네다섯 가마니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 한두 가마니를 짜고 나면 조반을 먹고 돌로 나가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다가 저녁 해 즈음에야 지게에 바작을 끼고 풀 한 짐을 담아 고삿길을 들어서 집에 온다.

머슴살이야 어찌 편할까마는 그래도 운동 삼아 일을 열심히 하는 마당쇠 머슴이요, 언제나 식욕이 좋아 배불 뚫이요, 잠은 돼지 코요, 방귀는 10년 켜는 시궁창이요, 그래도 언제나 웃고 사는 팔자 좋은 마당쇠라 이 아니 좋을 끼고.

이것은 요사이 건강비법이 3쾌라 하는지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잘자고, 이것처럼 더 좋은게 어디 있을까. 오늘도 머슴놈은 주인마님께 칭찬 들어가며 낮이면 발갈이 하고 밤이면 가마니 짜는 것이 낙(樂)이니라.

가마니 짜는 요령은 벚짚으로 가늘게 새끼를 꼬아 날줄을 걸고 짚을 씨줄로 하여 가마니를 치는데, 두세 명이조를 이루어 짠다. 두 명이 할 경우에는 바디질과 바늘대질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는데 세 명이 할 때가 역시 빠르다. 두 명이 할 때는 바디질을 한 사람이 짚을 들고 있다가 바늘이 오며 짚을 거기에 물려주고 난 뒤 철커덕하고 친다. 형태는 굵고 두툼한 나무토막에 정방형의 틀을 짜거나 또는 한쪽의 가로대를 설치하고, 양쪽 토막에 기둥을 비스듬히 세워서 그 끝에 도리(둥근 나무)를 가로로 끼운다.

머슴살이 삼년 만에 가마니 만드는데 한 세상 보내니 쌀, 보리, 콩, 감자, 고구마 모두 가마니에 담아 모든 곡식을 퍼들었으니 가마니 한 타령이나 한번 해보더라고.

씨줄 날줄 띄워 놓고
-가마니 틀



가마니틀

사랑채 윗방
썰렁한 문바람
고드름에 문 그리메 드리우고
가새 머리 갈래에
날로 한 발
씨줄 한 발 엮어서
민들바위 참기름 내음
보디 바디에 줄줄 흐른다.

날줄 밖 한 줄 밀어 넣고
씨줄 안 두 줄 띄우면
한 코 두 코 밀고 당기고
돛자리 가마니 엮는 인생
물보라빛 새들어 오는 구멍
하루 아침내기 한 섬내기 만든다.

부엌이 울어 예는
서릿발 내리는 밤
소죽 끓여 놓고
짚단 물 죽여
주인과 머슴 숨소리 죽이며
밀고 당기고
올리고 치고 열 섬내기
소슬스러운 밤 가마니가 쌓인다.



가마니틀의 명칭을 보면,

- 바탕 - 가마니틀의 기본을 이루는 나무토막으로 이것
이 중심을 잡아준다.
- 가로대 - 바탕의 두 사이를 고정시켜주고 노(새끼)가
아래로 돌려 걸쳐지게 하는 역할도 하는 바
탕 받침이다.
- 기둥 - 양쪽 바탕에 비스듬히 박아서 도리를 가로로
끼우는 나무이다.
- 도리 - 양쪽기둥 위에 가로로 끼워서 노가 감겨 넘어 가
도록 된 가로대이다.
- 버레 - 가마니 노를 세로로 걸면 줄이 탕탕하도록 놓
아 기둥의 뒷부분 사이에 버팀목을 끼워 내리
는 것을 말하며 조임대라고도 한다.
- 바디 - 참나무 박달나무 등 단단한 것으로 노를 꺾어
다져서 가마니를 짜는 기구이다.
- 걸대 - 가마니틀에 노를 걸 때 밑바탕의 가로대와 위
쪽의 도리를 감아 돌린 새끼를 걸대에서 연결
시켜 고정시키는 대이거나 나무작대기이다. 달
대, 날대 등의 이름이 있다.
- 바늘대 - 가마니를 칠 때 날의 벌어진 사이로 짚을 밀
어 넣거나 또는 걸어 당기는 기능을 갖는 대
로 만든 바늘대이다.

가마니는 벚짚으로 새끼를 꼬아 날을 만들고 짚으로 씨를
넣어 짠다. 바늘대로 밀어 넣고 나면 바디로 내려치면서 튼
튼하게 씨줄과 날줄 사이를 엮어 가마니만큼 크기를 만든
다음 가마니 쇠바늘로 양 옆을 고르게 꿰맨다. 그 다음 입
부분에 날이 나와 있는 새끼를 홈을 쳐서 풀여지지 않도록
엮어 맨 다음 안쪽은 짧게 바깥쪽은 길게 하여 곡물을 넣
은 다음 바깥쪽 긴 부분으로 덮여씌운다. 때로는 벼 공판할
때 소금을 싣고 다닐 때, 제방을 쌓을 때 많이 사용한다.
지금은 가마니 대신 마대자루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가
마니를 보기가 힘들다. **가마니는 원래 일본에서 들어
온 말이다. 우리말로는 섬, 맥, 맥서리라고 한다. 일
본은 쌀을 수탈하는 도구로 가마니를 많이 사용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아놓고(불쌍
한 민초들) 가마니 짜기 대회를 열어 가마니를 많
이 짜도록 하는 방법이었고, 그 가마니로 많은 물
자를 수탈해간 것이다.**

그런데도 요사이 민속관련 축제나 전시회에서 가마니 짜
기 대회를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가마니란 말을 쓰
지 말자. 전시장에서도 가마니라 이름 붙이지 말고 '맥'이나
'섬'으로 사용했으면 한다. 일본말을 쓴 것이 한 두 개가 아
니겠지만 "쌀 한 가마니는 몇 kg이요" 이런 말도 쓰지 말
자고 말하고 싶다.



섬(가마니)



1963년 가마니짜기 대회

가마니에 곡물, 즉 보리, 나락, 감자, 고구마, 소금 따위를
담는 짚으로 만든 그릇이다.

등잔과 초롱등불

등잔, 등잔불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따뜻한 우정,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다가 학교에 갔다 늦게 와서도 밤이 되면 식구들이나 동네 친구들이 기약도 없지만 등잔불 밑에 모여 풍덩 실도 해보고 옛날이야기도 들어보고 슬픈 일이나 즐거운 소식도 나누었던 추억거리들이 많이 있다.

하루 일에 시달려 고달프더라도 저녁밥을 먹고 이웃 방앗간집 뒷방에서 등잔불을 가운데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때가 정말 즐겁다. 힘들었던 하루의 피로가 풀리면서 다시 내일을 기약하고 다시 등잔불 밑을 그리워하는 농촌 샘골 마을이 그림자.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바로 등잔불 밑의 모임놀이이다.

등잔은 기름을 담아 불을 켜던 용기(用器)로 전기의 대중화 이전까지 우리의 생활에 가장 긴요하게 쓰였다. 토기, 도기, 청자, 백자, 옥석 등 불연소성(不然消成) 소재로 만들었던 등잔은 종지형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고 지난 50년대는 양철판을 이용해 만든 것도 생산되었지만 크기는 직경 5~7cm, 높이 5cm 내외가 보통이었다. 그러나 지름 15~30cm, 높이 10~20cm의 큰 것도 있었으며 대형 석등잔은 철사로 고리를 만들어 들보에 달아 사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솜을 꼰

것과 삼실을 사용했다.

등잔의 원료는 식물성 기름인 참기름, 콩기름, 면실유, 피마자유 등과 동물성 어유(魚油), 경유(鯨油), 국기름(소고기국이 식었을 때 생기는 지방) 등을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화기 이후에는 석유가 수입되며 이를 원료로 쓰기 시작, 호형과 탕기형 형태의 등잔도 생산되며 뚜껑을 덮는 폐쇄형이 나오기도 했다. 등잔불은 시골집 미닫이 문이나 창호지 문을 여닫을 때 가볍게 일던 바람에도 잘 꺼지는 단점이 있었고, 나뭇단을 묶기 위한 새끼 등을 꼰 때 간혹 짚 끝이 등잔을 스치며 불이 꺼지기도 했다. 또한 어려운 살림살이의 어머니 함숨에도 소리없이 꺼지기도 했지만 어둠 속을 더듬거리려 성냥을 찾아 또다시 불을 밝히면 그래도 쉬지 않고 새끼를 꼬시던 주름진 할아버지의 손길이며 바느질에 지친 어머니의 손끝과 바늘 끝을 지켜주는 가정의 또 하나 작은 태양이기도 했다.

때로는 기름이 없어 옆집으로 빌려러 가기도 하고 공부하다가 잘못해서 등잔을 엎으면 기름이 다 쏟아져서 밤새 불 없이 그냥 잠만 자야 할 때도 있다. 그레 오일장날이나 되어서 기름을 사다가 불을 켜기도 하였다.

여기 등잔불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

간드러지는 불빛에 그림자 남고

- 호롱불

늙은 여우가 울고 간 자리
부엉이 불 켜 들고
문바람 따라 우후후 우후후
울고 울어

애태우는 초롱불 몸짓이야

아낙군수 무릎에 바람 들어올 때
숨바지 생각에
시집간 딸 소식 전차 하고
긴 밤 편지 쓰노라면
간들거리는 호롱불에
임 그리워 그 얼굴 떠올리네

허리가 지끈, 팔목이 시큰
온 몸이 녹아나는 시집살이
새벽녘이면 당그레질부터
소쩍새 울어대는 으스스한 밤까지
희미한 눈빛 검스름한 뒤안길
사랑방 다녀온
널판 같은 서방님

입김으로 호롱불 끄고
가슴으로 가슴으로
고요한 밤 창가에 달빛 젖어
달콤한 숙살 웃음소리에
사랑받는 여인이여



호롱불



등잔

때로는 겨울밤 잠이 들기 전, 형과 누나 모두 이불 속에 누워 뒷목에 놓인 등잔불을 입으로 불어서 끌 때면 여린 입김이 미치지 못해 가위 바위 보로 불끄기 술래를 정하는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또 등잔불을 켜 둔 채 잠든 개구쟁이가 몸부림으로 등잔을 차는 바람에 초가삼간이 불타는 사건도 간간히 발생했다. 하지만 등잔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였다. 때문에 어른들의 등잔불 아끼는 마음은 무엇에도 비길 수 없었다. 낮에 친구들과 어울려 딱지치기, 구슬놀이, 팽이치기 등 놀이에 지쳐 저녁밥술 농기가 바쁘게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던 개구쟁이가 어찌다 시험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하여 밤늦게까지 불을 밝힐 때면 할아버지는 “기름 닳는다, 불 꺼라”며 호통 치셨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노닥거리는 머슴방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도 할아버지의 호통은 어김없이 들려왔다. 전기사용료나 촛불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측면의 등잔불, 할아버지는 기름이 아깝기도

했지만 밤잠을 설친 아이들이 다음날 농사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등잔불 아래서는 덜 익은 닭고기도, 설익은 감자도 이구동성(異口同聲), 천하일미(天下—味), 먼동이 틀 무렵까지 등잔불 아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석유 등잔의 그늘음은 모두의 코 밑을 새까맣게 만들었고 때로는 코 밑에 그려진 카이젤 수염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짓기도 했다. 이처럼 등잔불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따뜻한 우정,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갔고 또 돌아오는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다시 만나자는 무언의 약속과 함께 우리 삶의 활력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지난 70년대 초,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까지 전기가 보급되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 70년대 중반을 고비로 완전히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아래의 추억을 간직한 세대들은 그들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속에 얹힌 갖가지 추억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등잔은 벽걸이나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있으나 등에는 다양한 것이 많다. 특히 4각이나 8각으로 만든 창호지등이 있다. 불그스레 비치는 모양이 아주 해맑고 밝은 모습이 아름답게 비치는 초롱등불이 있다. 초롱등불 안에 넣어 놓으면 바람에 꺼질듯 말듯 하면서 간들거리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 특히 부자집 마님이나 규수를 밤길에 안내할 때는 언제나 앞장을 서서 길 안내 해주며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 초롱등불이다. **초롱등불은 자주 색과 창색으로 드리워 환히 비친 천으로 만들어 관가나 양반집 잔치날 대문에 걸어 놓았었다.** 색종이를 이용하여 만드는 등에는 수박등, 마늘등, 연꽃등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 칠성등, 일월등, 방울등, 가마등, 학등, 잉어등, 거북등, 연등들이 있다. 초파일이나 관가에 경사가 있거나 집 안에 행사가 있을 때에 길가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천하를 밝혀 주었다. 하늘의 보름달과 만들어 걸어 놓은 등에 대하여 노래 한번 들어보자.

얼종덜종 호랑등은 만첩 청산 어디 두고 저리공중 걸렸느냐
물색 종다 초록등은 황새 장사 어디 두고 저리 높이 걸렸느냐
꼬부랑 꼬창 새우등은 얼멍이 구멍 왜 마다 하고 저리 공중 걸렸느냐
목 길다 황새등은 노를 밟을 왜 마다 하고 저리 높이 걸렸느냐
목 짧다 자라등은 사지를 어디 두고 저리 공중 걸렸느냐

등을 만드네 등을 만드네
수박등 마늘등 연꽃등을 만든다네
칠성등 일월등을 만들면 길복이 온다네
병등 방울등은 누구 위해 만드네고
배등 가마등은 님을 위해 만든다네
학등 잉어등 거북등은 나라 위해 만든다네
하늘 나르는 연등을 만들어
동산에 걸린 달을 따라가세

다양한 등의 종류에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석류등, 수박등, 마늘등을, 무병장수를 위한 학등, 입신출세를 위한 잉어등을 만들었다.

등의 이름에는 수박등, 마늘등, 연꽃등, 칠성등, 오리등, 북등, 누각등, 난간등, 화분등, 가마등, 머루등, 봉등, 학등, 잉어등, 거북등, 자라등 수북등이 있는데, 모두 그 모양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 모양에 따라 생김새가 들어있다. 등 이름만 해도 40여 종에 이르며 그 색깔과 모양이 매우 다채롭다.

조를 만들고 그 위에 종이를 바르거나 불고 푸른 비단을 바르기도 하고, 평평한 면과 모가 진 곳마다 삼색의 돌돌만 종이나 길쭉하여 바람이 불 때는 펄럭이는 문풍지가 매우 멋있다. 북 모양의 등에는 장군이 그려져 있다. 위에 얹어진 여러 전통 등 중 현재 새롭게 재현된 등이 수십여 가지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창작 등도 많이 제작되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즐길 수 있게 모양새를 주며, 보는 이로 하여금 동감이 가도록 하였다.



정인관

1987년 「예술계」 시 등단

예술시대작가회 6대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강 맑히기 문화시민회장, 은평 셋이서 문학관장
운동주 문학상 수상
저서 '물레야 물레야' 외

알고 즐기자 문화콘텐츠!

반복되는 문화콘텐츠의 노스텔지아 복고, 융합으로 새로움을 더하자!

가수 싸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집중조명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90년 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가 새로운 문화와 우리 문화의 접목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또 그를 성장시킨 유학생활이 있었으리라 판단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융합을 위해서 반복되는 복고문화 현상을 재조명 해본다.

글_진중운(문화평론가)

복고문화 열풍의 배경

이제 경제력만이 국력을 말해주는 시대는 지나가고 문화강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문화명소가 도시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문화의 파급력이 그 나라의 이미지는 물론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눈앞에서 보고 체험하고 있다. 한류의 성공적인 출발로 인해 우리는 계속 무언인가를 만들어 내려는 강박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성공적인 행보가 달콤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콘텐츠의 원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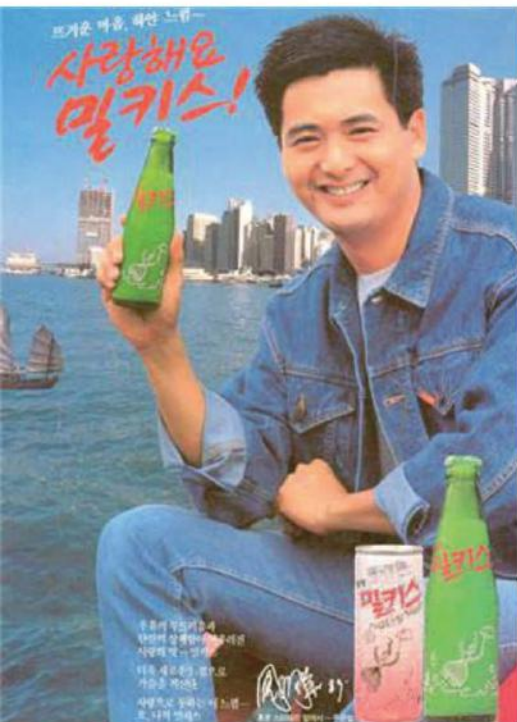
시대를 풍미했던 홍콩 영화배우 주윤발과 장국영의 영화들.

왼쪽부터

- 〈천혈쌍웅(喋血雙雄, 1989)〉
- 〈용호풍운(龍虎風雲, 1987)〉
- 〈장단각지연(長短脚之戀, 1988)〉
- 〈대장부일기(大丈夫日記, 1989)〉
- 〈영웅본색(英雄本色, 1989)〉
- 〈전녀유운(倩女幽魂, 1987)〉
- 〈위니중정(爲你鍾情, 1985)〉
- 〈패왕별희(霸王別姬, 1993)〉



싸이 이전에 우리는 홍콩 배우 주윤발과 성룡, 왕조현의 영화에 열광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영화관도 주말이면 새벽까지 영업하고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자신만의 문화생활을 즐기지만, 그 시절 우리는 설날 연휴 특집 프로그램인 홍콩영화에 열광했다. '좋아하는 홍콩 배우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언제 하나까 그때까지는 꼭 집에 들어가서 봐야 한다'는 등 스케줄의 중심이 TV 프로그램이었던 때였다. 그 당시 홍콩영화는 양강체제로 기억된다. 생활 속 액션을 주도하던 성룡, 그리고 충격신과 동료에 대한 사랑을 다뤘던 주윤발로 나눌 수 있다. 성룡의 액션에서 나오는 무술 동작을 흉내 내고 주윤발이 성냥개비를 물고 다니던 모습을 흉내 내던 기억이 난다. 아직도 복고 TV프로그램에서 주윤발의 광고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음료 광고를 하던 그의 어눌한 "사랑해요, 밀키스!"라는 대사가 아직도 생각 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



배우 주윤발의 밀키스 광고는 1989년 외국인 출연 금지가 풀린 후 최초로 TV에 방영된 광고이기도 하다.

성룡, 주윤발이 나오는 액션 영화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아니 그들의 문화가 맛있고 부러워 동경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때는 홍콩이 많은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였고 우리보다 더 개방된 나라였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의 관심을 받지만, 그때의 홍콩은 우리가 꼭 보고 싶었던 곳일 정도로 홍콩 영화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방송사가 홍콩에서 개최한 시상식 방송을 본 적이 있었다. 가수 싸이가 출연해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윤발이 무대에 올라 싸이와 노래를 함께 부르며 율동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영웅'인 싸이와 같이 나와 춤을 추다니, 우리나라 문화가 정말 세계적이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좀 구식으로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주윤발은 멋졌다. 지금까지 주윤발이 등장만으로도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장국영이 생의 마지막을 보낸 호텔에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회상하는 것도 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어려움을, TV에 비친 얼굴만 봐도 행복했던 그때의 즐거움으로 달래는 것 아닐까.

80~90년대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

우리나라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라 불릴 만한 1990년대의 'X세대'문화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 X세대였던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문화를 소비해 온 주체로, 어느덧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해 구매력 있는 소비 계층으로서 90년 대의 문화를 추억하고 있다. 영화 <건축학 개론>을 시작으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까지, 현재 가장 핫한 대중문화 코드는 90년 대에 맞춰져 있다.

얼마 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6년 만에 재결합 무대를 가진 가수 잭스키스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동시시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한 아이가 잭스키스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차라리 아빠의 나쁜 얘기를 하라는 엄마의 대답이 황당했다'는 경험담이 있을 정도로 예전 잭스키스 팬들의 팬심(fan+心)은 대단한 것 같다. 요즘은 유독 예전 아이돌들의 인기가 다시금 높아지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계속적이고 전반적인 불경기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지금 현재의 생활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예전의 추억을 회상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콘텐츠의 질과도 연관이 있다. 지금의 주 소비계층인 30~40대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80~90년 대의 콘텐츠에서 더 많은 감성적 위안을 얻는다. 그때의 젊은이들이 지금의 주 소비 계층으로 변화했다는 이유도 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의 '응답하라'시리즈는 복고 열풍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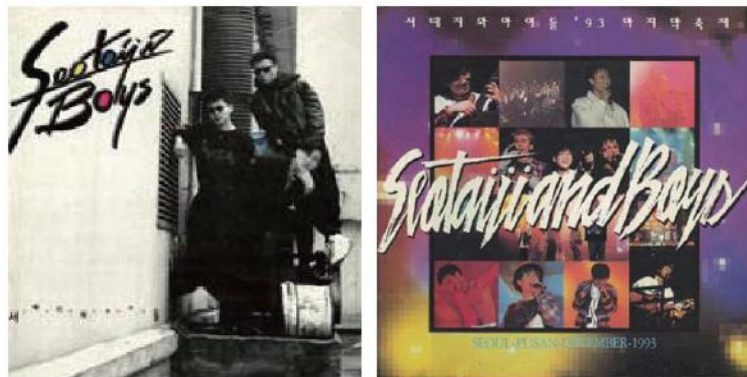
연제나 '영원한 우리들의 오빠'라는 수식어가 붙는 가수 조용필과 전영록. 두 가수 모두 최근까지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스타는 우리 생활에 사소하고도 깊게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 환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에 대한 반응에 놀라기도 한다. 1980년 대, 정권의 선전도구로서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국풍 81'이라는 대규모 이벤트가 관(官) 주도로 진행되면서 대중들은 가화된 관 주도의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유신의 마감과 등장한 스타가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폭넓은 수용층을 형성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때부터 스타를 오빠라고 부르는 '오빠 부대'가 등장했다. 그의 히트곡 '비련'의 첫 구절 '기도하는'에 이어지는 여성 팬들의 '악'하는 비명(?)은 지금도 리액션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조용필은 그 때부터 '가왕'이었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도 팬덤(fandom)을 형성하였으며, 가수인생 48년이 되는 지금도 팬들과 만나는 체육대회를 기획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0년 대 하면 가수 전영록도 빼놓을 수 없다. 홍콩 배우를 연상시키는 '몸짱'가수. 조용필처럼 어떤 가사에 반응하기 보다는 파워풀하면서도 감미로운 선율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부르는 공연장 분위기를 연출한 첫 번째 가수였을 것이다. 전영록의 '저녁놀이'는 가수가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팬들이 주도하거나 같이 '떼창'(관객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가리키는 은어)하는 노래의 첫 번째 대표곡이었다. 80년 대의 팬덤을 형성한 팬들은 그들만이 공유하는 스타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여가를 즐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운동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긴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1990년 대의 대표적인 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수 서태지일 것이다. 민중 문화로 대표되는 저항과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 이완의 공간을 마련해 줄 무엇인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바꿔 놓은 이가 바로 서태지이다. '난 알아요'를 따라 부르지 못하고 당황하는 세대와 그것을 따라 부르며 즐기는 세대 사이의 경계가 확인되었으며, 서태지의 세대는 '신세대'라 불리기 시작했다. 서태지는 파

1992년 데뷔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담론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영화 <국제시장>은 고단했던 시절을 지나온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며 한국 역대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했다.

격적인 의상과 헤어스타일, 노래로 시대를, 대중문화를 주도하며 '문화 대통령'이라 불렸다. 사회문제를 담은 음악을 만드는 행태, 기성세대와의 차별성을 두려는 의도에 '신세대'들이 부응했으며, 지금도 가끔 신곡을 발표하는 그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팬들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은 대단하다. 90년 대는 스타가 출연하는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해 밤을 새우며 기다리는 팬이 나타났다. 스타의 숙소에서 그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기다리는 팬들이 주변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는 일도 있어 스타가 숙소를 옮기는 상황도 발생했다. 더 극성인 팬들은 숙소에 잠입하거나 지나치게 비싼 선물을 보내 스타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이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복고열풍의 이유, 융합!

우리는 왜 복고, 즉 예전의 콘텐츠에 열광하는가? 그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현재의 콘텐츠 완성도가 떨어지고 미래의 콘텐츠 흐름을 예상하기 힘들어서, 현재의 트렌드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콘텐츠를 융합하려는 시도에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본다. 복고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지금도 일어났고 예전에도 일어났으며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복고를 어떻게 '재창조'하려는가가 문화의 진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 흐름이 지속하는가 아니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경제침체기와 불황에 일과 생활에 쫓겨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날로그 감성을 지닌 복고문화가 따뜻한 향수와 편안함을 선물하며 행복을 안겨주고 복고는 단순히 추억회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위안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크게 흥행한 영화 <국제시장>은 '평범한 아버지를 위한 이야기'라고 평가받는다. 무한한 사랑을 지닌 '어머니'로부터 콘텐츠의 코드가 옮겨갔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국제시장>의 배경이 되었던 예전처럼 지금도 힘든 시기가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딱딱한 사회에서 우리가 기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과제를 남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국의 음악평론가 사이먼 레이놀즈가 "2000년대는 재(再·re)가 지배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문화계 전반에 걸쳐 재발매·재가공·재연 등의 복고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복고는 새로운 콘텐츠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문화콘텐츠로부터 느끼는 지루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위해 회귀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또한, 미래에 대한 예지력에 기대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콘텐츠가 되기 위해 옛것과 지금의 것이 융합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복고는 지금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예전 그대보다는 좀 다르게 표현되고 향유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느낌은 개인마다 다르고, 새로이 충족되는 감정도 제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현세대는 더욱 복고에 열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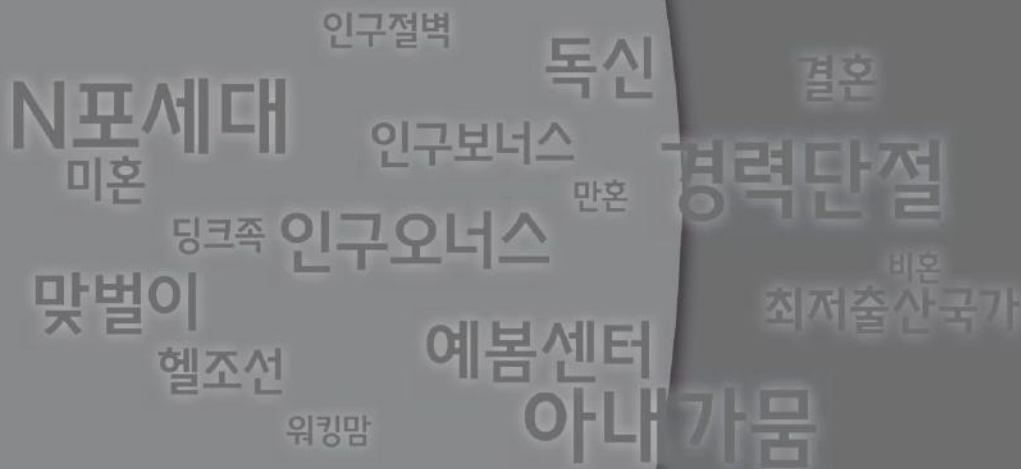
복고문화를 올바르게 소비하는 방법

복고를 통해 우리는 세대 간의 역사사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보고, 부모님 세대들은 요즘 세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콘텐츠를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 화해를 끌어내는 것이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개봉될 복고소재의 영화를 세대 간 다른 시각으로 감상하고 추억하며 현재를 힘차게 살아나가는 동기로 삼기를 바란다. 그 시절의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미래의 콘텐츠를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복고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발전할 것이며, 그 전상에서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와 예술인 복지

글_한상림(한국예술 전문위원)



저출산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곤궁함으로 '인구절벽' 현상과 고용 불안, 높은 주거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꿈 꿀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직장여성은 유리천장과 육아휴직 등, 맘 놓고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경력마저 단절되고 만다. 거기에 임신을 하면 마치 죄인 취급을 하는 직장 문화와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 때문에 불신만 커져간다. '헬조선'이라는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표현에 현실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따라서 애를 낳고 살아도 살만한 환경의 나라가 되도록 조성해야만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워킹 맘을 위한 '일과 가정' 양립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N포 세대'(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20~30대 청년층)에 이어서 딥크족(Double income, No kids), 즉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0년째 약 1.25명 수준으로 세계적 최하위권으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 인구절벽시대에 직면하였다. 전체인구 중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시기를 '인구 보너스',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시기를 '인구 오너스'라고 하는데 '인구 보너스'시기에서 '인구 오너스'시기로 급격히 진입하는 것을 인구절벽이라고 한다. 따라서 2016~2020년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을 앞두고 앞으로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이용시간 : 화~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8시

* 오전 9시 ~ 11시, 오후 8시 ~ 10시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하루전까지 사전예약

이용대상 : 예술인자녀 24개월 부터 초등 6학년

예술인 소모임 공간 무료대관

문의 : 02-3143-1919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70-30

한국전쟁 이후 한 가구당 5-6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이뤘던 5-60대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던 1970년대에는 가족계획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다. 가난을 극복하고자 펼친 정책이 결국은 3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미혼, 만혼, 독신, 비혼 혹은 딩크족만 늘어났다.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80조 원을 투자하였지만 엉뚱한 곳에 쓰면서 저출산 기조는 더 심해졌다. 결국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3차 계획으로, 2020년까지 일자리 창출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공급, 맞벌이부부 세금감면 등, 장기목표를 세워 2020년에 1.5명, 2030년에 1.78명, 2045년에 2.1명을 도달목표로 하는 '브릿지 플랜 2020'을 내세웠다. 출산율과 청년고용,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을 높이고, 노인 상대 빈곤율을 낮추려는 계획이지만 과연 실요를 거둘지도 의문스럽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평론가 애너벌 코랩은『아내 가뭄』(The Wife Drought)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을 주로 하며 배우자를 지원하는 이를 '아내'라고 하였다. '아내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처럼 아내가 드물거나 적거나 부족하다는 뜻이다. 즉 남자는 아내가 있지만 여자는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보통의 남자 사회인과 다르게 여자는 집에서 가사를 도와줄 아내가 없다는 노동의 불평등을 말한다.

다산하면 애국? 하지만 사회분위기는 일하는 엄마에게 너무도 차갑다. 육아와 가사를 여성이 해야만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아내의 역할을 부부가 함께 나누면서 육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장 맘을 위한 배려와 직장에서 아이를 맡기고 맘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아시설과 정책을 국가에서도 마련해 줘야만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를 통하여 시간제 보육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음악실연자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마포구지역에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시설인 “예봄센터”를 개소하였다. 예봄센터(예술인자녀돌봄센터)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평일 저녁, 주말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맘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나은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연구발표 _ 발표자: 목영봉(명인 제14-1110-26호. 목공예_향토조각)
향토목각의 형상고찰과 맥
기간 | 2015년 10월(금) 15시 장소 | 서울 목동 소재 대한민국



민중의 문화가 깃든 한국 향토조각

월당 목영봉 명인

전통이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전통을 원칙으로 한 창작은 전통 보존의 밑거름이다.

온전한 전통예술문화는 수없는 혼신의 창 의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전통을 기본으로 재현하고 창작하는 것이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문화가 세계화되는 초석이다.

취재 · 정리_허욱(한국예총)



▲ 한국의 정신

한국의 향토조각인 장승의 형상을 주제로 한민족의 끈기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조각하였고 아래부분에는 한국의 정령인 도깨비문양을 조각하여 한국의 얼을 표상했다. 채색은 4방색인 청(동), 백(서), 적(남), 흑(북)색을 사용하여 인의예지의 민족사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예로부터 장승은 마을 초입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마을에 침입하는 잡귀를 막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 해마다 음력 정월 열 나흘날 '장승제'를 지내며,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승을 새로 만들고 음식을 준비해 제사를 지내는 등 마을 축제를 벌이곤 하였다. 이렇듯 우리의 삶 깊숙이 뿌리내린 장승과 솟대의 역사는 어디에서 비롯 되었을까? 지금까지 민중과 함께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것, 한국 전통향토조각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월당 목영봉 명인은 30여 년 넘는 시간동안 끈질기게 연구에 매진하여 왔다. 우리의 유일한 향토조각인 장승과 솟대를 민중문화 예술로 재조명하고 조형미술로서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있는 월당 목영봉 향토조각 명인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국적 미를 찾아 떠난 명인

목영봉 명인은 우리의 전통 목조각 발굴과 재현을 위해서 1980년부터 전국을 탐방하여 자료를 찾았고, 세계의 토종 전통 목조각 실태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 해외 오지탐방 연구에 열정을 쏟았다. 1996년 향토목각이라는 명칭으로 장승과 솟대를 통칭하여 교육원을 개설·운영하였으며, 교재로 사용하던 자료를 근거로 2013년 「한국 향토목각의 기초」를 시작으로 「한국 향토목각의 조각기법」, 「한국 향토목각의 창작과 재현」을 차례대로 발간하였다. 목영봉 명인은 저서 발간을 통해 향토목각 부문의 교육 용어를 통일하였고, 체계화된 교육으로 잡기가 아닌 전통문화로 그 기능이 정립되고 학술적으로 전승되도록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장승과 솟대는 선사시대 이전부터 이 땅의 토종문화로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독립된 예술성을 갖춘 전통문화로서 전승과 보존의 가치는 너무나 충분하며, 이 땅의 고유한 민중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제대로 보존되고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명인은 향토 목조각도 귀족문화였던 불교무형문화처럼 전승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

신라권에 편중된 예술문화의 발전사

대한민국의 예술문화의 발굴, 보존, 재현, 융성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예술문화는 신라권에 편중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백제권의 발전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백제권이라 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지방이다. 고구려 권역은 북한에 해당되므로 현실적으로 발굴과 재건은 어렵지만, 백제권의 예술문화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발굴 계승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백제 문화권에는 돌장승(石長姓)과 돌솟대(石竿)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돌장승에서는 향토목각(장승)의 인면적 형상을 찾아 볼 수 있어 원형에 가까운 형상으로 재현하는데 좋은 사료로 쓰인다.



세계각국의 목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월당문화전시관

우리가 몰랐던 장승과 솟대 이야기

현재 전국 곳곳에서 제작되는 장승은 원래의 형상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누군가 제작해 놓은 것에 의존해 모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장승의 의미와 형상은 어떠했을까?

원래 형상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자료로는 영호남 지방의 오래된 돌장승(벽수)과 돌솟대(석간)에서 한국 향토조각 형상의 유전자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 향토조각의 원래 형상의 장승은 위엄이 있었을 것이다. 솟대 위의 형상인 새는 고대부터 신성시하던 오리임을 알 수 있다. 영호남 지방에 남아 있는 돌장승(벽수)의 모습에서 믿음에 가는 형상을 느낄 수 있으며 돌솟대(석간)에서는 석간 위의 형상이 모두가 하나같이 오리 형상이다. 솟대 위에 형상이 오리라는 근거는 문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향토조각 문화의 쇠퇴기는 BC 500년 경부터 삼국시대에서 신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면서부터이다. 불교, 유교는 BC 500년 경부터 도교는 BC 300년 경부터 한반도에 유입하게 되면서 기득권자들은 새로운 신권으로서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의 문화재는 불교 문화권에 있다는 것만 보아도 통치자들이 불교문화에 국권을 빌어 동반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 찬란하고 왕성했던 장승·솟대 문화는 2,500여 년 동안 외세의 영향력으로 가난뱅이 민초들의 문화로 전락하여 변이되어 가면서 민중들에게 명맥만을 유지되어 왔다.

초기에 장승·솟대의 형상은 장엄한 형상이었을 것이고 기능과 역할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였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 또는 국가보다 작은 부족(공동체)의 결집을 위한 상징성이 있는 조형이었던 것으로 추정 해본다. 한국의 향토조형인 장승과 솟대는 외래 종교에 떠밀려 우상이나 미신으로 전락되었으나, 훨씬 오래전부터 이 땅의 부족이나 마을단위의 결속을 위한 문화로서 뿌리가 깊었던 존재였던 것이다.

목영봉 명인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예술문화가
불교와 유교 등의 문화에 치우쳐
보잘 것 없고 하찮은 문화로 전락됨을
안타깝게 여기며 전통의 향토목각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가 운영하는 월당 문화전시관에는
그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적 창의성을 결합한 작품들이
가득 들어서 있다.

월당 목영봉

제3회 한국예술문화명인 향토조각부문
한국예술문화명인 목영봉 아카데미원장
불거리나라 대표

월당 문화전시관장
월당 한국향토목각교육원장
국제향토특수문화사업연구회장



▼ 한국의 혼

한국향토목각을 재현하여 창작한 백의민족 한국의 민족성인 혼(魂,) 맥(脈,) 령(靈)이 깃든 작품으로 한국의 인문철학과 홍익사상을 표현한 작품.



▲ 한국의 영

실내용 작품은 외부용과는 다르게 섬세하고 주제의 내용이 있어야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외부용이 역할을 한다면 실내용은 의미와 작품성이 있어야 한다. B.C. 8000년 전부터 이어온 한국의 전통 민중문화인 향토목각 문화를 창작품으로 한민족의 정신을 표현했다. 하늘, 새, 인, 오리를 문양 조각하였고, 한국의 혼이 배어있는 전통장승 형상을 가운데 구도했다. 또한 아랫부분에는 물을 다스리고 수(壽)와 부(富)를 상징하는 황용(黃龍)의 원태(原態)인 잉어를 조각하고 평화의 능력이 있는 연(蓮)을 함께 입체 문양화하였다. 색상은 인의예지 방위색인 청(동), 백(서), 적(남), 흑(북)색과 중앙은 잉어의 황색으로 상생하는 기운을 담아냈다.



▲ 향토목각(실내용) 사군자를 조각하여 연출한 작품으로 새롭게 시도한 창작품



목영봉 명인이 운영하는 파주 불거리나라의 작업현장

우리 예술문화의 상징,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효력갱신 과정에서 만난 명인들

글_김영미(한국예총 명인지원팀장)



한국예술문화명인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우리 곁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에는 유형의 것 외에도 무형의 자산들이 많지만, 예술문화 정책이나 제도 대부분이 유형의 자산을 유지·보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형문화재 관련 제도가 있으나 그 영역이 제한적이며 수많은 무형문화유산을 수용하기란 역부족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예총 한국예술문화명인 제도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년 마다 인증효력갱신이 이루어져 지난해 그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 인증효력갱신 과정을 거치며 명인을 위한 길은 무엇이며 우리 고유의 예술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한 서리 가득한 새벽길, 창밖으로 다가오는 아침햇살을 벗 삼아 1, 2회 명인들의 작업현장으로 떠났다.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다들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과업에 충실한 모습으로 반겨주었다. '인증효력갱신'에 대한 불만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심사위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진심어린 소통 덕분에 금방 경계의 벽을 허물고 동지애가 넘치는 상황들이 가는 곳마다 연출되었다.

"세월 참 빠르네요. 벌써 3년? 생업이다 보니 먹고살기 바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2013년 명인 인증을 받았던 명인들은 3년이 지나 인증효력갱신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인증효력갱신 실사에 나선 황의철 사무총장과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예총의 명인으로 활동하면서 지원이 부족했



던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명인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 명인들의 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함께 소통함으로써, 예총과 명인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마음을 결속시키고 공감의 팔을 벌려 다가설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명인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는, 그리고 협력의 장을 펼쳐갈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예술문화명인 제도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예술문화인들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던 한국예총은 한국예술문화명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고유의 예술문화를 위해 본연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분들의 지지와 함께 2012년 1, 2회 명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예술문화부문의 가치 조명과 강한 창작 동기부여의 중요과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인증효력갱신 제도는 한국예술문화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발굴·기록·인증과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효력갱신으로 가치를 재조명하여 3년 동안 스스로의 업적을 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실사가 거듭될수록 진한 감동의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고 '인증효력갱신'은 명인제도를 다지고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러한 간단치 않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술인으로, 장인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신뢰로 보상받는다는 깊은 뜻을 교감하였다.



물 같았다. 잔잔한 물결마냥 미세한 작업을 가느다란 손끝으로 해내는 과정을 보고 있노라니 나도 모르게 숨이 멈추어 버렸고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전승자로구나.' 싶었다.

명인 중에는 제자를 위해 연장을 내어 준 분도 계셨다. 손에 익지 않은 작업을 하다보면 작업하기가 힘들고 재미도 크지 않아 초보자들은 쉽게 싫증을 내기도 한다. 그런 점을 잘 아는 명인은 오랜 세월 사용해서 부드러워진 연장을 선풍 제자를 위해 내어 준 것이다. 장인이 연장을 내놓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제자는 스승의 큰 뜻을 잘 아는 듯 서툰 작업이지만 정성을 다해 임하였다. 여든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굳은 의지로 전승에 임하고 있었고 단 한명의 제자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할 줄 아는 분이였다.

경북 칠곡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인은 올 여름 화재로 전소된 것을 몇 달 동안 공들여 재건하였고 다시 온 힘을 다해 사업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국악기를 제작하는 명인의 강한 열정이 건조장을 꽉 채운 악기들 속에서 느껴졌다. 창고와 건조장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악기들은 우리 전통의 잔잔하면서 굼직한 힘의 소리가 귓가에 울려오는 듯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을 이겨낸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텐데도 스스로 명인제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악기 기증사업에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전통기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김천 방자유기의 혼을 잇는 이운형 선생님을 찾아

이운형 명인의 작업장을 방문했을 때 시야를 가릴 만큼 부연 공기에 멍혔다. 어두컴컴한 공장안은 비닐로 칸칸이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한 공정씩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통방식을 고집하는 명인의 굳은 의지는 왠지 마음 한 구석이 숙연해짐을 느꼈다. 전기사포를 돌리며 유기그릇의 광을 내는 작업과정, 미세하게 날리는 먼지들을 그대로 다 흡입하는 격이었다. 힘든 수작업의 전통기술! 산업화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고된 작업공정을 고집하는 것은 전통방식이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함께 실사를 진행했던 황의철 사무총장은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지원시스템을 안내해 주기도 하였다. 대부분 수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보니 추위와 같은 외부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작업 중 일어나는 문제들로 고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의 혼과 정성과 고집에 의해 전통의 유기 제조방식이 맥을 잇고 있고, 그 안에 멈추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은 작은 거인과도 같았다.

명인의 열정이 녹아있는 곳

명인들의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잔잔한 울림으로 남는 몇 곳을 소개해 볼까 한다. 현장을 둘러보며 감동적인 점은 경신 신청을 한 명인 대부분이 자신의 분야에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명인은 바쁜 일정에도 자신의 활동자료를 PT화하여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술문화인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열정을 필요로 한다. 자신의 작업에 열정을 다하며 자긍심을 갖고 이 시대 문화예술의 주역으로 우뚝 서고 있는 명인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승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들의 작업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햇살 좋은 날 방문한 곳은 서울 시내 한 자락에서 전통방식의 고집스런 기술로 은세공을 하는 분의 작업장이었다. 명인의 곁에는 15년의 세월을 묵묵히 도와주는 딸이 있었다. 말없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딸의 모습은 고요한 샘





치악산 자락의 부부 명인! 이성만, 김문정 명인의 열정

초겨울의 소박한 경치가 정다운 치악산 자락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자리 잡은 명인은 쪽 염색을 주테마로 운영하는 공방의 주인이다. 또 한 명의 주인은 공방을 공유하며 염색된 직물로 침선조각을 하는 명인이다. 두 명인이 서로 의지하며 아름다운 빚깔의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고 있었다.

차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코끝에 강하게 풍겨오는 특유의 염색 재료 냄새! 강렬한 냄새의 염색 작업장을 지나 내부시설로 들어서자 반기는 것은 한지실을 접목하여 짠 직물로 염색하여 만들어 놓은 의상과 소품들이었다. 그곳을 지나자 또 한 번의 놀라움! 재봉틀의 세계가 펼쳐졌다. 역사 깊은 것부터 모아 두었다는데 도대체 그 수가 얼마인지 헤아리기 어려웠다. 계단과 이층에는 '재봉틀의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의 재봉틀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한 편에는 베틀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명인은 이 베틀로 직접 한지실과 실크사를 이용해 직물을 짰다고 하였다. 그들의 고집스런 열정과 자신의 영역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명인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전통기술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어울리는 Good Idea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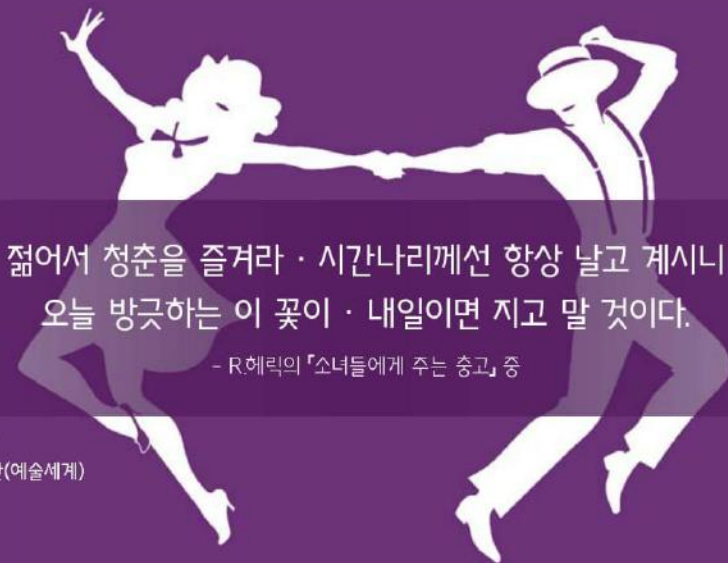
화마가 삼켜버린 곳에 핀 겨울을 녹인 꽃

지난 겨울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는 밀집된 대도시의 취약지가 줄 수 있는 경고, 그 이상의 의미였다. 채 수습되지 않은 상처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새벽부터 현장 곳곳으로 다니다보니 어느덧 캄캄한 밤, 9시가 넘는 시간이었지만 이병연 명인의 자수목공예 현장은 쌀쌀한 겨울밤이 무색하리만큼 훈훈했다. 명인에게는 20년 넘는 두 권의 금전출납장이 있다. 그 장부는 이병연 명인의 영업역사이고 거래처 신용등급 평가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노후우다. 명인은 그 거래처들 속에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거래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화마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거래처를 생각하며 자신의 물품상고를 털어 아무런 댓가 없이 거래처의 빈 창고를 채워주고 왔단다. 거래처 사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명인의 감동적 이야기는 겨울의 추위도 녹였다.

앞으로 한국예총에서는 명인제도의 체계적인 기반을 다지고 발전시키는 등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함과 동시에 명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명인제도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명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스윙댄스,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홀로 You Only Live once !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젊어서 청춘을 즐겨라 · 시간나리께선 항상 날고 계시니
오늘 방긋하는 이 꽃이 · 내일이면 지고 말 것이다.

- R.헤릭의 『소녀들에게 주는 충고』 중

글_문나래(예술세계)

사진_전승환 & 김재안(예술세계)

요즘 등장하는 신조어들을 보면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알 수 있다. 2017년 대세 신조어라 할 수 있는 네오싱글족, 포미족, S세대(S-Generation), 키포크족, 홀로족.... 이런 단어들이 당황스럽고 "에엣? 어느 나라 말? 아이돌 노래제목?"하고 반응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서울을 기회의 땅이라 부르는 젊은이들이나 일자리나 개인적인 자립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이들에게는 친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이 상관없이 솔로인 사람들이 후회 없이 즐기고, 사랑하고, 배우며, 문화생활을 홀로 혹은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다.

그들에게는 낯선 곳, 낯선 사람들과 소셜 모임으로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식사와 일상생활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사교적 모임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위안과 행복한 인생을 선물해준다.

생각해 보라! 낯선 곳, 아는 이 하나 없는 그런 곳에 주말을 혼자 보내고 퇴근하면 바로 집이나 거친 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스테디, 아님 퇴근 후 알바를 뛰고 있을 청춘들.... 팍팍하고 고단한 삶이 눈물겹다.

물론 우리 결혼 엄친아, 엄친딸이 꼭 있기 마련. "그 친구 딸내미는 대기업 다니면서 사내연애로 벌써 결혼 날짜를 잡았다."느니 또 어떤 집은 "준비 일 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등 부모님이나 친척어른들에게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어 낸 청춘 스토리만이 유효하다.

그럴 때 청춘들은 외친다.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라고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알차게 더 세련되게 즐기려는 청춘들에게 영화 <라라랜드>로 더 유명한진 스윙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Shall We Dance?



12월 31일 연말파티

스윙댄스(swing dance)는 소셜댄스(social dance)라고도 하는데, 사교를 목적으로 남녀 한 쌍이 추는 형식의 춤이라고 하면 부담감과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국내에 스윙댄스가 들어오고 동호회도 생기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춤과 모임을 가진지도 약 18년이 되었다. 가정의 작은 방에서 가족·친지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춤인 스윙댄스는 현대의 1인 가구의 '나 혼자 산다' 라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공간에서 일상과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회색도시 서울에서 캠퍼스라이프의 로망과 같은 활기차고 즐거운 매력을 주는 사교댄스이다.

이런 매력적인 소셜댄스, 소셜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윙댄스 동호회 '스윙패밀리(=스패)' 연말파티 현장을 방문해 시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스윙댄스와 스윙패밀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간단하다. 태생은 미국, 음악은 재즈로 캐주얼·경쾌함·자유로움이 매력인 춤이다. 종류로는 지터벅(jitterbug), 린디합(lindy hop), 블루스(blues), 부기우기(boogie woogie), 발보아(balboa) 등이 있고 이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린디합이며 스페에서는 지터벅과 린디합 과정을 배울 수 있다.

국내 스윙은 1999년도 쯤, 스윙패밀리는 2003년도에 시작되었다. 스윙패밀리는 비영리 동호회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하지는 않는 부담없는 모임으로 20~30대가 8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0년 전의 회원들이 꾸준히 활동하여 늘어난 나이 만큼 30~40대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토요일 강습과 목요일의 정기 모임이 주된 활동이고, 그 외 두달마다 졸업공연, 얼린스윙이라고 여의도에서 일반인들에게 스윙을 알려주는 행사 및 지속적인 파티나 워크숍이 있다. 스페는 학원이 아닌 동호회이기 때문에 잘 추어야 한다는 부담이 적어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고정된 파트너의 개념이 없는 오픈된 마인드가 학습되고 자유로운 춤을 추게 된다.

◀ 12월 31일 연말파티에서 리더와 팔워가 Hop(옴)을 맞추며 공연 중이다.

리더 : 리드하는 사람(남성, 여성도 무관)

팔워 : 리더에 맞춰 팔워링하는 사람(여성, 남성도 무관)

1 alone

춤이 사람들에게 주는 삶의 위안과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은 외롭다. 연대를 하고 싶고 소속되고 싶다는 점과 아직 보수적인 사회문화로 상사나 가족들 혹은 친구들에게도 자기표현을 할 시간이 없고 억눌려져 있다는 점에서 더 외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주어진 공간에서 한 곡 한 곡의 춤으로 자기표현,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여러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닐까한다. 소셜댄스는 건전한 놀이

문화라기 보다는 불건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미디어의 문제가 컸다. 막장드라마에 사교댄스장, 꽃뱅이나 제비 등 미디어에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다. 요즘은 점점 인식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댄서들이 진정한 소셜 + 댄스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건전하고 건강함을 모토로 예의 있고 바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스윙패밀리의 파티문화가 궁금하다

스윙패밀리의 파티는 다이나믹하다. 관람자이며 공연자의 역할이 정해지지 않고 유동적이다. 파티가 콘서트가 되고, 누구나 퍼포먼스를 하는 참여자가 되며,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추며 음식도 공유하는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연말파티는 일 년을 돌아보고 결산하는 자리로, 일 년 동안 기여한 멤버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 동안의 추억도 떠올릴 수 있는 '스패어워드'라는 컨셉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여러 전문 연습팀의 공연 및 2016년 다시 보고 싶은 강습생 공연팀과 게임, 어워드 시상 등으로 다양한 즐길 거리가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바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나?

스윙댄스는 자기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무대 위에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한다. 특히 스윙의 꽃! 가장 돋보여야하는 여성들의 경우 컨셉에 따라 의상과 소품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댄스 용품들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태반.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 운영진이 직접 물건을 모으고 판매까지 진행하여 투명한 바자회가 되었다. 수익금의 30%가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100% 기부하는 분들도 있었기에 전체 수익금의 50% 정도는 기부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리고 몇 칠 전 어린이재단에 적은 금액이지만 수익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운영진의 판매대행으로 진행되어 주기적인 행사는 힘들겠지만 한 번 더 진행할 생각이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앞으로 동호회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예술의 공유와 소셜모임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 스윙문화와 동호회는 침체기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경제침체, 젊은 층의 인구감소에 비해 동호회나 전문그룹팀이 늘어나서 회원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젊은이들 수는 적어졌는데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윙패밀리의 경우 평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 신입회원 뿐만 아니라 쉬고 있는(구회원) 회원을 활성화시키는 것 등 여러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윙댄스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팁을 준다면?

우리는 비교·경쟁문화를 버려야 한다. 다른 댄서들 보다 춤을 못 추는데 그들과 비교하고 나의 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시선을 버려야 한다. 이럴테면 한국댄서들이 외국에 나가 춤을 추면 아시아인 중 한국인이 제일 춤을 잘 춘다고 한다. 하지만 세계챔피언은 한국인이 없다. 왜일까? 도제식 교육으로 초·중급은 한국인이 제일 뛰어나다. 하지만 춤이란 것은 외우는 것일까? 실제로 나가서 춤을 추면 이것이 과연 스윙인가? 막춤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의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들의 춤은 스웨그(swg)가 느껴진다. 기능적으로 잘 추는 춤이 최고의 춤이라고 할 수 없다. 도제식으로 배워서 웰메이드(wellmade)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넘쳐나는 끼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윙은 소셜댄스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만족을 위한 춤이 아니다. 파트너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윙 재즈 음악을 많이 들어야 한다. 그럼으로서 여유가 생기고 음악의 루틴, 색깔, 스토리에 맞게 뮤지컬리티(musicality) 있는 춤을 출 수 있게 되면서 춤이 따분하지 않고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된다.

누구는 집 없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누구는 결혼은 안하지만 연애는 즐기고,
누구는 아이는 없어도 반려동물은 키우고, 적은 월급에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삶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스윙댄스의 매력에 빠져보자.
타의 반 자의 반 포기할 일이 많아지는 3포 시대 젊은이들이여,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재즈 선율에 몸을 맡기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보라.

배려하면 더욱 즐거운 만화로 보는 에티켓 TIP. (글, 그림 난다)

1 리더의 배려, 마음가짐편



2 청결편



사회적경제와 마을의 융합을 넘어 예술가와의 상생을 꿈꾼다

마을 속 예술가의 역할 찾기

취재·정리_한효영(예술세계 기자) / 사진_김준수(한국예총)

성북구에는 유독 언덕이 많다.

내 몸이 작은 아이였을 때, 언덕 아래에서 가야할 길을 올려다 보면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헤아릴 수 없었다. 거대하고 아득한 광경과도 같은 길.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그런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 센터는 모호한 경계에 있는 듯 했지만,
본연의 역할보다 더 많은 이들의 삶을 지지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마을공동체 속에서 예술가가 어떻게 자생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역할을 찾아가는지 함께 들여다 보자.



그림_김소연_성북천변 은행나무길

**“너, 나, 우리의 문제를 협동으로 해결하는 ‘함께 사는 마을’을
꿈꿉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김유리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는 북촌마을, 창수마을 등 여러 사례가 있다. 도시 안에서 형성되는 마을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 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웃과의 교류, 소통이라는 관계 맺기가 아닌가 싶다. 성북구에는 특히 마을공동체가 많다.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가 해제되면서 드러난 주민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사회적경제와 주민들의 요구를 결합하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처음의 취지였다. 정부지원이 끊기면서 낙후된 부분들을 개선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 주체를 선정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센터는 성북구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가?

김유리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 의식 함양 사업이나 주민들이 직접 체감 가능한 사업들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 센터는 민관의 중간 조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김유리 실장(사회적경제실)



사회적기업 스피어 심소라 대표(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다시 정리하자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 의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지역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사업 기회를 주거나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사업 수탁 과정 등의 행정적 절차를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센터에는 사회적경제조직 11곳이 입주해 있다. 마을공동체 1곳, 협동조합 3곳, 비영리민간단체 1곳, 사회적기업 6곳이 해당된다. 이들 입주기업·단체와 지역 주민의 협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김유리 2014년도 5,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입주 기업 및 관내 기업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주었다. 소규모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여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끌어 내는 모습을 보며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단, 이러한 주민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심소라 센터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 느끼는 현안과 그 온도차는 다르다. 당시 성북구는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었고, 문화예술 기업으로써 도시재생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2015년 장위동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실감각이 생겼다. 도시재생이란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가지 단계적인 프로세스로 접근해야 하며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처음엔 거시적인 계획 속에서 단편적인 역할을 위해 앞뒤 상황 모른 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당연히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고, 공공기관에서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로 오해하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정서적 힐링과 소통이 중요하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먼저 자신의 생활터전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신뢰감이 쌓이고 감성적으로 충분한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다만, 그 역할에 있어서 문화예술팀이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편적으로 투입될 경우 오히려 문화예술에 대한 거부감만 생길 수도 있다.

지난해는 도시재생 전단계인 한천마을에 투입되었고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을의 상황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문화예술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에 맞게 진행하였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니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문화예술이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하나의 매개체로써 매우 좋은 소통체계가 된다는 장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하지만 긴 과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자생적인 부분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



참여했던 주민 중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던 사람이 있는가?

심소라 버려지는 신문지로 방석이나 컵받침 등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잘 만들기보다는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주민들끼리 모인 경쟁구도가 생기더라. 어르신들 중 글을 몰라서 소극적이고 그동안 마을에서 소외되었던 분이 있었는데, 손재주가 좋아 업사이클 활동을 아주 잘 해냈다. 나중에는 직접 주민들에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정도였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을 찾고 마을 주민들과도 주도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다. 주민들도 예전 같으면 마을에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구정에서 왜 저거 안 치우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것들도 모아놓고 재밌는 것을 만들어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심소라 다른 지역보다는 성북구가 주민화합이나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등에 대해 능동적인 편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문화예술은 도시재생이나 도시설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분위기가 깔려있다. 어쩌면 현실적인 문화예술의 위치이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화예술 사업들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 낸 해외의 우수사례들이 많다. 그것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작 단계부터 문화예술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마음에 그러한 해외 성공 사례를 차용하여 성과를 도출해 달라는 행정관서의 과업지시는 국내의 상황과는 맞지 않기에 성공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실상에 맞추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해외의 성공 사례 같은 성과가 나온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끊임없이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이 있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기대만큼 기획과 과정에 대해 기다려 줄 수 있는 공감대도 형성되면 좋겠다.

센터에서는 올해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가?

김유리 사회적경제 부문의 사업은 크게 주체 발굴, 시장 조성, 홍보, 교육 4가지로 진행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주체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매출증대와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기 위한 시장을 조성한다. 또한 센터의 수행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이 진행된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

김유리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관의 전략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과 공공시장 마케팅, 상호 거래 활성화를 지원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젊은 예술 전공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심소라 스펀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회사이다. 항상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정해진 공식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 우리가 20대 때 왜 절망적이었는지 생각해 보라. 정해진 탈출구가 있는 줄 알았던 것이 큰 착각이었다. 한편으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없다는 것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예술을 전공하였으나 졸업한 뒤 취직할 곳이 없으므로 예술적인 끼를 접고 전공을 바꿔서 취직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은 기존에 짜여진 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원하는 길이 없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다. 스스로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 장기간 청년 실업이 더욱 심각해지다 보니 절망감도,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위기를 벗어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이 더 위험 할 수도 있다. 능동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Yechong NEWS

1

한국예총-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한국예총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지난 12월 9일 진행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문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 및 지원을 약속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이희범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문화예술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였다.



2

한국예총-도봉기적의도서관 전통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1월 25일, 한국예총과 도봉기적의도서관은 전통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총은 도봉구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고, 오는 8월부터 도봉기적의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국예총 예술강사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은 "전통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전통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창의적 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뜻 깊은 일"이라며, "향후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하였다. 한편, 도봉기적의도서관은 전국에서 12번째로 건립된 기적의도서관으로 2015년에 개관한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다.



3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 효력 갱신 실시

명인 발굴·기록·인증·전승하는 체계 구축과 유동 촉진 등 각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인증기간이 도래한 명인(인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3년)들을 대상으로 인증 효력 갱신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1~2회 인증자(2013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3명의 명인들이 인증 효력을 갱신하여 12월 19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소공연장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2017년에는 3회 명인과 1~2회 명인 중 2016년도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효력 갱신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초 명인인증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효력을 갱신한 명인은 이후 갱신평가를 면제하고 갱신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선임명인으로 인증한다.



Hot issue

제2기 명인 전승아카데미 준비 워크숍 성료

전승아카데미 개원 인준식 및 전승조교 위촉식 개최
한국예총은 제2기 명인 전승아카데미 개설 신청자 29명을 대상으로 개설 추진 워크숍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1차 워크숍은 지난 1월 16일 한국예총 본부에서 전승 아카데미 운영계획 설명과 개설 전반에 대한 준비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차 워크숍은 2월 16일부터 2일간 수원문화재단에서 진행되었다. 1기 아카데미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상호간의 운영과정 노하우 공유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오는 3월 15일에는 전승아카데미 개원 인준서 수여식과 전승조교 위촉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11월에는 전승조교와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수련생들

이 참가하는 '제2회 명인 전승아카데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승아카데미를 통해 한국예술문화명인들이 보다 활발하게 전승 활동을 펼쳐 나가고, 예술적 기량과 정신이 계승되고 발전되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2회 명인 전승아카데미

성명	인증구분	지역	성명	인증구분	지역
기흥성	전통건축 (기타-건축조영물)	서울 용산구	유기선	공예 (가구공예-소독)	충남 태안
김길수	공예(나전칠기-옻칠)	경기도 남양주	윤석희	화예 (현대-공간연출)	서울 종로구
김예경	전통무용 (창작기타-우리춤체조)	서울 양천구	이부미	공예 (한지공예-한지그림)	경기도 부천
김영미	공예 (한지-생활조형디자인)	서울 양천구	이성만	공예 (섬유-족염색)	강원도 원주
김영배	서예 (한문서예-한문전각)	서울 도봉구	이순금	서예 (한문-예서)	경기도 용인
나정희	공예 (규방공예-조각보)	경기도 수원	이완재	전통무용 (놀이춤-설장고)	전북 군산
문근남	전통복식 (궁중복식-침선)	울산 남구	이진규	공예 (창승-장승제작)	경남 창원
박명옥	공예 (염색-섬유염색)	울산 남구	임영국	현대회화 (구상-사실)	충남 천안
백미경	공예 (꽃공예-꽃누르미)	경기도 광주	장효선	전통무예 (복원무예-용담검무)	서울 성북구
서정철	한국화 (풍속-전통풍속화)	경기도 파주	한명순	화예 (현대화예-공간연출)	서울 동작구
신세진	전통제조 (기타생활용품- 수제전통비누)	서울 성북구	황미임	화예 (현대화예-성정장식)	서울 동작구
안용국	사진 (컬러-창작사진)	대구 수성구	오 면	화예 (현대화예-구조물조형)	서울 마포

※ 전승아카데미별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봄나들이 나온 '한국예술문화명인명작전' 개최

한국예술문화명인 집행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15일부터 14일간 서울 인사동 하나로 갤러리에서 '한국예술문화명인명작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한국예총 명인 46명이 참여하고, 공예, 염색, 서예, 서각, 사진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봄나들이 나온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 오픈링 행사는 오픈 당일인 3월 15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문의 02-2655-3099)



한국문인협회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회 개최



한국문인협회는 지난 1월 2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사)한민족평화나눔재단과 공동으로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회를 개최했다. 문효치 이사장의 대회사, 소강석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시인, 새에덴교회 담임목사)의 개회사, 이광복 부이사장의 경과보고로 시작한 이 학술회에는 150여 명의 문인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원식 시인(한국스토리문화회 회장)이 사회를 맡은 제1부 순서에서는 김서령 시인(포엠아티스트)이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시낭송과 함께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강희근 부이사장이 제2부 좌장을 맡아 열린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다.

한국문인협회 (예정)

한국문학인 '완도 방문의 해' 문학행사 완도서 개최

오는 4월 21일 1박 2일간 여부사시사의 섬, 완도에서 문학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문학축제가 열린다. 이번 문학 행사에서는 '해양문학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해양문학 학술세미나가 진행되며, 완도와 관련된 내용의 자작시로 전국 시낭송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장보고 기념관을 비롯한 장보고 유적지를 탐방하는 등 문학인들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 4. 21(금) ~22(토)



한국건축가협회

2017 국제건축문화정책심포지엄 "문화의 숨: 건축, AIR OF CULTURE: ARCHITECTURE"

건축을 문화적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홍보와 21세기 국내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국제 건축문화정책심포지엄을 오는 2017년 3월 개최한다.

"문화의 숨: 건축(Air Of Culture: Architecture)"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시민과 정책관련자, 건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건축의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건축문화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국가의 건축정책 전문가와 건축을 통해 문화적 창조물을 구현한 유명 건축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건축적 가치관을 통해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축문화정책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자리이다.

일시 : 2017. 03. 10(금) 10:00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 1관 / DDP Art Hall 1

문의 : 02-744-8050 / www.symposium2017.kia.or.kr



한국무용협회 (예정)

한국무용협회 2017 상반기 주요사업

한국무용협회에서는 2017 상반기 사업 일정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7 젊은안무자창작공연', '제48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무용콩쿠르', '제54회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우수 예술인력 발굴과 인재 양성은 물론 젊은 안무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는 한국무용협회 사무국 ☎ 02-744-8066으로 하면 된다.

■ 2017 젊은안무자창작공연

접수 : 2. 27(월) ~ 3. 16(목)

일시 : 5. 9(화) ~ 5. 14(일)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오디션 : 3. 24(금) 2시

■ 제48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무용콩쿠르

접수 : 4. 7(금) ~ 5. 12(금)

일시 : 5. 20(토) ~ 5. 21(일)

장소 :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 제54회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접수 : 5. 29(월) ~ 6. 18(일)

일시 : 예선 6. 29(목) / 본선 7. 6(목)

장소 :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한국국악협회 (예정)

제28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개최

한국국악협회는 오는 3월 26일 (일)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28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그동안 갖고 닦아왔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국악인 저변 확대 및 신세대 국악인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학생국악전문대회로 우리 전통의 예술문화가 계승 발전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연합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G-1년 올림픽페스티벌 “천년 학 축제”

강원도 동해시는 일출과 더불어 사계절이 아름다운 무릉계곡이 있다. 명소인 만큼 사계절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하는 무릉계곡의 무릉반석에서는 독특한 천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천년 학 축제”를 통해 학과 어우러지는 무릉계곡의 자연풍광과 예술을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세계 각국의 선수 및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강원도의 질 높은 문화콘텐츠를 보여줌으로써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난 후에도 찾아 볼 수 있는 강원도 지역 관광 산업의 큰 자량거리로 자리할 것이다.

일시 : 2017. 02. 15(수) 19:00

장소 : 해람문화관 (강릉원주대학교)

문의 : 033-642-7145 / www.gnart.org



인천연합회 (예정)

2017 문화가 있는 날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 고갱 vs 고흐”

오는 3월 29일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 고갱 vs 고흐” (1m 체험클래식-영화와 클래식의 만남)가 진행된다.

인상주의 화가인 고갱과 고흐의 이야기를 소재로, 그들이 함께 고민했던 예술세계와 작품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클래식 큐레이터의 명쾌한 해설과 전문연주자들의 감동이 있는 연주, 그리고 열정 있는 화가의 작품들과 함께 영화 속 클래식의 매력을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 3월 29일(수) 19:30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문의 : 032-868-7196



부산연합회 (현재)

2017 예술아카데미 수강생 상시 모집

부산연합회에서는 부산예술회관에서 실시되는 2017년 예술아카데미 수강생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번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으며 악기 연주, 댄스, 사군자, 무용, 노래 등 총 15가지의 강의를 준비되어 있다. 각 과정마다 2개월에서 3개월의 교육기간이 소요되며 부산지회는 보다 깊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장소 : 부산예술회관 3층 302호

문의 : 051-631-1377 / www.bsart.or.kr

구분	과목	강사	수강료	수강기간
악기	강사	강사	강사	강사
무용	강사	강사	강사	강사
노래	강사	강사	강사	강사
사군자	강사	강사	강사	강사
댄스	강사	강사	강사	강사
수묵화	강사	강사	강사	강사
서예	강사	강사	강사	강사
미술	강사	강사	강사	강사
영화	강사	강사	강사	강사
문학	강사	강사	강사	강사
역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과학	강사	강사	강사	강사
스포츠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건강	강사	강사	강사	강사
문화	강사	강사	강사	강사
언어	강사	강사	강사	강사
여행	강사	강사	강사	강사
취미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기타	강사	강사	강사	강사

대구연합회 (현재)

2017 대구예술문화대학 개강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구예술문화대학은 건축,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등 한국예총 대구연합회 산하 10개 협회 소속 예술인과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주1회 각기 다른 주제의 강의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일시 : 1학기 2017년 3월 14

일 ~ 6월 [4개월]

2학기 2017년 9월 ~ 11월 [3개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

문의 : 053-651-5028 / www.dgyechong.com



광주연합회 (현재)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결과展 '이you있는 공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 예술인들이 서로 협력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5관에서 '이you있는 공존' 전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연합회가 지난해 8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위탁체로 선정되면서 레지던시프로그램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이다. 아시아창작스튜디오는 지역예술가 육성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레지던시, 문화예술교육강좌, 문화술품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다.

3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13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you있는 공존'이라는 주제로 장르 간, 작가 간 교류를 통해 실험적 창작활동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편 성유진 작가는 '전경자, 이우환, 조영남 사태'에 대한 예술의 정의와 문제 등 개인적 고민의 기록을 작품 '이것은 아름다운가요'를 통해 풀어내는 등 김병모, 박유자, 서영기, 신호재, 윤병학, 조규철, 최대주 등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강릉지회

2017 강릉겨울퍼포먼스페스티벌 강릉, 소소(笑昭)한 생활문화 속으로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한 퍼포먼스 페스티벌 개최로 지역 시민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거리공연축제를 추진한다. 강릉지회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대형설치 미술을 통한 조형물 제작과 지역예술단체의 콜라보를 통한 퍼포먼스 공연을 추진한다.

일시 : 2017. 02. 14(화)
~ 19(일) [6일간]
장소 : 문화의 거리
~ 임당생활문화센터
문의 : 033-642-7145
www.gnart.org



수원지회

2017 수원예총 신년하례식 및 제1회 수원예술인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지역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예술인을 격려하는 '제1회 수원예술인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의장, 하철경 한국예총 회장, 김승국 수원문화재단 대표, 유근종 초대 정조대왕 등 내빈을 비롯한 수원지회 회원 130여명이 참석하였고, 미술, 음악, 문인, 연예, 무용, 국악, 사진, 연극, 공로 등 9개 부문에서 수상을 진행하였다.

일시 : 2017. 01. 17(화) 11:00 ~ 13:00
장소 : 파티움하우스 더 그레이스켈리 수원 (그레이스켈리 올)
문의 : 031-257-2966 / www.artsuwon.org

남양주지회

다산과 관련된 답사여행을 다큐로 제작 "다산의 마음을 헤아리다."



남양주지회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간 다산과 관련된 답사여행을 다녀왔고 그 여행을 다큐로 제작하여 일반에 배포하였다. 다산의 유배지인 강진, 중형인 손암과 영원한 이별을 했던 나주의 밤남정, 선영터가 있던 충주하담과 조부와 정약전, 정약종을 모신 천진암을 답사하며 다산의 혼과 다산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남양주의 예술가들과茶艺이 이 여정 속에서 다산의 마음이 되어보고 다산의 삶을 학습하였으며 이러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다큐로 제작된 것인 만큼 이 다큐물이 우리 남양주의 예술인들과 다산의 도시인 남양주를 찾는 여행객, 그리고 남양주의 학생, 시민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이 행사를 기획한 남양주지회 황자윤 사무국장은 밝혔다.

올해에는 정조와 실학자 다산의 숨결이 오롯이 담겨있는 수원의 화성과 손암의 유배지인 흑산도 그리고 다산의 유배지였던 포항 장기를 답사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모두가 그 성과에 더한 성과를 기대해 본다.

문의 : 031-592-1811
E-Mail : art1812@naver.com

부천시회

'복사골 버스킹' 제33회 복사골예술제

복사골예술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거리공연으로 복사골예술제 공연 중 관객과 가장 가까워서 소통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다. 공연이 가능한 개인 혹은 단체라면 누구나 장르 구분 없이 지원 할 수 있으며 2월과 3월 사이에 모집이 마무리 하였다.

이 밖에 복사골예술제는 버스킹을 제외하고도 90만 부천시민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공연과 체험·홍보·먹거리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3일간 행사에 참여 가능하거나 새롭고 참신한 아이템을 갖고있는 단체라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다.

한편 따스한 봄을 알리는 부천의 시민축제인 '제33회 복사골예술제'는 5월 4~7일까지 진행된다.

접수기간 : 2017. 02. 13(월) ~ 03. 10(금) 18:00

행사일정 : 2017. 05. 05(금) ~ 05. 07(일) 총 3일간 11:00 ~ 18:00

장소 : 부천시청 잔디광장 및 중앙공원 일원

문의 : 032-325-1566 / www.artbucheon.com



부천시회 예술강좌 수강생 모집

예술의 가치를 삶속에서 구현하고자 전문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예술 강좌를 부천시회가 나서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부천시회의 예술 강좌 프로그램은 산문, 포토샵, 문학일반, 사진 등 6개 강좌로 실생활에 응용하기 쉬운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 과정 중 80%이상을 출석하는 학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고 한다.

모집기간 : 2월 1일 ~ 3월 10일

운영기간 : 3월 ~ 7월 [16주] / 8월 ~ 12월 [16주]

수강료 : 5만원 [16주]

장소 : 한국예총부천시회 내 교육실

문의 : 032-352-1566 / www.artbucheon.com

서귀포시회 (예정)

2017 생생문화재 '탐라에서 남극노인성을 보다'

한국예총 서귀포시회는 문화재에 담긴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을 통해 100세 시대 국민건강을 기원하는 문헌이 토대가 된 사업이다. 특히 노인성 관측을 통해 야간관광 문화상품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행사에는 별 해설사가 투입되어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별 해설사는 특성상 야간에도 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해설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도민이나 자원봉사 의지가 투철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참여하는 별 해설사는 양성교육 수료자 중 성적 우수자가 하게 된다.

별 해설사 교육 참가자는 오는 24일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회로 문의하면 된다.

일시 : 2017. 03. 25(토) [메인행사]

장소 : 이중섭공원 일대

문의 : 064-739-3287 / cafe.daum.net/seogwipo7



안산지회 (예정)

5월20일 '제10회 전국청소년 뮤직페어' 개최

안산지회에서는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안산문화광장 전 큰광장에서 '제10회 전국청소년 뮤직페어(Music fair)'를 개최한다.

중·고등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는 청소년뮤직페어는 대상에 100만원, 최우수상에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각20만원의 공연비가 지급되며 대회 입상자에게는 대학진학 특전의 기회도 주어진다.

이번 뮤직페스티벌은 이메일

(ansan3844@naver.com)로 접수 받고, 예선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사를 통해 5월9일 본선진출자를 발표하고 5월 20일 안산 문화광장 전큰광장에서 본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신청 : www.ansanart.co.kr

문의 : 031-485-3844



제천지회 (현재)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문화예술 시민아카데미' 운영

제천지회가 지역 문화예술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지역 예술인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제천의 문화예술생태계 지속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아카데미는 총 12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이 행사를 통해 제천의 예술가와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와 차세대 청년예술가 발굴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문화예술 시민아카데미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천지회(043-643-7046)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지회 (현재)

2017 클래식음악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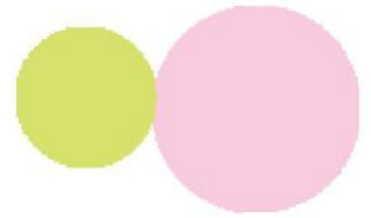


평택지회는 예술에 목이 마른 평택 시민들을 위해 '클래식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무료 클래식 음악 감상 강화를 개설한다. 5개월 가까이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3월 8일(수)부터 7월 26일(수)까지 평택 남부 문화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지며 수강생은 수시모집하고 있고, 이론 강의를 바탕으로 한 이번 클래식 음악 감상 교실은 초청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연주자의 질을 높였다.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10:00 ~ 12:00

문의 : 031-257-3393 / ptart1.cafe24.com

꿈과 함께 성장하는 도봉기적의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은 2015년 7월 30일 개관하였다. 전층 2층으로 1층에는 어린이독서공간, 수유실, 강당, 전시공간, 휴게실이 있으며 2층에는 청소년·성인독서공간, 세미나실, DVD시청실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도서열람, 세미나, 작가와의 만남, 영화상영,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로운 상상과 발견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주민참여공간 및 지역 문화명소로 자리매김 해 가고있다.



▲도봉기적의도서관 입구전경



▲1층내부 중앙정원



▲도서관 1층 열람실

도봉기적의도서관은 전 층이 온돌바닥으로 되어 있고, 소리 내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책 읽어주는 방',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고 재울 수 있는 '나비잠'이 있고, 연중 새로운 전시로 눈을 사로잡는 전시공간이 별자람 이레채(1층)에 있다. 원형의 책날개 계단을 오르면 청소년, 성인을 위한 자료와 세미나실, 옥상정원이 있는 별자람 위채(2층)에 이른다.

▼ 1층강당 열두대문극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직도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대관안내

예술문화가 있는 복합문화공간

대지면적 4,379㎡(1,324평),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 규모로
전시장과 공연장, 세미나실, 오피스텔, 컨벤션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

회의실



세미나실A (지상 9층 / 50명 수용)



세미나실B (지상 9층 / 20명 수용)

2

갤러리에술세계



갤러리A (지상 1층 / 60평)



갤러리B (지상 1층 / 25평)



갤러리C (지하 1층 / 100평)

3

다목적 회의실



지하 1층 / 80~200명 수용



한국예술문화명인 전승아카데미

"예술문화의 새로운 전승체계를 선도할 동력이 될 것입니다."

1 무엇을?

명인 아카데미

전승 과업설계

- 실행을 위한 핵심 과업 설계
- 전승활동의 일관성, 효율성 도모
- 전승공모사업발굴

+

체계적 전승시스템 구축

- 한국예총과 이수·전수과정 설계
- 교재개발, 현장여건확보, 조교양성 및 확보
- 협업체계 Net-working
- 통합학사관리

본부에서 지원 및 관리 행정 통합 운영

2 어떻게? → 희망하시는 명인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설신청	2) 개원식/ 전수생 모집/ 전수활동	3) 수료 및 수료 후 조치
아카데미 개설자	* 개설 신청 요건 구비 *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워크샵 참여(매년1월) (별도공지) * 워크샵 참여 완료 후 예총 본부 명인 지원팀으로 신청(별지 신청서식 참조)	* 현판수령 및 개원식 * 전수생 모집 및 등록 * 교재 및 프로그램 확정 * 전승 활동 [초급, 중급, 고급과정 개설 시행]	* 수료행사는 본부 또는 지역별로 통합 실시 * 전승 프로그램에 따라 초급 → 중급 → 고급 단계별 시행 * 고급과정 이수자는 전승조교 임명
본부 조치	*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안내 워크샵 개최 * 신청명인 현장실사 * 실사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 실사조건 ■ 5명 이상의 전승학습 시설 확보 ■ 전승 프로그램 확보(교재 등) ■ 전승 조교 및 전수생 확보 ■ 운영비 납부	* 인준허판 공급 및 협약 * 통합 입학식 및 전승 학사 관리 * 교재 및 프로그램 등록 * 모집공고 및 홍보지원 * 강사 지원 및 협업 Net-working * 지자체 및 기관협력 사항 조치	* 수료 전시회 <발표회> * 수료증 발급 * 수료자 DB 구축 * 전승조교 임명 * 전승조교 인력풀 구축 * 전승조교 예총 특별회원 가입 * 고용지원 및 활동 촉진

3 문의 및 접수처

문의 한국예총 명인지원팀 [02-2655-3099]

접수처 이메일 [art3099@naver.com]

우편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예총 전문위원실]

명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한국 전통예술 · 문화의 새로운 발견과
가치를 평가하고 우리의 소중한
예술 · 문화 콘텐츠를

발굴 · 기록 · 인증 · 전승 · 유통 등
5단계 과정을 통하여 창작활동 촉진

■ 명인인증 지정 대상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유지·발전시키면서 높은 수준의 유·무형 성과물로 이를
실현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 사람과 성과물

- 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예술문화 활동 및 장인들의 창작품·생산품
- ② 보존 및 유지가치가 있는 생활도구와 유·무형의 문화
- ③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보편화된 문화와 전문종사자

■ 명인 분류체계(표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최종 지정부문)

[예 : 대분류(공예)-중분류(한지공예)-소분류(다종이인형부문)]

■ 신청자격

- ① 상기 '명인인증 지정대상'에 해당되고, 동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 ② 무형문화재 전수자 또는 명인으로부터 그 보유 기능에 대한 전수
(또는 과정 이수)를 받은 후 10년 이상 동 분야에 종사한 자
- ③ 창작품과 전문성이 세계화·대중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 작품 및 예술인(전문인)

■ 신청방법

(사)한국예총 홈페이지(<http://www.yechong.or.kr>) '한국예술문화 명인 인증
공고'에서 상세 안내받아 지정서식에 의해 작성 신청

- ① 한국예총 전국 광역시·도연합회, 시·군·지회 사무실에서 안내 받아 신청
- ②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천자가 작성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 안내

① 서류접수

연중무휴 신청접수 (단, 마감은 매년 3월 31일까지)

1차 접수비 : ₩100,000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002-464396(예금주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접수비 납부는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이체 납부

서류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서류접수처 : 02-2655-3099(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예총 전문위원실)

② 금회 접수종목 : 한국예총 홈페이지 명인 안내 참조

③ 1차 서류심사 : 매년 4.1~4.15

④ 실사 및 인증과정 안내 워크숍 : 매년 4.16~4.30(1차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⑤ 2차 현장실사 : 신청접수 후 수시

⑥ 3차 실기 심사 및 인터뷰 · 기록물 제출 : 매년 5.1~5.15

⑦ 인증전시 및 작품발표 : 매년 6.1~6.15

⑧ 최종 확정자 발표 : 매년 6.15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2차 탈락자는 최초포함 10회에
걸쳐 서류심사 면제)

■ 명인인증을 받으면...

- ① (사)한국예총의 특별회원 가입 및 전문위원 위촉
- ② 명인패 및 명인인증서 수여
- ③ 명인도록 및 연감에 등재
- ④ 예술문화 명인아카데미 최고위과정 참여기회 부여
- ⑤ (사)한국예총 홈페이지에 등재 및 명인인터넷 방송에 홍보
- ⑥ (사)한국예총 및 전국 광역시·도연합회, 시·군 지회와 협업관계 구축 및
한국예총 전시장·공연장 사용시 우대
- ⑦ 매년 명인대제전을 열어 활동성과 평가 및 시상
- ⑧ (사)한국예총(전국지회 포함) 주관 예술·문화프로그램 등에 지도위원 및
초빙강사로 위촉
- ⑨ 전국 예술·문화관련 관공서·기관·단체 등에 예술문화유산으로 명인
콘텐츠 등재 및 통보
- ⑩ 한국예총 평생교육원에 명인아카데미 과정 개설 기회 부여



한국예술문화명인

THE AGENCY FOR KOREA ART & CULTURE MASTERS

주 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후 원 한국무용협회 · 한국미술협회 · 한국음악협회 · 한국연극협회 · 한국문인협회 ·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국악협회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 한국건축가협회 · 한국사진작가협회

문 의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예총 전문위원실

Tel. 02-2655-3099, 3013

www.yechong.or.kr

art3099@naver.com

해피효원 라이프플랜 I

효원의 차별화 된 해피크루즈, 해피엔딩, 해피웨딩이 하나로

해피크루즈



해피엔딩



해피웨딩



‘해피효원 라이프플랜 I’ 만의 혜택

① 행복한혜택

이랜드그룹 컨스텝리조트, 동강시스타 및 펜션 컨시어지 서비스

- 회원 서비스 혜택으로 1년 10박, 20년간 총 200박 사용 가능
- 리조트, 콘도, 호텔 및 펜션까지 제휴 할인가로 이용 가능
- 주중, 주말/연휴, 성수기 이용 가능

② 행복한혜택

동부화재 프로미고객사랑보험 무료 가입 혜택

- ‘해피효원 라이프플랜 I’ 가입 회원에게 프로미고객사랑보험 무료 가입 제공
(보이스피싱&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③ 행복한혜택

가족사진 촬영권 무료 제공

- ‘해피효원 라이프플랜 I’ 가입 회원에게 가족사진 촬영권 무료 제공

효원상조 고문

이동국



서울시 강동구 문성로 38길 9, 3층 (성내동) | 사업자 등록번호 : 126-81-81624
 선물식 합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0-제28호 | E-mail : hyowon@hwsj.co.kr
 홈페이지 : www.hwsj.co.kr | 효원 힐링센터 : www.hwhaling.com

효원 힐링센터 임종체험 예약 및 상담문의 : 1644-3350

가입문의 010-5742-0124

(예총 안영일전문위원)

긴 급 상 황 실 1577-8873

(긴급상황실 24시간 항시대기)



한국복식문화의 50여년 전통과 뿌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문근남 백조한복연구실원장

걸어온 길

- | 1989년 ~ 2002년 울산 철쭉한복제, 미스코리아 울산, 미세스퀸 선발대회 심사위원
- | 1990년 일본 나고야 초청 한복패션쇼
- | 1990년 ~ 1997년 우리옷 협회 패션쇼 및 심사위원
- | 2000년 ~ 2004년 한국궁중복식연구원 패션쇼 및 전시회 참여
- | 2002년 중국 북경복장학원 초청 한국궁중복식연구원
- | 2000년 ~ 2004년 북경복장학원 Joint 패션쇼 및 전시회 참여
- | 2004년 울산 현대백화점, 메이 초청관례복식전 | 2004년 전통 어린이 복식전
- | 2013년 대한민국 한복페스티벌 in 울산 (with 권영세)
- | 2013년 박근혜대통령 베트남 순방기념 아오자이 & 한복패션쇼 참여

FACO Membership

당신을 위한 특별한 혜택, 한국예총 회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예총의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서비스와 풍성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 공통 : 홈페이지(www.yechong.or.kr)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접수 : yechongbon@naver.com
- 방문접수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예총

회원비

- 일반회원 : 연회비 10,000원 (가입비 없음)
- 특별회원 : 연회비 60,000원 / 가입비 50,000원

문의

02-2655-3000, 3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예총

혜택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입점업체 이용시 할인혜택(상세사항은 예총 홈페이지에서 안내)
예총 주관 각종 행사 우선 초대

층	업소명	주요 우대사항
9층	한국예총[예술, 문화서비스]	공통 : 예총 기획공연 30% 할인, 입점업체 우대서비스 촉진 특별회원 : 종합예술지 「예술세계」 배포
B1층	페리스타[음식업/ 한식]	식대할인 : 토요일 10%, 일요일 15%, 평일 별도협의
1층	갤러리아예술세계[전시]	대관 할인 : 일반회원 : 20%, 특별회원 : 30% 할인
1층	줄플라워[화훼(꽃)소매/ 생화]	모든 종류 화훼(꽃) 10%할인
1층	탐앤탐스[식음료/ 서비스]	제조음료 10%할인 또는 사이즈 UP
1층	이정헤어[미용업]	품목별 10%할인(커트 제외)
1층	뎃짱돈가스[경양식, 식음료]	정식 10%할인(단품은 제외)
2층	동천홍[중식]	식사료 10%할인(코스메뉴 주문시 와인 및 중국술 무료세팅, 식사료 제외한 모든메뉴는 정상가격)
2~5층	파코아트홀[예식장]	예식비 30%할인, 식대 10%할인
6층	(재)전통문화재단[서비스/ 박물관]	수강료(일반회원 10%할인, 특별회원 15%할인)
7층	올블랙스[휘트니스]	회원권 할인(6개월권 50%할인 → 60만원) ※ 개인락커, 운동복 무료
12층	메트로엠 필라테스[필라테스/서비스]	개인레슨 10%할인, 단체레슨(7인) 30%할인

국민이 원(ONE)하신다면!

KB국민
ONE 라이프
컬렉션



모두 다 ONE라이프하세요!



 KB 국민은행

편집 후기

- 계간 『매거진예술세계』는 민간단체의 유일한 종합예술지로 포지셔닝 되어 왔다. 이런저런 사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이 끊기고 절간·복간을 거듭하다가 우리 스스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2015년부터 계간으로 복간하였다.
- 예총 회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모아 콘텐츠 만들기, 광고유치, 편집위원들의 작품 재능기부, 편집장과 디자이너의 헌신적인 재능봉사,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광고협찬에 참여해 주신 협력업체들의 정성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었다.
- 『매거진예술세계』는 이토록 뜨거운 열정과 질긴 생명력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으니 수명도 길겠고 변화에 익숙할 것 같다. 조바심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독자들에게 가슴 찡한 감동을 드리고 늘 기다려지는 종합예술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면서 애독자들의 고언이 사랑의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해본다.
- 다시한번 참여와 재능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 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편집인 / 사무총장 / 황 의 철

정기구독 안내

-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하는 계간 『매거진예술세계』는 한국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생성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모든 예술분야에 대한 참신한 비평과 당면과제에 따른 기획전망 등 우리나라 예술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분들의 길잡이로 성장하였습니다.
- 예술문화 전문지로 일반 서점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 양해바라면서 정기구독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신청 02-2655-3000
- 홈페이지신청
www.yechong.or.kr
- 입금계좌
국민은행 878337-01-001801
(예금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정가 10,000원

광고 / 원고 모집

- 예술문화관련 비평, 칼럼을 비롯해 전시·공연 등의 행사 소식을 받습니다. 계간 『매거진예술세계』 이메일로 원고와 사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계간 『매거진예술세계』에서는 기사식 광고 및 기획 광고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정보와 읽을거리를 기사형식으로 제공하며, 에디터가 직접 기획 및 편집합니다. 광고 및 후원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며,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 담당자 한효영 | 02-2655-3015 artworld1969@naver.com



행복.희망을 만들어요



SGI는 日蓮大聖人 佛法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평화 · 문화 · 교육운동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행복의 가치를 창조하는 대승불교단체입니다



영등포희망문화회관 남광주행복문화회관 해운대희망문화회관 통일로평화문화회관 경기도 이천평화공원 이케다 기념강당 화랑신문사 제주한일우호연수원 인천연수원 행복유지원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

수호랑
Soohorang



이제는 평창입니다

Time for PyeongChang 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018.2.9~2.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3.9~3.18



반다비
Bandabi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 판매 안내

온라인 추첨식 판매 2017.02.09~04.23
온라인 일반 판매 2017.09.05~대회종료
<http://tickets.pyeongchang2018.com>

